2019년-2024년

인천대학교 취업경력개발원

취업·현장실습 수기모음집

생명과학기술대학

CONTENTS

01 취업경력개발원 소개 001

3개년치 취업률 001

STARinU 취업내역 입력 방법 002

상담 신청 방법 006

잡플래닛 이용방법 010

02 취업성공수기 013

03 현장실습수기 084

01

취업경력개발원 소개

3개년치 취업률

STARinU 취업내역 입력 방법

상담 신청 방법

잡플래닛 이용방법

01. 취업경력개발원 소개

가 【생명과학기술대학】 3개년치 취업률 및 취업처 현황

■ 3개년치 취업률

No	학과(부)	취업률(%)				1차유지취업률(%)			4차유지취업률(%)		
		2022	2023	2024	취업자/대상자 *(명)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인천대학교		67.0	70.6	65.0	1,660/2,555	92.7	92.6	93.6	83.2	83.3	82.8
생명과학기술대학		68.6	65.5	61.9	60/97	93.2	90.2	94.6	81.4	84.3	76.8
1	생명과학전공	76.0	60.0	63.6	14/22	85.7	100.0	84.6	85.7	83.3	69.2
2	분자의생명전공	66.7	85.2	66.7	10/15	93.3	76.5	88.9	86.7	70.6	66.7
3	생명공학전공	65.7	59.1	63.0	17/27	95.0	92.3	100.0	65.0	92.3	82.4
4	나노바이오 공학전공	66.7	50.0	57.6	19/33	100.0	100.0	100.0	100.0	100.0	82.4

*대상자 = 졸업자수-제외자수(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 정보공시 취업률을 바탕으로 학과성과평가 기준을 준용(계약학과 취업률은 산정 시 제외), 다만 대학 취업률의 경우 공시 취업률 기준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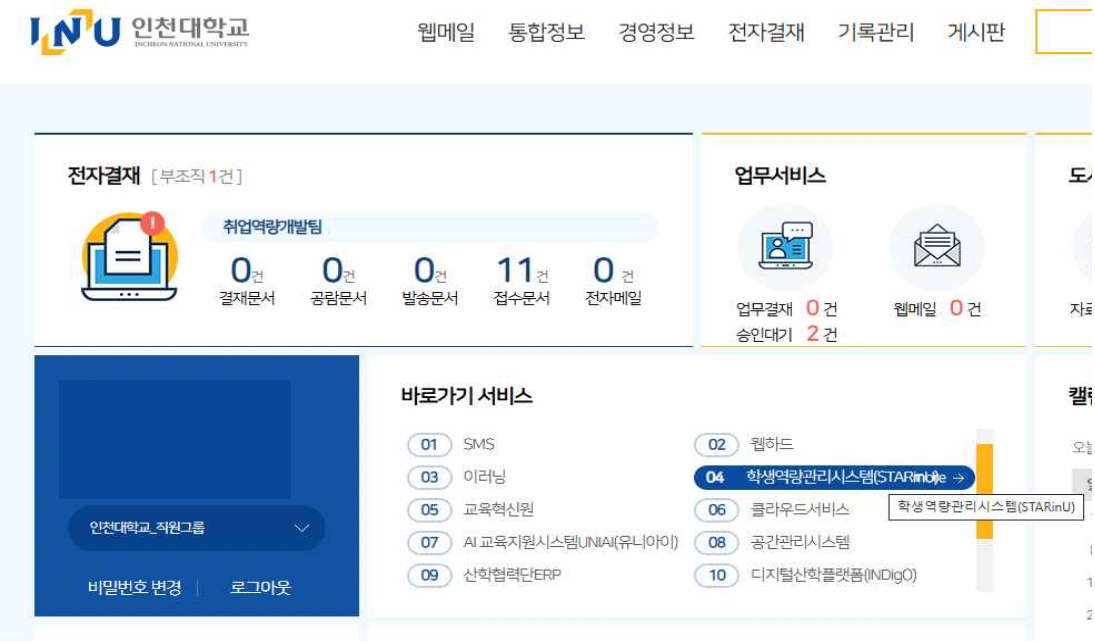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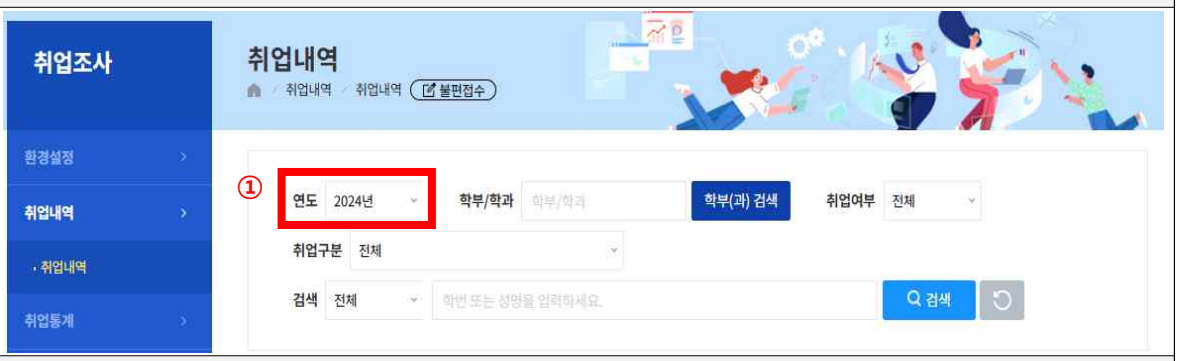
- 2022년 취업률 기준일자: 2021. 12. 31.(2020.8월/2021.2월 졸업생) - 2023년 취업률 기준일자: 2022. 12. 31.(2021.8월/2022.2월 졸업생)
- 2024년 취업률 기준일자: 2023. 12. 31.(2022.8월/2023.2월 졸업생)

※ 1차유지취업률: 기준년12월·익년3월 모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기준년12월 건강보험직장가입자×100
4차유지취업률: 기준년12월·익년3월·6월·9월·11월 모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기준년12월 건강보험직장가입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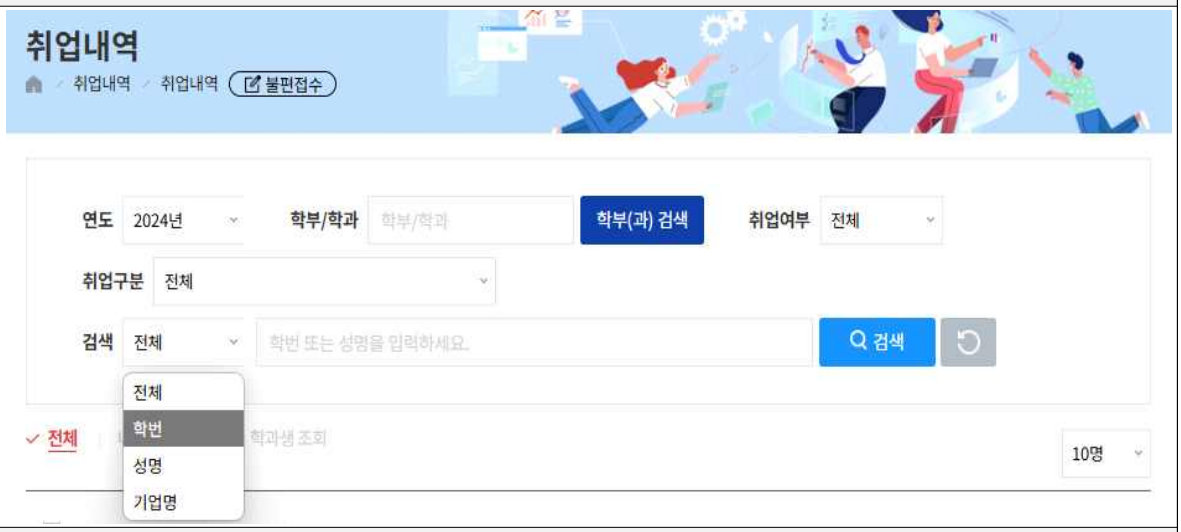
■ 최근 취업처 현황(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 공공DB연계)

연번	학과	주요 취업처	직무
1	생명과학	셀트리온, 바이넥스, 에이프로젠, 삼천당제약, 제일약품, 바이오클론, 경방신약, 영풍제약, 메틀러토레도코리아, 극지연구소	생산・품질((3명), 생명과학(2명), 경영지원, 여행・숙박, 소프트웨어개발, 연구원
2	분자의생명	이연제약, 엠아이텍, ㈜휴온스바이오파마, 찰스리버코리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생산・품질, 광고・조사, 경영지원, 사무보조, 건축・토목공학, 연구원, 소프트웨어개발
3	생명공학	부광약품, 종근당, 동구바이오제약, 중외제약, 유한화학, 대웅제약, 보로노이,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연구원(4명), 생산・품질((3명), 경영지원(2명), 화학공학, 제조
4	나노바이오	한미약품, 대한약품공업, 한미정밀화학, 한림제약, HK이노엔, 피엘코스메틱, 지브레인, 셀코스	연구원(3명), 생산・품질((2명), 경영지원(2명), 제조(2명) 데이터・네트워크(2명). 소프트웨어 개발

나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 취업내역 입력 방법

순서	그림
1	 ▪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 접속
2	 ▪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 ▶ 취업조사 ▶ 취업내역 클릭
3 *개별 등록	 ▪ 입력하려는 학생의 ①졸업연도(전년도 8월 졸업생 및 당해연도 2월 졸업생) 선택, ②해당 학부/학과 선택 (참고) | 졸업연도 | 졸업생 | | 2024년 졸업생 | 24년 2월 & 23년 8월 졸업생 | | 2025년 졸업생 | 25년 2월 & 24년 8월 졸업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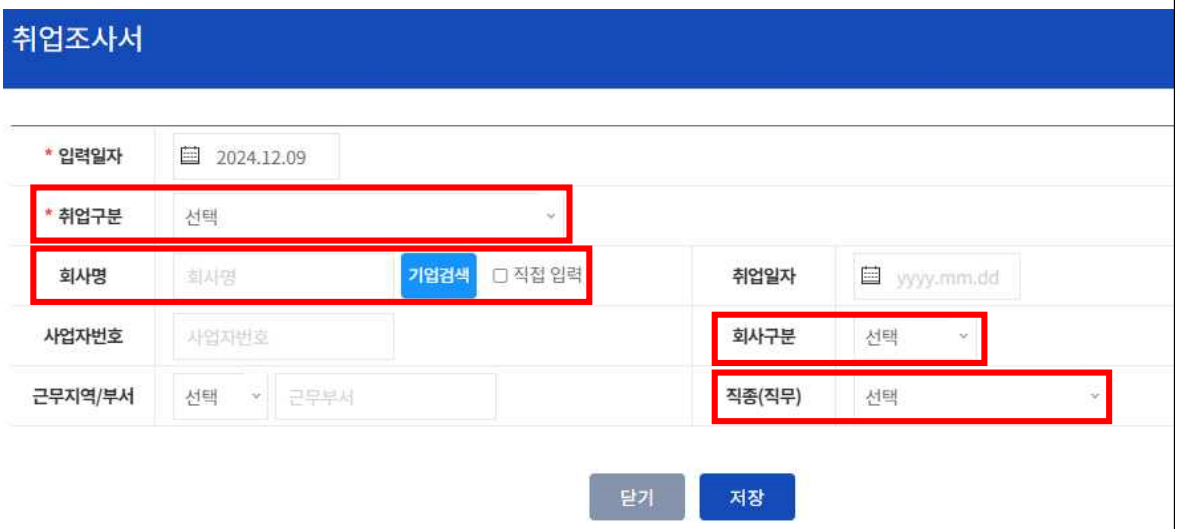
순서	그림



▪ 검색란에 [학번 또는 성명]으로 검색 가능

▪ 취업여부가 N인 학생 중 [관리] 버튼 클릭

▪ 학생정보 확인 후 취업조사 이력 [추가] 버튼 클릭

순서	그림
	 ▪ [취업조사서] 작성 시 취업구분(취업자(세부구분별)/진학자(세부구분별)/미취업자 선택), 회사명(기업검색 권장), 회사구분(선택), 직종(직무) 등 각종 정보 입력 후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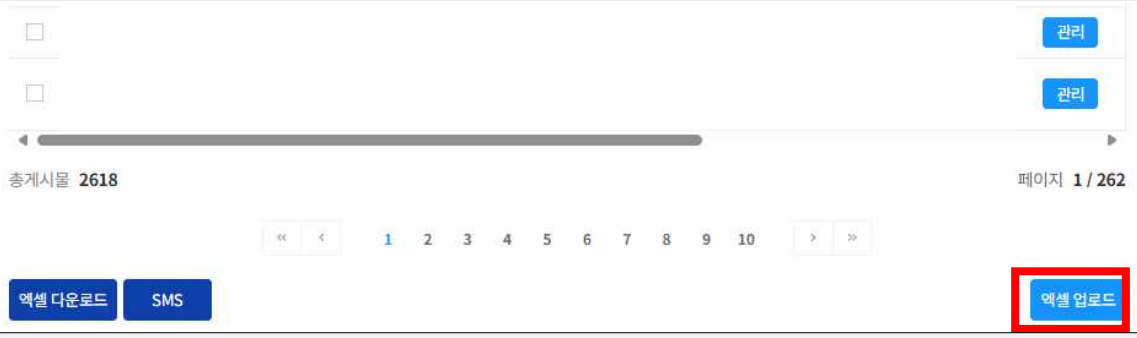
■ 일괄 등록 방법

순서	그림
1	 ▪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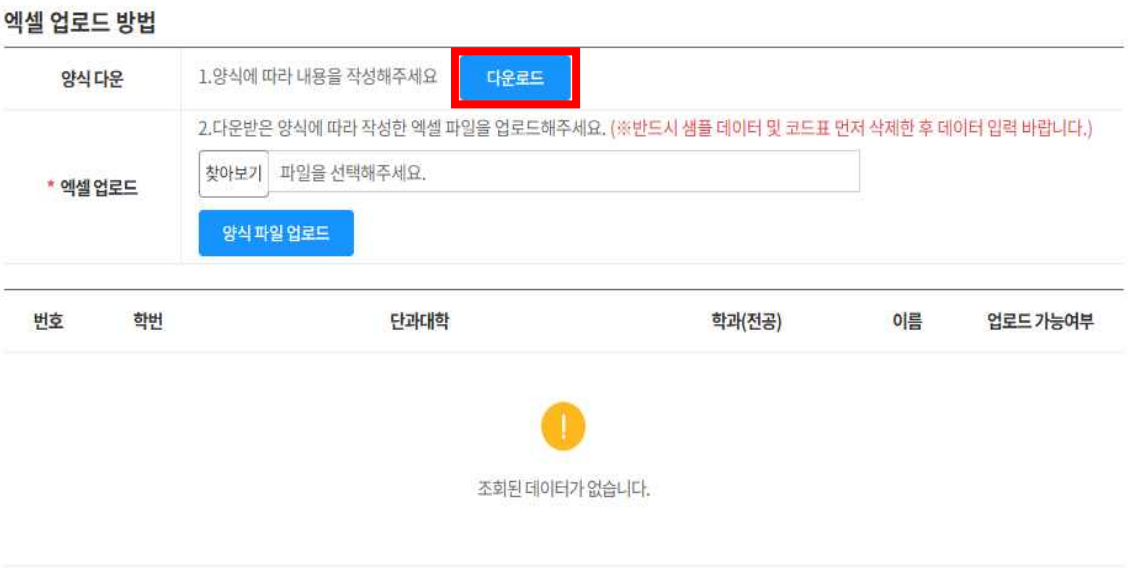
2

-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 ▶ 취업조사 ▶ 취업내역 클릭

4
*일괄
등록



- 취업내역 화면 오른쪽 하단 [엑셀업로드] 클릭



- 양식 파일 다운로드 후 입력하고자 하는 학생의 졸업연도, 학번과 함께 취업구분, 직종(직무), 회사구분 코드 참고하여 입력 후 업로드

졸업년도	조사일자	학번	취업구분코드	회사명	취업일자	사업자번호	회사구분코드	부서명	직종(직무)코드
2021	2022-07-27		27	삼성전자	2021-04-01	124-81-00998	0002	서울/메모리사업부	116

※ 졸업생 학번의 경우 취업내역 페이지 왼쪽 하단 [엑셀 다운로드] 파일에서 당해 연도 전체 졸업생 정보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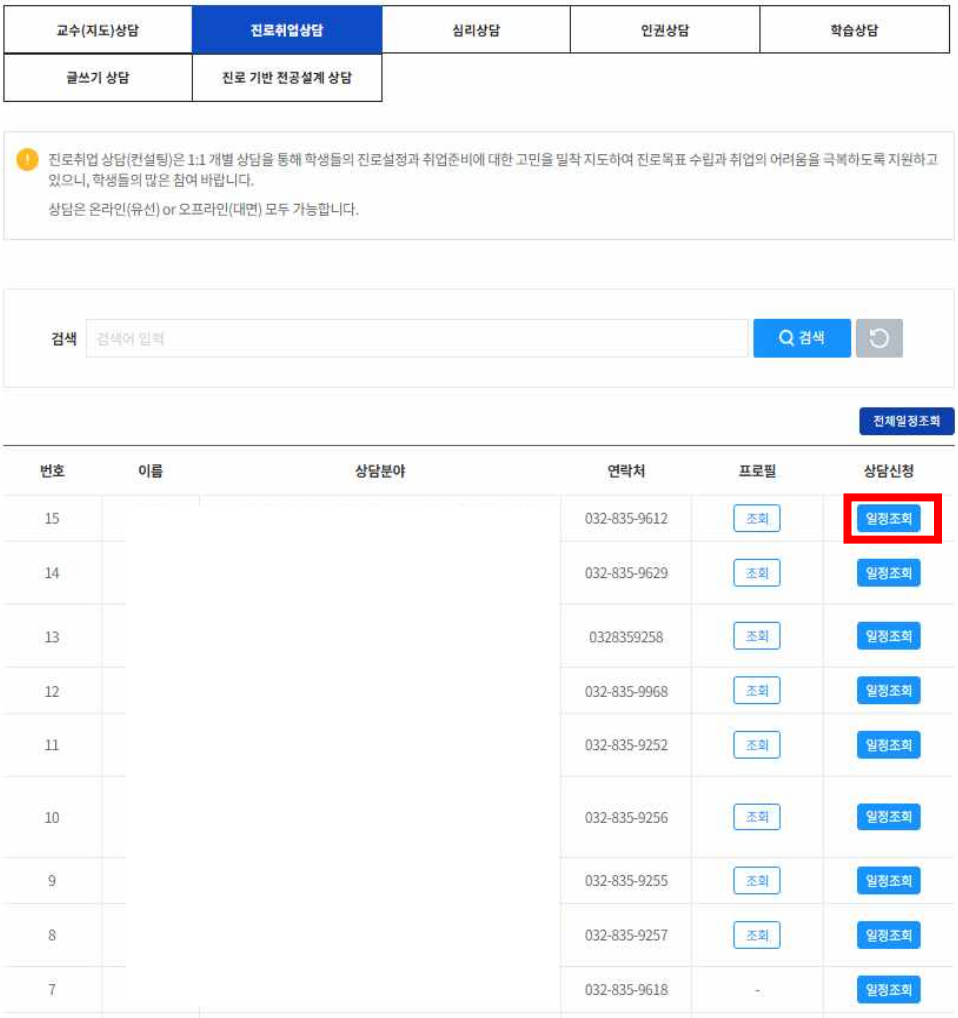
※ 일괄 등록 시 해당 학생의 졸업연도 및 소속학과(부) 달라도 한 번에 업로드 가능

다 (학생)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및 진로·취업 상담 신청 방법

■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방법(학생)

순서	그림
1	 ▪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 ▶ 학습관리 ▶ 교내비교과 클릭
2	 ▪ 프로그램유형 [진로, 취창업] 선택 후 검색 ▪ 수강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클릭 ▪ 세부정보 확인 후 오른쪽 하단 [신청] 버튼 클릭

■ 진로·취업 상담 신청 방법(학생)

순서	그림
1	 ▪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 ▶ 종합상담 ▶ 상담안내/신청 클릭
2	 ▪ 진로취업상담 [상담신청] 클릭
3	 ▪ 취업경력개발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진로취업지원관(컨설턴트) 상담분야 및 프로필 확인 후 선택하여 [일정조회] 클릭

- 일정 확인 후 예약가능한 시간대(파란색 화면) 클릭

상담신청

상담구분	진로취업상담		
이름		학번	
소속			
연락처		이메일	
상담일자	2024.12.19	상담시간	15:00~16:00
상담상태	예약가능		
상담자		상담장소	17호관 105호
* 상담유형	☐ 역량강화 ☐ 진로설정 ☐ 구직기술 ☐ 취업매칭 ☐ 창업 ☐ 기타		
* 상담신청 내용	상담신청 내용을 입력하세요. (1,000자 이내) (0/2,000 byte까지 입력 가능(띄어쓰기(0.5글자) 포함)		
상담신청 첨부파일	파일첨부	Max Size: 30.00 MB Limit Size: /30.00 MB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모든 식별정보(성명, 소속, 휴대폰, 이메일 등)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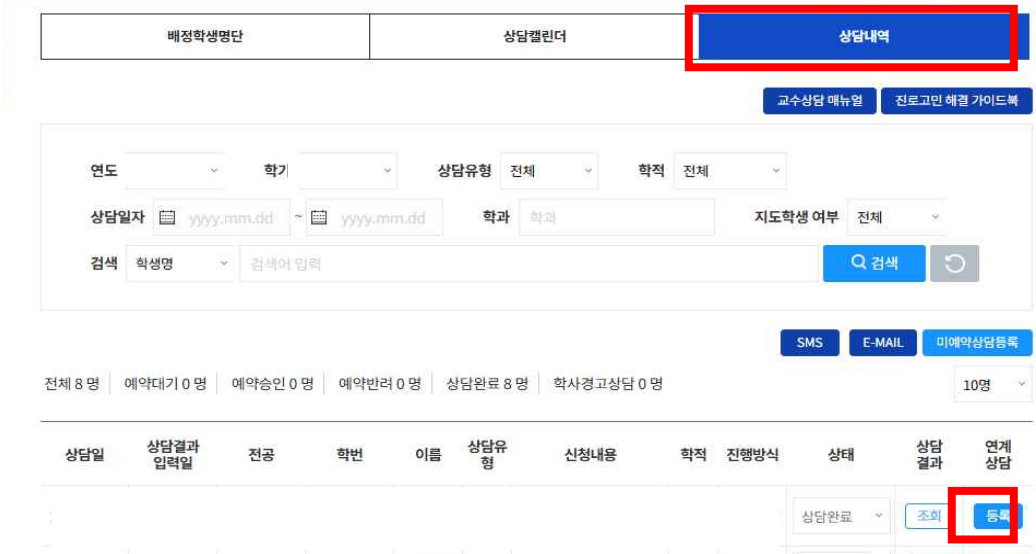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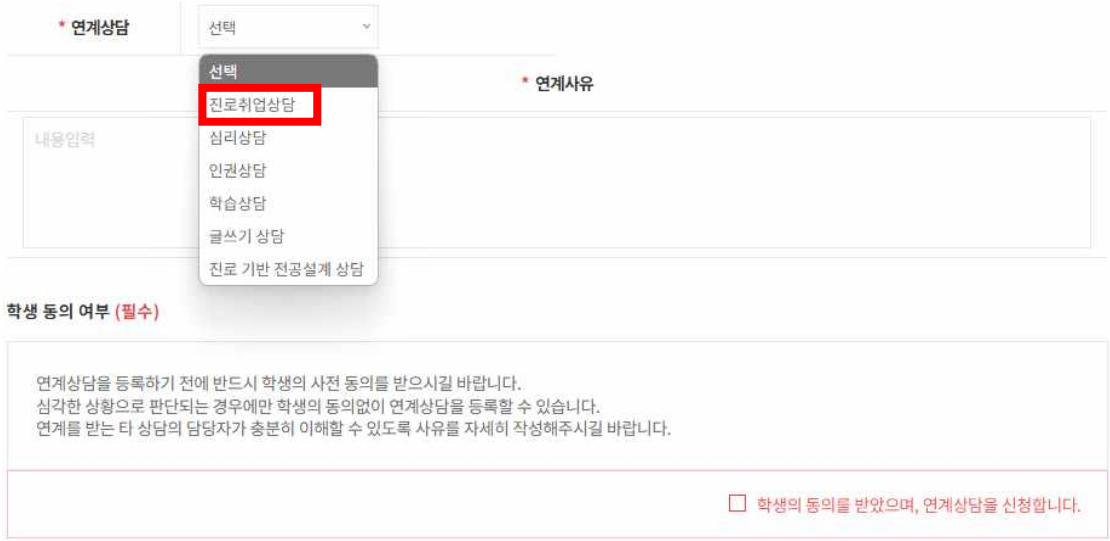
신청 시 기재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사업 진행을 위하여 수입 및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확인 및 대학평가관련 자료 요청 시 교내 관련부서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으며, 철저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경과(대학평가 관련 자료 요청 기간) 후 즉시 파기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셨고 이에 동의한다면 해당 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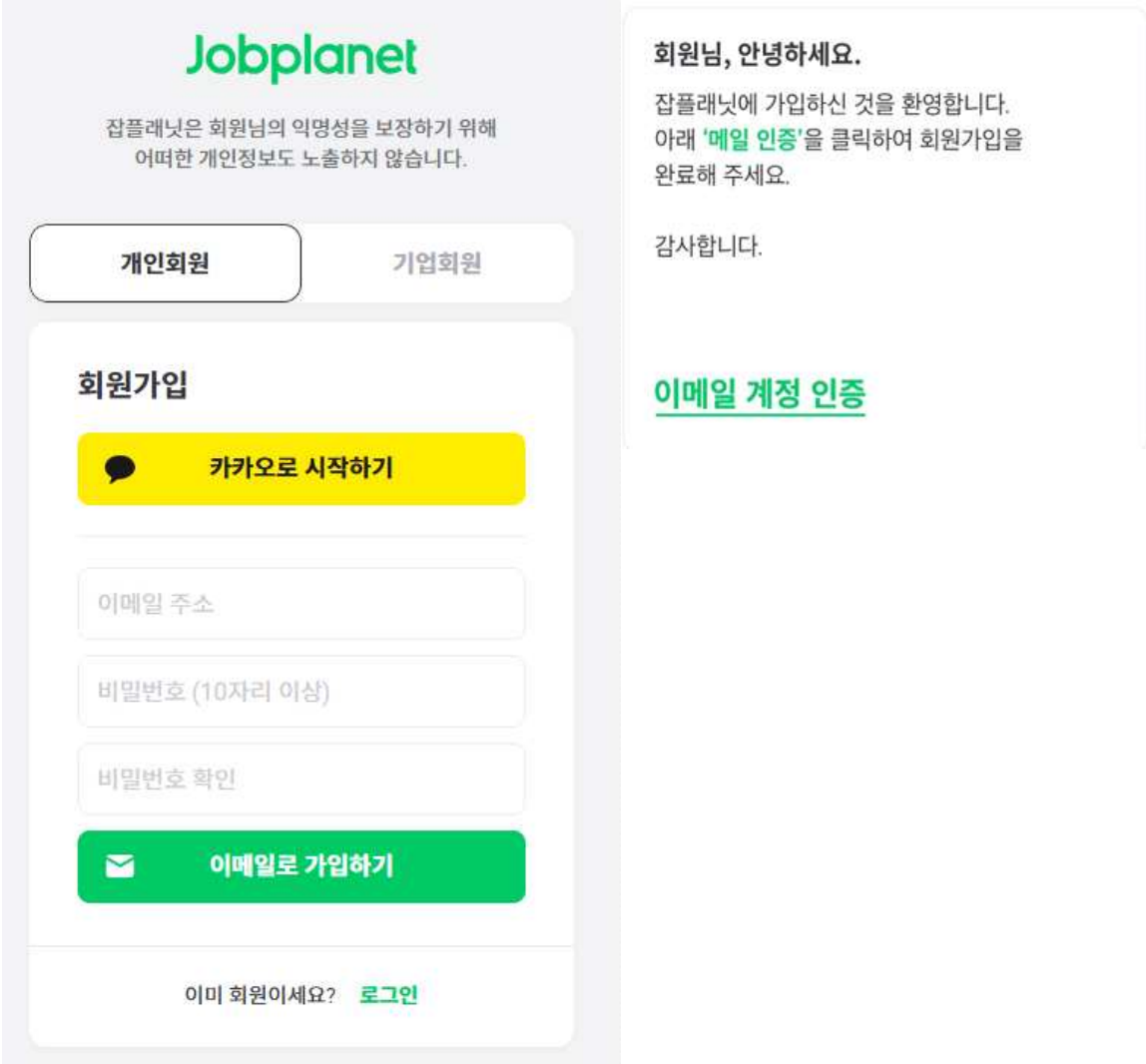
닫기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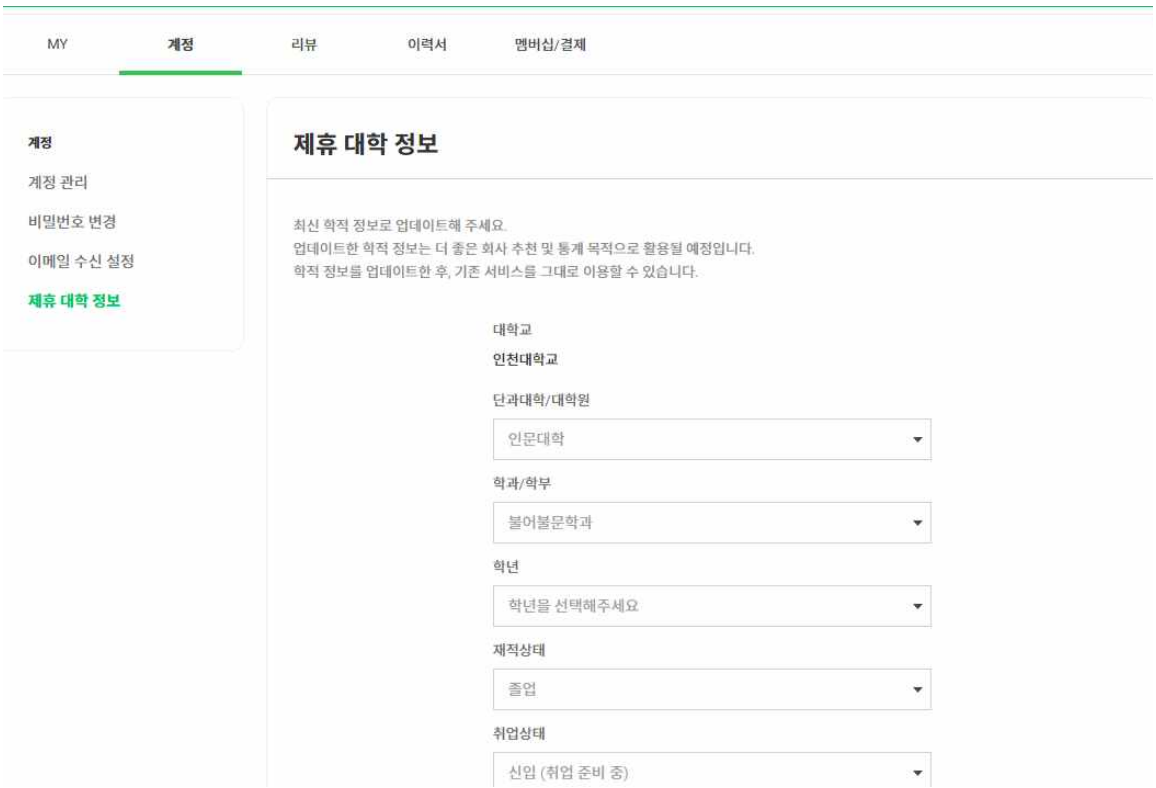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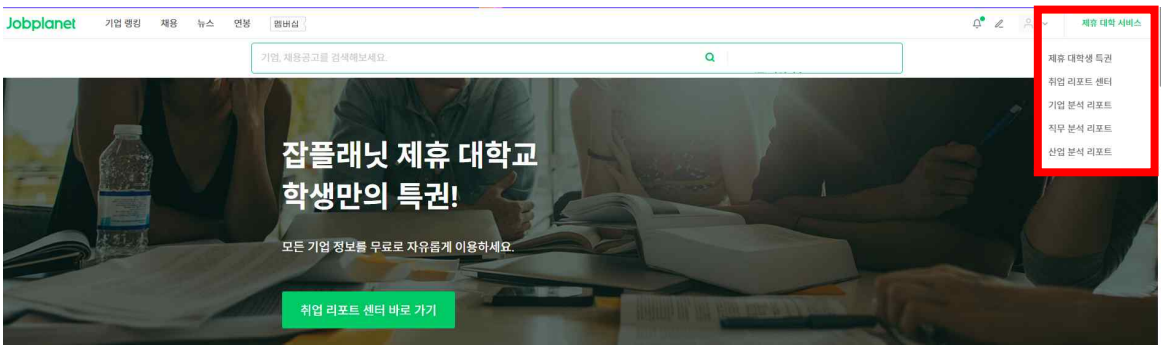
- 상담일자, 시간 확인하고 상담유형, 상담신청 내용 작성, 필요 시 파일 첨부 후(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등록

라 (교원)연계상담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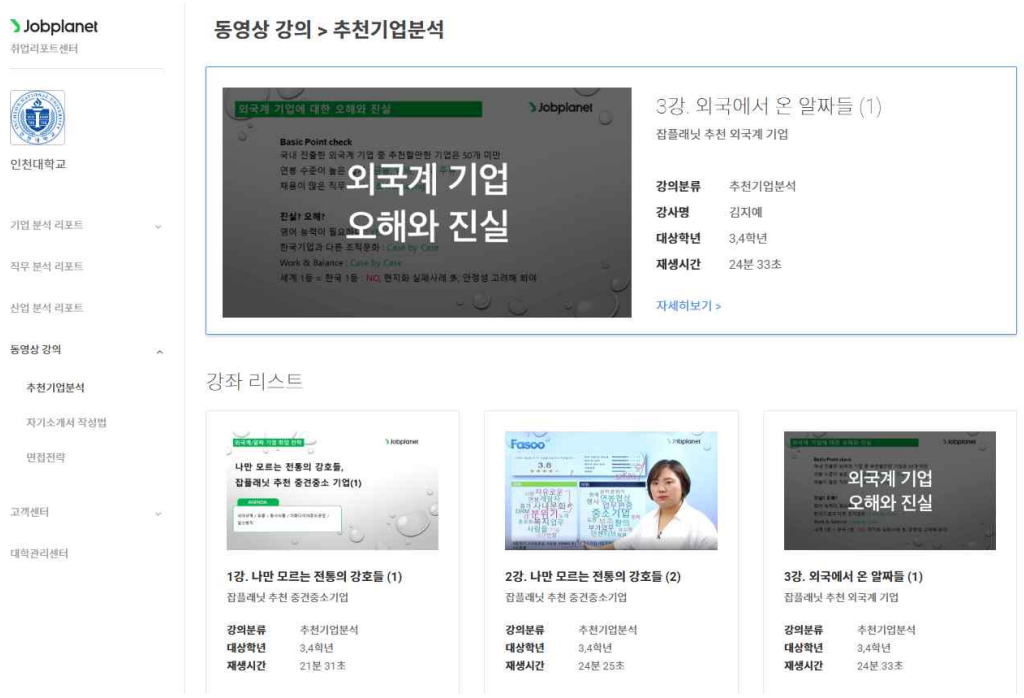
순서	그림
1	 ▪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 ▶ 종합상담 ▶ 상담안내/신청 클릭
2	 ▪ [상담내역] 탭 클릭 후 연계상담 신청하려는 학생을 찾아 연계상담 [등록] 클릭
3	 ▪ 학생 인적정보 확인 후 연계상담하려는 유형 선택, 하단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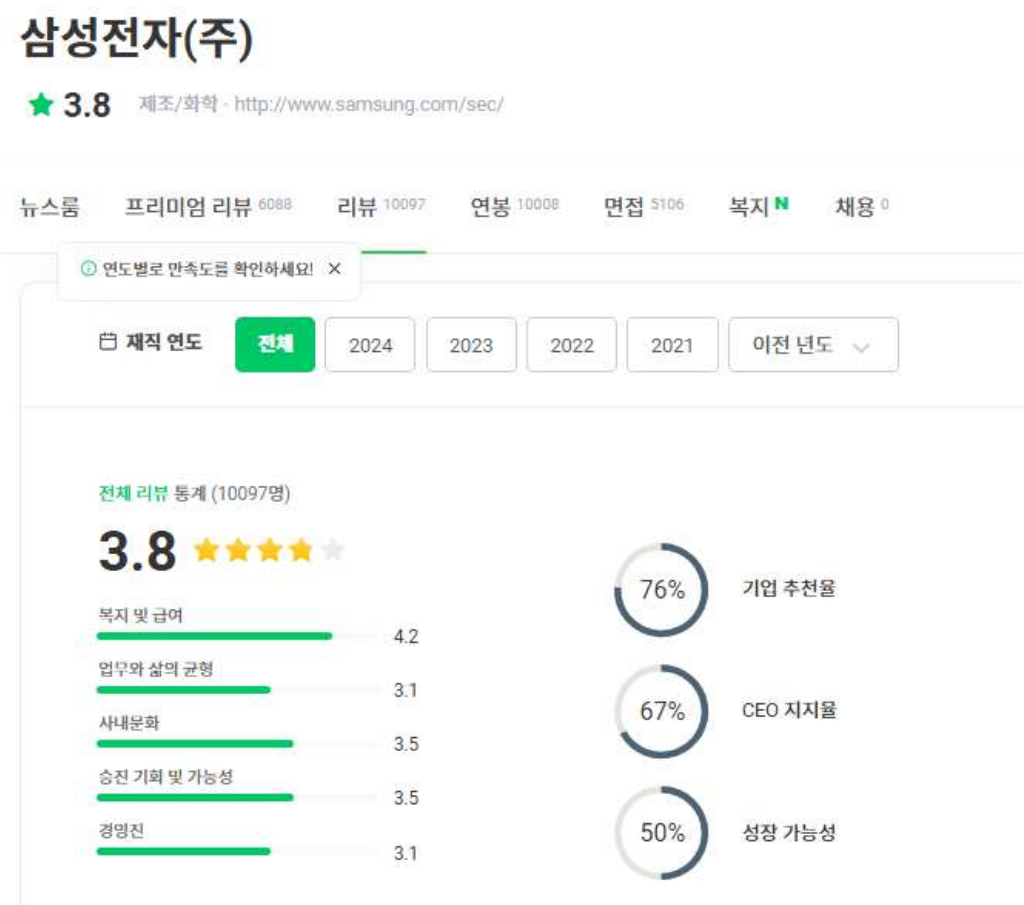
마 잡플래닛(*제휴대학) 이용 방법

순서	그림
1	 ▪ 학교 웹메일 계정(~@inu.ac.kr)으로 잡플래닛(https://www.jobplanet.co.kr/welcome/index)에 회원가입하기 ▪ '이메일 계정 인증'으로 제휴대학 구성원임을 인증하기
2	

<table>
<tr><td rowspan="2"></td><td> 
</td></tr>
<tr><td>▪ 잡플래닛 우측 상단 프로필 이미지 클릭
▪ 계정 - 제휴 대학 정보 - 소속 학과(부), 학년, 취업상태 등 정보 업데이트</td></tr>
<tr><td>제휴
대학
혜택</td><td> 

</td></tr>
</table>





- 잡플래닛 우측 상단 [제휴 대학 서비스] 클릭하여 내용 확인(취업리포트센터, 기업 분석/직무분석/산업분석 리포트)
- 원하는 기업 검색 후 리뷰, 연봉 면접 등 후기 검색 가능

02

취업성공수기

01. 생명과학전공

학과(부)	생명과학전공(대학원)	연도	2024년 하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 무	공정엔지니어링
졸업(예정)연월	24.02	입사(예정)연월	25.03

■ 스펙

영어점수	x	평균평점	4.27/4.3 (학부)
영어회화점수	OPIC IM1	기타 외국어점수	-
자격증	운전면허 2종 보통	취업 시 나이	만 26
인턴십	동대학원 학부연구생 (20.09-22.02)		
수상경험	x		
해외경험	x		
봉사활동	x		
동아리	x		
기타 특이사항	동대학원 석사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회사별 전형 유형에 따라 내용 수정, 표 추가 가능)

회사	직무	서류전형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정엔지니어링	O	O	O	O	O
한국전력공사	사무	O	O	O	O	O
파스퇴르연구소	인턴십	O	-	X	-	X
한미약품	연구원	X	-	-	-	X
티움바이오	연구원	X	-	-	-	X
인큐릭스	연구원	O	-	X	-	X
핀테라퓨틱스	연구원	X	-	-	-	X
유한양행	연구원	X	-	-	-	X
고려비엔피	연구원	X	-	-	-	X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보조	O	-	X	-	X
바이오노트	연구원	X	-	-	-	X
ICM	연구원	X	-	-	-	X

■ 취업 준비 과정

24년 2월까지 연구실에서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나서, 알바하고 여행 다니면서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격 취업 준비는 8월쯤부터 시작했어요. 이 시간이 후회되지 않으면서도 후회되는 시간입니다. 특히 바이오 시장은 현재 취업 문이 넓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쉬는 기간을 가지더라도, 최소한 영어 성적 정도는 병행해서 만드시거나, 최소한 영어 성적이 준비된 상태에서 쉬는 것을 추천해요.

석사 졸업 후 연구직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연구 내용 정리 및 관련 실험과 이론을 다시 공부하면서 준비했어요. 서류는 쓸 수 있는 곳은 무조건 지원했고, 자소서는 확실히 쓰면서 요령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서류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취업 준비하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오픈 카톡방에서 현직자 인터뷰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경험 정리 + 영어 성적 + 지원을 모두 동시에 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 성적 먼저 만들고, 경험 정리와 지원을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요. 저는 영어 성적을 미리 안 해놔서 많이 후회했고, 힘들기도 했어요.

■ 취업성공 원인 분석

실제로 취업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공인 영어 성적도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도 한 개 기업만 해서 합격 기업만 가지고 수기 작성하겠습니다 !!

1. 자소서를 솔직하게 작성했다.

- 잘 안 쓰이는 소재라고 생각되는 것도 그냥 제 소신껏 작성했어요.

2. 회사 인재상에 맞는 어필을 했다.

- 저는 면접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자소서에서 어필했던 부분이 회사 인재상에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자료와 인터뷰 등을 찾아보면서 인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자소서부터 쌓아가면 면접까지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3. 석사 학위

- 아무래도 학사 이상 지원 분야에서는 석사 학위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4. 직무와 경험의 연관성을 최대한 뽑아서 어필했다.

- 연구 직무가 아니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 스킬이나 다른 강점보다 해당 업무에서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어요

하지만, 취업은 운칠기삼이라고 하듯이, 저도 많은 운과 노력이 겹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러한 노력이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삼성 계열사는 자소서 항목이 온라인상에 많이 공유 되는 편입니다.

취미/특기 (40자), 존경 인물 (10자), 존경 이유 (40자)

Essay 1. 삼성 XX (회사명)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700자)

Essay 2.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작품 속 가상 인물도 가능) (1,500자)

Essay 3.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0자)

Essay 4.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동 가치(전문성, 책임감, 열정, 실행력, 공유와 협업)에 비추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례와 함께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 작성 요령은 앞에서 작성했던 성공 원인 분석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내 경험은 직무 역량이랑 엮어서 !!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기업의 인재상을 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소재가 석사 기간에 있었던 연구 활동에서 나와서 실험 경험 및 연구실 경험 위주로 작성했어요. 면접까지 생각하고, 자소서를 전략적으로 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직무에 관해 공부하고, 자소서를 미리미리 작성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채 시즌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 지원 회사별 시험(인적성, 논술 등) 후기

GSAT는 개인별로 준비 기간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처음 준비하는 거고, 서류 넣고 일주일 정도 공부하다가 서류 결과 나오고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하루에 10~13시간 정도 투자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은 사설 인터넷 강의도 괜찮아요. 커리큘럼이 딱 짜여있어서 단기간에 준비하기 좋았어요. 장기간 준비하신다면,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유튜브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서류 발표 ~ 시험까지 약 3주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1주 기본서 + 인터넷 강의

2주 기본서에 있는 모의고사 + 기본서 회독

3주 온라인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준비했고, 3주 차에는 온라인으로 모의고사 보면서 실제 시험 환경이랑 같은 환경을 경험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기본서로 해커스 파랑이 많이 추천하시는데, 아예 GSAT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저는 렛유인 단독기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해설이 좀 더 잘 되어있다고 느꼈어요!!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면접 전 내용 발설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해서, 대략적으로만 작성하겠습니다.

삼성은 원데이 면접으로 하루에 임원면접+직무면접을 모두 진행합니다.

면접장에 약 6시간 정도 있게 되는데,

인성검사

약식 GSAT

직무면접

임원면접

이 4가지 단계가 하루동안 모두 진행됩니다. 순서는 완전 랜덤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인성검사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예/아니오 혹은 Most/Least 형태로 답변하는 문제 구성이예요. 이 내용은 지사트 기본서에도 나와있어서 지삿 기본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식 gsat는 실사트의 절반의 양을 풀게 됩니다.

직무 면접은 주어진 문제를 미리 풀이 후, 면접 장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고, 이후 면접관님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입니다.

임원 면접은 자소서 기반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약점에 대한 질문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노승희 선생님과 함께 줌으로 1:1 모의 면접이 이루어졌어요.

모의 면접이 좋은 이유는, 실전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는 환경을 한번이라도 경험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 때문에 모의 면접 프로그램 참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연구직 면접만 하다가, 대기업 면접이 처음이어서 준비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어요. 모의 면접 보고, 승희 선생님이 주신 피드백, 특히 직무 이해도에 대한 피드백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직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경험을 직무랑 엮어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의 면접 후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벼락같이 취업 준비하던 저를 되돌아보면, 무엇이든지 미리 준비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쓰면서 확실히 늘어요 !! 서류는 다양하게 써보시길 바랄게요. 면접도 실전만큼 좋은 연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면접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여하여 경험을 얻어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짧지만 면접 스터디를 잠깐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서 태도나 말하는 방식 등 많이 배웠습니다. 동기부여가 부족하거나, 혼자 취업 준비하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취업 준비 스터디에 참여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요.

짧았던 시간이지만, 합격에 도움이 되었던 준비 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1. 경험 정리 (학교생활, 개인 생활, 기타 활동 등 다양한 활동 경험에 대해서) 및 내가 한 역할 + 그 역할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 문제 해결 방식 + 그로 인해 깨달은 것 => 이 흐름을 한 세트로 하여 여러 경험을 정리하고 자소서를 작성해 보세요.

2.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연구직이라면, 분야의 핏함이 중요할 것이고, 대기업이라면 영어 실력이나 조직 능력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어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고자하는 회사의 최신 이슈, 인재상, 비전, 직무에 대해 공부하면서 내가 가진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 강조해보세요.

학과(부)	생명과학전공	연도	2024년 상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바이오클론	직 무	학술마케팅부
졸업(예정)연월	2023.02	입사(예정)연월	2023.11

■ 스펙

영어점수	토익 975	평균평점	3.3
영어회화점수	토익 스피킹 160 AL	기타 외국어점수	
자격증	운전면허 1종보통	취업 시 나이	27
인턴십	-		
수상경험	-		
해외경험	-		
봉사활동	-		
동아리	-		
기타 특이사항	-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회사별 전형 유형에 따라 내용 수정, 표 추가 가능)

회사	직무	서류전형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한국백신	품질관리팀	O	-	O	-	X
파마리서치	품질보증(QA)	O	-	O	X	X
퓨처켐	해외사업부	O	-	O	O	X
셀트리온	컴플라이언스팀	O	-	O	X	X
바이오클론	관리마케팅	O	-	O	-	O

■ 취업 준비 과정

첫 목표는 제약회사의 QC/QA 직무에 취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사람들과 정보를 많이 접했고, 유경험자와 만날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자주 물어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을 숙지하고 가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 노력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면접을 보면서 받은 전반적인 느낌은 완전 신입보다 어느 정도 경험/경력이 있는 중고 신입을 원하는 기분이 강해서, 제 지원직무는 해외영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QC/QA 직무보다 범위가 더 넓고 지원할 기업도 많았지만, 그만큼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보는 느낌이 컸으며, 계속 불합격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공고에 지원을 했고, 1주일에 심하면 2~3번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면접 준비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합격 직전의 1차 면접에서 떨어진 한 곳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몇 주동안 쉬다가, 무역 영어 시험을 천천히 공부하면서 스펙 쌓기와 면접을 병행하던 와중에 한 면접에서 합격하면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 분석

저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당연히 영어입니다. 성적은 보통 이하였지만 굉장히 눈에 띄는 영어 어학성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면접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대학 4학년 전이라면 무조건, 반드시 본인만의 최고 무기이자 강점을 1개 이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학교 성적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이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 과정에서 참여한 활동은, 외국인과의 영어 스터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영어로 계속 대화하면서 어눌해 보이는 듯한 말투를 고치고 활동성과 적극성을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일부 면접에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 활동과 병행하면서 본인의 발전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른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은 당신이 공부를 못했어도,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자신감과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하고 간 것이 작용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를 많이 공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엑셀에 익숙하시다면 미래에 회사에서 근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서류에서 먼저 돋보이는 것은,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잘 나타나는 학교 성적과 어학 성적의 숫자입니다. 다음은 자격증이나 수상 실적이 되겠네요. 여기서 관심을 못 받았다면 자기소개서에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많은 도전과 활동에 참여하셨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소개서의 내용도 더 풍성해지고 역동성이 흘러넘치게 되며,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될 명분이 생깁니다.

채용분야는 저는 대기업/중견기업의 QA와 QC를 처음에 노렸는데, 적지 않은 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경쟁이 있어서 직무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응용해서 서술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넣으셨다면, 면접 전까지 확실하게 외우고 가셔야 합니다. 무조건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후에는 지원 직무를 해외영업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직무에 대한 경험이 중요했기 때문에 약간 무모했지만, 역시 자신감과 기업에 대한 지식을 자기소개서에 녹여주셔야 합니다.

■ 지원 회사별 시험(인적성, 논술 등) 후기

대기업, 중견기업에 지원하면서 AI 인적성 시험을 자주 봤습니다. AI가 평가하므로 합불의 기준이 매우 불명확해서, 비록 한번도 통과하지 못했지만, 자기소개나 여러 의견표출에선 외우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양한 게임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숙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식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만약 본인의 선택이나 행동에 기만이나 거짓이 첨가되어 있다면 AI가 파악할 것이므로, 솔직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영어 문장 번역 시험이나 회사 내 여러 상황과 관련된 대처 방안 논술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로 하는 회사의 합격/불합격 후기를 최대한 많이 숙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어떤 평가를 실시할지 미리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제가 면접 자체를 30번 넘게 봤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기억납니다. 애석하게도 대부분은 경험이 있는 중고신입을 원하는 인상이었지만, 주로 본인이 살아온 인생과 지원한 해당 기업, 그리고 직무에 대해 항상, 무조건 물어봅니다.

면접에서 강한 인상을 주려면, 열심히 외운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보단, 면접 합격자들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많이 참고하면서 말하는 방식, 표정과 눈의 초점,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특히 1대 다 면접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다대 다 면접일 때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 경우, 내용은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관들 모두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을 모두 꼼꼼히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미리 유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분위기는 당연히 모두 자연스럽게 하려 노력하지만, 약간 경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도는 자신감이 1순위지만, 면접관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답변의 내용은 직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 이를 회사와 어떻게 연결시킬지 조사와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저는 이 부분을 잘 못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썼다면 빠르게 취업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주로 교내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습니다. 취업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스러웠을 때 목표 정하기와 취업고민상담소와 제가 목표로 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채용설명회도 참여했으며 제일 큰 도움은 현직자의 수업이었습니다. 현직자가 들려주는 취업 과정과 회사 내에서의 생활 등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고, 목표를 잡고 계속 도전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주 듣지 못했지만, 저는 후배들한테 면접 관련 수업을 자주 들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면접은 자주 하면서 경험이 쌓일수록 잘하게 되는데, 그 방식을 처음에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성공하기까지는 항상 실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기 때문에 단번에 최종합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점 관리를 못해서 보통 이하였지만, 영어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포기하고 쉬는 사람들처럼 저도 내려놓을까 고민한 적도 많았지만, 험난한 과정도 나름의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묵묵히 도전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취업에 성공하며 해피엔딩이었지만, 더 길어졌다면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취업준비 기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기업들을 정한 다음에 단기간에 철저히 준비하고, 빠르게 최종합격할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 합니다. 공백이 길어질수록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오며, 약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넘길 수 있는 융통성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답변을 잘 못해도 강한 자신감은 내 자신을 빛나게 만들기 때문에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결국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 합격하게 됩니다.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을 지속하다 보면 행운은 결국 찾아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과(부)	생명과학(대학원)	연도	2020년 하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신풍제약	직 무	합성연구 (R&D)
졸업(예정)연월	2021.02.19	입사년월	2020.11.09

■ 스펙

인턴십	
수상경험	
해외경험	
봉사활동	
동아리	
기타 특이사항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회사별 전형 유형에 따라 내용 수정, 표 추가 가능)

회사	직무	서류전형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신풍제약	합성연구(R&D)	O	O	O	O	O
SK바이오팜	합성연구(R&D)	O	X	X	X	X
SK케미칼	합성연구(R&D)	O	X	X	X	X
레고켐바이오	합성연구(R&D)	O	O	O	O	O
한미제약	합성연구(R&D)	O	O	X	X	X
유한양행	합성연구(R&D)	O	O			

■ 취업 준비 과정

이 이야기는 단순히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직으로 취업한 일로 끝낼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인천대에서 7년의 시간동안 제가 가졌던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제가 인천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약대 편입이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군 휴학이나 기타 이유들을 제외하더라도 본과에서도 절반이 도전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지만 빠른 포기를 했습니다. 반수나 편입을 고려하던 차에 약대는 너무도 큰 산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동기 중에는 한 번에 붙은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 3~4년정도 걸려 2명이 붙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건데, 약대 도전을 안 해본 것이 현 시점에서 많이 후회가 됩니다. 남들보다 늦게 군입대하였고 시간이 흘려 국방의 의무까지 마치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철이라도 들었는지,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서 연구원 혹은 제약회사의 QC,QA를 가는 것이 학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QC,QA를 가고자 스펙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학과에서 회사(강스템바이오)와 연결하여 방문도 해보고, 가천대에 가서 관련 세미나도 듣곤 했습니다. 이런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자는 마음으로 무작정 도전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복수전공 또한 좋은 스펙업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고, 3학년 1학기에 화학과 복수전공을 신청했습니다.

이 결정이 저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복수전공 수업으로 유기화학실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수강하는 내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종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2편씩 쓰는 레포트가 즐거웠고 조사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결국 대학원 진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석사생은 자신의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선망받는 진로일수 있겠으나, 석사 연구원이라고 해서 마냥 연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실험이 실패하면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고 학부생들 실험조교해야지, 레포트 채점해야지, 시험감독해야지, 학회 참여도 해야지, 포스터나 논문도 제출해야지,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생들에게 심사숙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부 때 딱히 취업할 곳 없다고 생각해서 도피처로 석사를 선택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안됩니다. 석사도 자기 연구를 하는 곳이고, 스스로 해쳐나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오래 못갑니다. 나는 정말 연구가 하고 싶고, 열정에 가득 찼다면 오시길 간곡히 조언합니다.

다시 대학원 이야기로 돌아오면, 대학원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학원의 요소는 3가지입니다. 1. 대학 2. 교수 3. 실험실입니다. 첫 번째로 대학요소는 다른말로 네임벨류입니다. 석사나 박사를 진학하게 되면 최종학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할 때 학부를 더 많이 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서는 대학의 이름은 무시못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디가서 인천대 대학원 다닌다고 하면 몇몇 어른분들은 아직도 제물포에서 다니시는 줄 알고 계십니다. 이만큼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건 힘듭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공기업이 아닌 이상 블라인드 면접인 기업은 거의 없고 대기업도 스카이 미만은 서류통과 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스카이급 대학원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스카이급 대학원 등록금이 한학기에 800은 가뿐히 넘어가기 때문에 각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천대 대학원은 자대에서 진학시 등록금 지원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수입니다. 홈페이지나 사이트가 있으면 연구실적이나 관련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이분은 어떤 연구를 하시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길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실입니다. 석사생활도 사회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마찰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적인 스트레스보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심하기 때문에, 실험실 분위기가 어떠한지도 석사생활을 보내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대학원을 진학하길 희망한다면, 한번쯤 희망하는 실험실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할려고 교수님을 만나뵙는 것을 컨텍이라고 하는데 4학년 무렵에 하지 마시고, 3학년때부터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석사 2년? 저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눈감았다 뜨니까 졸업논문 쓰고 있었습니다. 석사 마지막 학기는 취업준비하고 졸업논문쓰느라 바쁘기 때문에 실상 1년 6개월 안에 연구 결과를 내야합니다. 그러니 얼른 컨텍하고 주제 잡고 실험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저의 취업준비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석사생활을 보내면서 내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실험실의 특성상 논문과 관련 특허를 낼 수 없었기에, 실험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생각들이 취업으로 이어질까 의문이 들었지만, 선택과 집중의 행동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 같습니다.

여름방학과 동시에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에 가입하여 보이는 대로 서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제연구, 제형, 품질관리, 합성연구, 공정개발. 코로나의 여파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어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붙으면 간다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자소서를 쓰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7년의 세월동안 얼마나 보잘 것 없이 살았는지 후회했습니다. 2달 동안 약 30개의 자소서를 쓰면서 떨어지기를 반복, 원하는 분야에 회사에 2곳에 최종합격했고, 골라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 분석

[자기소개서 분석]

저는 자기소개서가 취업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설이라고 불리는 자기소개서. 저 또한 초기에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짜깁기해서 자소서를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소서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최대한 진솔하게 작성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읽었을 때 '나라는 사람을 궁금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자소서를 썼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소서 첫문장과 주제를 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첫인상은 3초면 결정 난다'는 말처럼 자기소개서도 첫 문장에서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두괄식으로 먼저 자신의 생각을 펼친 후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기소개서 구조라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고, 자유양식으로 제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을 제시하는 경우, 문항에 인재상과 기업의 추구하는 목표가 함축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이나 학교의 성적, 가정환경 같은 항목이 포함되었다면 보수적인 회사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서술함에 있어서 성장과정이나 우수한 성적 등의 내용은 되도록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위에 언급한 내용이 진부하다고 느꼈고, 개인의 이점보다 집단을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물론 우수한 인재를 원하지만 기존의 집단과 융합을 잘 할 수 있고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직원을 뽑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취업준비 전에는 너무도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입사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기본에 충실히]

제가 취업준비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양재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취업경력박람회를 계기로 회사분석을 했습니다. 대학원 생활이 바빴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를 1주에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회사분석은 자기소개서에 양질의 내용을 쓰게 도와줄 뿐 아니라 취업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취업에 가장 도움된 스펙은 어학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진학 전에 저의 토익 성적은 750에 불과했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는 취업 잘할려면 무조건 토익 고득점이 요구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을 공감했지만 그당시에는 반신반의하면서 토익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석사 연구원의 경우 850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동아st의 경우 토익성적이 900이상이 되지 않으면 자소서를 읽지 않을 정도로 어학능력의 비중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제2외국어나 회화 능력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더러 존재했습니다.

연구원은 연구만 잘하고 논문만 잘쓰면 취업 잘된다는 주변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021년 졸업하는 석사생들에 비해 적어도 특출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의 성실함 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신풍제약]

저는 신풍제약에서 합성연구팀에 지원했습니다. 합성연구는 API/신약/유기합성 이렇게 3가지가 함께 포함된 분야였습니다. 신풍제약 서류는 총 3가지 문항이었습니다. 도전한 경험과, 도전으로 얻은 것,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였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항목에 도전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극복한 사례를 기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석사동안 실험한 것에 대해 풀어서 썼고,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지원동기로는 회사에 대한 기업공부를 통해 서술하였고 입사 후, 1년후, 5년후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저는 SK 바이오팜, 케미칼 모두 의약합성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5개 항목이였으며 시련과 극복과정, 소속감, 한계를 극복한 사례, 독창성, 지원동기 및 준비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소서 항목이 난해하고 어려워서 작성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질문 1개가 여러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드시 그 문장순서대로 답변을 차례대로 작성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기 위해 문장에 색칠을 하면서 양식을 맞춰 작성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저는 의약화학분야 연구원에 지원했습니다. 자소서 항목으로는 연구이력(지도교수 작성란 존재), 장단점 및 생활 신조, 지원동기 및 희망 업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소서 항목으로는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석사기간동안 연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라는 항목이 존재하여 포트폴리오를 PPT로 별도로 만들어 제출 하였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의 경우 1차 서류는 적합 부적합 여부만을 따지기 때문에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AI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AI면접을 진행하면서 1차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면접을 진행하면서 서류를 같이 보게 됩니다.

[유한양행]

저는 유한양행의 의약합성 연구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총 5개였으며, 블라인드 채용은 아니었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본인이 적합한 이유,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계획, 유일한 정신, 연구경험 등이 요구 되었습니다. 취업설명회에서 설명을 듣고 1년 정도 회사분석으로 했음에도 서류통과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였습니다.

■ 지원 회사별 시험(인적성, 논술 등) 후기

[신풍제약,한미약품]

저는 AI면접을 2번 진행했습니다. AI면접의 경우 미리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주었으며, 실제 시험과 연습은 문제 난이도나 종류가 상이하므로 유튜브나 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고 가길 추천드립니다. AI면접은 성향검사/게임/AI면접/심층 AI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향 검사는 MBTI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있으나, 최대한 고민 없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은 고득점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수검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면접의 경우 생각시간 20초 발언시간 60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미리 예상 질문을 연습하거나 간단한 단어들을 적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연상이 되게 했습니다. 심층질문의 경우 앞의 검사들을 토대로 AI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저의 경우 2번의 AI면접에서 모두 사람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화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레고켐 바이오]

저는 1차 면접 이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전에 위치했기 때문에, 코로나를 의식해서인지 화상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화상면접 주제는 제가 일전에 제출한 포트폴리오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는 zoom으로 15분가량 질문했고, 연구결과와 연구를 스스로 설계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인성이나 압박 질문은 따로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임원면접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1차 면접 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합격통지를 해줬습니다.

[신풍제약]

1차 면접 이후,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1차 면접은 인덕원에 있는 연구소에서 진행했습니다. 따로 PPT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소서의 내용부터 회사의 연혁, 파이프라인, 각종 기초 화학,생물 질문들을 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준비들은 전부 면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면접 내용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 받아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원면접은 본사에서 진행했습니다. 대표이사 세분이서 압박면접을 진행하셨습니다. 면접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면접을 끝마쳤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말을 잘해서 뽑혔다고 나중에 담당자님께서 넌지시 말씀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취업하기위해 미친 듯이 연습했기에 얻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위해 거울보고 말하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압박면접을 연습하기도 하고 녹음해서 제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기회는 준비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다."

회사분석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겠지만, 직접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본 시간만 따지자면 약 5개월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취업해야겠다고 막연한 목표를 잡았지만 돌이켜보면 행운과 우연의 연속으로 취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너가 그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취업된 것"이라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했기에 기회가 왔을 때 쟁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업문턱은 높고, 코로나 시대에 시장이 얼어붙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취업에 성공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비관하지 말고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여 모두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학우여러분 모두 취뽀 하시길 기원합니다.

02. 분자의생명전공

학과(부)	분자의생명전공	연도	2024년 상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직 무	차세대 동물모델 개발
졸업(예정)연월	2024.02	입사(예정)연월	2024.07

■ 스펙

영어점수	토익 730	평균평점	학부 3.96 석사 4.43
영어회화점수	토익스피킹 IM2	기타 외국어점수	X
자격증	X	취업 시 나이	27
부/복수/연계전공	X		
인턴십	X		
수상경험	10/2022 Best Poster Award, 1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tural Sciences 02/2022 생화학분자생물학회장상, 생화학분자생물학회 05/2021 DAEWOONG Best Research Award, International Conference 2021 (KSBMB)		
해외경험	X		
봉사활동	유기견보호소 봉사활동 (동아리)		
동아리	느을사랑		
기타 특이사항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글로벌 멘토링 참여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

회사	직무	서류전형 및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차세대 동물모델 개발	O	O	없음	O
JW홀딩스 (JW바이오사이언스)	진단 연구	O	X	X	X
진에딧코리아	유전자전달체스크리닝	O	X	X	X
한미약품	바이오신약개발	X	X	X	X

■ 취업 준비 과정

저는 인천대학교 생명과학과 분자의생명전공을 졸업하고, 단백질공학실험실에서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5개월 정도의 취업 준비 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소에 취업하였습니다.

저는 학부생활을 할 때부터 진로를 연구원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그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 이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연구원을 꿈꾸었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부터 실험실에 들어가 학부연구생 생활을 시작해 총 3년간 연구실 생활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세 개의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학부 때는 주로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식을 흡수하면서 지식을 쌓아갔다면, 연구실에서는 스스로 논문을 찾고, 실험을 설계하고 직접 실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운 실험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이를 발표할 때의 성취감이 연구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vector engineering을 통해 세포 내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으며, 관련된 회사에 취업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석사 과정 중에 WISET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멘토링에 참여하였습니다.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한국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장비들을 접하였고, 글로벌 회사의 조직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직에 계시는 멘토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석사 졸업 후에 늦게 영어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급함과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또한 채용공고를 보면 사람은 적게 뽑고, 제가 했던 연구와 같은 연구를 하는 회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취업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중 '바이오 취업 정보방'을 이용하여 취업정보를 얻었습니다. 바이오 취업정보방은 취준생들과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곳에는 채용공고도 올라오고, 현직자분들게 질문도 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또한 합격자 분들의 스펙공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소서 첨삭은 학교 취업경력개발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 분석

저는 석사 학위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석사 과정 중 어떤 실험과 장비 경험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부연구생 또는 석사를 할 때 최대한 다양한 실험과 장비를 다뤄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지원하는 회사에서 내가 경험했던 실험기술을 사용한다면, 또는 앞으로 시도하려고 한다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취준생 입장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채용공고에 있는 우대사항을 보고 자소서에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연관시켜 작성해야합니다. 저의 취업 성공 원인도 지원한 회사에서 제가 했던 것과 비슷한 연구를 시도 중에 있었고, 마침 저의 cloning 기술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류단계에서 AI 인적성검사를 함께 보고 합/불을 결정합니다. 구역검/신역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잡다'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똑같은 환경으로 연습을 해볼 수 있으며, 신역검은 본인의 성향 분석결과도 알려줍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어떤 유형의 역검 검사를 하는지 확인하고, 연습을 미리 해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 맞지 않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고 연습해 보는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연구소에 석사후연구원으로 취업을 하였고, 학교 연구실과 비슷한 환경입니다. 논문을 읽고, 논의를 통해 실험 설계 방향을 잡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주로 cloning, westen blot, immunoprecipitation 등 기본적인 분자생물학적 실험들과 mouse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진행합니다.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서류 합격을 했던 회사 위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다양한 채용분야가 있었지만 저는 차세대 동물모델 개발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석사후연구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지원 시 모집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10개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지원동기, 성격의 장단점 및 특기, 본인의 사회성과 적극성 (실제 사례 중심), 역경극복사례 및 이를 통해 느낀점, 계획하고 있는 장래의 모습과 이를 위한 노력, 기타 특이사항, 모집분야 직무에 대해 보유한 지식, 직무에 대한 본인의 적합성 (경력 및 역량 중심), 직무와 관련된 경력/교육/기타 사례, 임용시 직무 수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의 답변 방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본인의 사회성과 적극성은 기업 멘토링에 참여하여 대표멘티를 맡아 활동했던 경험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때 수행했던 역할과 다른 멘티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었는지 작성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에는 저의 연구 주제 3가지를 간단히 요약해 작성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력/교육/기타 사례에는 학술 활동 및 포스터 발표 경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보았던 장비들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2. JW 홀딩스 (JW 바이오사이언스) : 진단연구 분야에 지원하였으며, 진단 키트 개발 및 인허가, 임상연구 등을 하는 직무였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3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각 항목당 500자 이내로 작성해야했습니다. 최근에 본인이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 1가지에 대해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기 (당시 어려웠던 점, 본인 행동, 열정의 동기, 느낀점), 조직 생활과 지원 직무 수행을 위한 본인의 강점, JW에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입사 후 기대하는 본인의 역할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항에는 제가 학부연구생 때 처음으로 맡았던 프로젝트에 관해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는 연구원에게 필요한 자질인 분석력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분석력을 어떻게 배웠고, 어디에 활용하였는지 등 저의 경험을 함께 녹여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는 JW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연구분야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3. 진에딧 코리아 : 유자 전달체 스크리닝 직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유형식 자기소개서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적고, 연구분야를 요약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포트폴리오를 첨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수상내역, 논문, 특허 등 기본적인 경력 사항과 논문 Figure를 첨부하여 연구 내용을 요약 작성하였습니다.

■ 지원 회사별 시험(인적성, 논술 등) 후기

인적성은 회사별로 나누기보다는 구역검/신역검으로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유형의 역검을 보는지는 역검 시작 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면 신역검, 보라색이면 구역검입니다. 시험 전에 미리 확인하고, 연습 후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잡다'에서 제공하는 연습과 거의 비슷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질문들만 따로 정리해서 답변을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의 경우 유튜브에 꿀팁이 잘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AI 역검의 경우 얼마나 침착하게 검사를 진행하는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신역검의 경우 본인에게 어울리는 직무가 검사결과에 순위별로 나오게 되는데,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일치하게 나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역검 (초록색) : 성향파악, 전략게임, 영상면접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순서대로 검사

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쉬는시간이 필요하면 멈출 수 있기때문에 구역검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신역검들은 '잡다'에서 제공하는 질문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 않을게요!

- 구역검 (보라색) : 자기소개 – 기본질문 - 성향파악 (170문항) - 상황대처 – 보상선호 - 전략게임 - 심층대화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기소개와 기본질문 (성격 장단점, 직무 지원동기)은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저의 구역검 경험은 한 번이며, 상황대처와 심층대화에 나왔던 질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대처는 직접 상황극을 하듯 카메라를 보며 연기해야 합니다.

<상황대처>
1. 3년간 우리 제품을 이용했던 고객사가 다른 회사 제품을 이용한다며 계약해지 요청했을 때 고객사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2. 취업을 했는데 원했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배정되었고 이 직무에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때 원했던 직무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상사에게 어떻게 말하고 옮길 것인가?

<심층질문>
1.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2. 프로젝트를 진행 중 팀원과 갈등이 생겼던 경험이 있는가, 그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3. 프로젝트 중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4. 당신은 본인의 일을 미루고 다른사람의 일을 먼저도와주는 사람입니까? -> 답: 아니요
   4-1. 어떤 상황에서 다른사람의 일을 먼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4-2. 다른사람의 일을 먼저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5. 본인은 계획적인 사람입니까 ->답: 예
   5-1.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성과를 얻은 적인 있나
   5-2. 계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1차 면접만 있으며, 1대 3면접이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2분 자기소개 후 자기소개서에 적혀있는 저의 연구에 관해 여쭤보셨습니다. 이 기술은 어떤 요소를 사용하였는지 등 주로 연구 역량에 관한 질문이었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2. JW 홀딩스 (JW 바이오사이언스) : 화상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1대 3면접이었습니다. 면접관 한분만 질문을 하셨으며, 10분 내로 소요되었습니다. 지원 동기를 물어보시고, 석사과정 중 주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면접이 종료되었습니다. 제 연구가 지원 직무와 많이 달랐기 때문인지 많은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3. 진에딧 코리아 : 면접은 총 세타임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은 포트폴리오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영어로 질의응답을 2-3번 정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니어 직원분들과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니어 직원분들과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제가 회사 생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렵지 않았으며, 회사에 대해 많이 공부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서류 탈락이 계속되면서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학교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준비를 위해 취업경력개발원의 진로 취업 상담을 이용하였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을 선택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대면상담이 아닌 줌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으니 각각의 질문에 어떤 방향으로 답을 작성해야 하는지 감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을 작성할 때, 단점은 바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어떤 활동 경험을 언급할 때는 '이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고, 어디에 활용했다' 라는 것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는 첨삭을 받았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큰 틀을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상담에서는 모의면접을 해보면서 제가 면접을 볼 때 어떤 태도와 목소리, 표정을 짓는지 섬세히 봐주시기 때문에 고쳐야할 점을 한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승희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24년 졸업생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면서 '신입사원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시는 승희쌤 덕분에 취준 생활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컨설팅 전문가와 1:1 자소서 첨삭도 진행하고, 모의면접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재직 중인 학교 선배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알게 되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졸업생 오픈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승희쌤이 취준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와 추천채용 및 힘찬 응원을 해주시니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나는 왜 취업이 안 되지', '언제까지 취업 준비를 해야 하지', '공백이 너무 길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서류는 계속해서 탈락하고 시간은 길어지면서 조급함이 더해져 마음이 더욱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모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지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내가 못나서 탈락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찾기보단 내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어필할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아보세요! 자기소개서 첨삭과 모의 면접은 취업경력개발원에 상담 신청을 하면 언제든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영어는 고고익선이다!! 저는 서류 탈락이 많았던 원인이 영어 성적 때문이었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다들 영어 성적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요즘 스피킹을 보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서 토익뿐만 아니라 오픽이나 토익스피킹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취뽀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학과(부)	분자의생명전공	연도	2023년 상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이연제약	직 무	QC
졸업(예정)연월	2023.08.	입사(예정)연월	2023.07

■ 스펙

영어점수	880	평균평점	4.0
영어회화점수	오픽IH	기타 외국어점수	-
자격증	컴활	취업 시 나이	만23
인턴십	제약회사 인턴 2회		
수상경험	(제약산업 무관) 2회		
해외경험	HPLC 분석교육, Validation교육, GMP교육(2회)		
봉사활동	어학봉사 10시간		
동아리	학생회		
기타 특이사항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회사별 전형 유형에 따라 내용 수정, 표 추가 가능)

회사	직무	서류전형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이연제약	QC	O	O	O	O	O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정개발	O	X	X	X	X
일성신약	QA	O	O	O	O	O
파마리서치	QA	O	O	O	O	O
녹십자 채용인턴	QA	O	O	O	O	O

■ 취업 준비 과정

인성관련 활동, 학점, 어학이나 자격증 등등 스펙 준비와 더불어
직무 경험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 취업경력개발원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입사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서 다듬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준비방법은 하단에 채용 전형별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 분석

많이 지원하고 많이 떨어져 보면서 다듬었다. 직무 경험, 대외활동, 인성 경험 有,
취업경력개발원 비교과 프로그램 다수 참여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서류-

준비 방법:

1. **경험 정리** –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스킬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자소서 작성의 시작입니다. 자소서의 내용을 크게 인성/직무/로열티 등으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자신의 경험이 이러한 대분류 중 어디에 해당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춰서 어필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쉽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싶은 말이 아닌, 인사담당자가 원하는 말을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2. **자소설 닷컴 활용** – 자소설 닷컴은 합격 자소서, 월일별 채용 공고, 지원인원 및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천대학교 취업경력개발원 활용** – 취경원에서 '교내 비교과 신청' 탭에 들어가면 자소서 쓰는법, 합격률 높이는 법, 공고 찾는 법 등 다양한 강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특히 취업컨설턴트가 강사님으로 오는 프로그램과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4. **이연제약 자소서 합격 Tip –** 요새 직무경험이 있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있듯이 이연제약도 그런 경향이 큽니다. 자신이 가진 직무경험중 가장 실무와 유사한 것을 골라 자소서에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 이력서에도 녹여내는 것이 합격 팁입니다. (이연제약의 경우 수시채용/ 최종합격 1 명/ 직무 + 인성 두가지 모두 어필하였음.)

합격률 Tip:

1. **무조건 많이 써서 뿌리기** - 많이 지원할수록 합격률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소설 닷컴의 합격 자소서들을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자소서 작성 방법에 어느정도 정형화된 형식이 있습니다. 다수의 형식 중, 내 경험을 보기쉽게 정리하기 쉬운 형식을 채택해서 많이 뿌리고 떨어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방식을 바꿔도 보고, 효과 있는 전략과 없는 전략을 구별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는 위 표에 기재한 기업 말고도 기타 기업들 및 대기업 2곳정도 최종면접까지 간 경험이 있고, 현재 이직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 전략이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2. **블라인드, 잡플래닛, 사람인 리뷰 모니터링 –**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수시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뽑을 이유가 있을 때' 사람을 뽑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입이 퇴사해서, 경력들이 퇴사해서, 회사내 갈등이 있어서, 사업 확장에 필요한 스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특정 부서에 인력 충원이 필요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기업 리뷰를 통해 확인하고, 자신은 위험이 없고 메리트 있는 지원자라는 것을 어필 방향성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고지식해서 신입들이 자꾸 이탈하는 기업이라면, (직무능력은 기본이고)상사와의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한 신입을 찾고있을건데,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위 3가지 사이트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잡플래닛은 인천대학교 제휴기업이라 무료 이용 가능하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회사별 시험(인적성, 논술 등) 후기

-인적성-

AI 역량검사:

1. **준비 방법:** 우선 유튜브에 역검 후기를 서치하여 역검의 버전별 응시 순서, 게임 종류, 기출 질문 등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행 순서'의 경우 반드시 숙지하여 끝까지 '차분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구역검, 신역검 구별:** 역검을 보게되면 이메일로 역검 링크가 옵니다. 제가 준비할때까지는 - 이를 클릭했을 때 초록색 화면이면 신역검, 보라색이면 구역검 – 이런식으로 구분법이 있었는데, 이러한 구분법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구역검 신역검 게임이나 진행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보수집은 필수입니다.
3. **모의고사:** JABDA 사이트에서 역량검사에 나오는 게임을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꼭 경험해보고 본 검사를 응시하시는게 좋습니다.
4. **Tip:** 역검에서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기', '시선 고정', '인성검사' 3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말을 더듬지 않고 또박또박 말해야 AI 인식으로 인한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선 고정의 경우 저는 컴퓨터 화면에 고정했습니다. 점이 찍혀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응시하면서 답변했습니다. 마지막 인성검사는, 게임을 아무리 잘하고 대답을 아무리 잘해도 회사에서 규정한 '이런 위험이 있는 지원자는 안 뽑는다'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컷입니다. 이를 결정하게 되는게 인성검사 파트이니, 협력 잘하고 사회성 있는 지원자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시는게 좋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배경은 단색에 깔끔하게 준비(저는 흰색 천 쿠팡에서 하나 시켜서 배경 가리고 봤음), 복장 단정히(이연제약의 경우 모든 지원자 역검 인터뷰를 인담자가 모니터링 했음)

직무역량검사: GSAT 등 인적성 시험 팁을 공유드립니다.

1. **문제집:** 해커스 하양이 파랑이(난이도-실제와 가장 유사), 에듀윌 노랑이(난이도-수리문제 숫자 너무 더러움 시간 남으면 보는거 추천), 위포트(인강 안사고 공부하고싶을 때 추천)
2. **인강:** 해커스 추천, 유튜브 무료 강의도 많은데 김소원 선생님 수리특강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3. **인적성 시험 Tip**:

   취업경력개발원 교내 비교과에서 제공하는 '대기업 인적성 대비 특강'을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덜컥 서류합하고 준비하는 것 보다 미리 한번 듣고 익숙해지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면접-

1. 준비방법: (1)기출질문, 후기 서치(잡플래닛, 잡코리아 등) – (2)질문 도출 및 모의 답변 작성 – (3)연습

2. 합격 후기:

이연제약의 경우 다대다 면접으로 면접관 5(인사팀, 이사, 공장장, 팀장 등 직급), 지원자 2~3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출질문으로는 1분 자기소개, 자소서 기반 인성질문, 직무경험 기반 질문(자세히), 지원동기, 연봉질문 등등 질문이 이루어졌고 학교생활 등도 물어보셨고, 특히 직무관련 자소서에 적은 용어나 개념, 스킬 등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긴장을 풀어주시려 노력하는 편이었고, 난이도는 '중하' 였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 쉬웠고 무난한 면접이었습니다.

타 기업 면접의 경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다대 일, 클수록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는 양상이었고, 면접 난이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송도에 위치한 제약업계 대기업 2곳의 총체적 면접후기를 공유드립니다.

1차 면접:

팀장, 파트장급, 인사팀 등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셨고, 자기소개 후 직무 경험에 관한 정말 구체적인 질문이 주를 이룹니다. (인성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본 대기업의 경우, 다대다 면접이라 타 지원자와 함께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일단 서류 합격한 모든 지원자가 직무경험이 있었고 중고신입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요한 것은 멘탈 싸움입니다. 자신이 가진 직무경험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의 경우 중고신입한테만 유의미한 질문이 가는, 면접 흐름상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차분히 여러가지 역량 및 경험을 피력하며 면접관의 주목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이게 1차 면접 합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강점+경험 정리를 면접 전 필수로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영어면접이 있다면, 오픽정도의 난이도로,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원자 약 5명이 다 같이 보다보니, 프리토킹이 가능한 지원자가 옆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라 주눅들지 않도록 멘탈관리는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면접은 자신감이니까요.

2차 면접:

임원, 대표이사, 이사, 공장장급 면접관들이 들어왔고, 기업 2군데 모두 다대다 면접에, '직무검증은 1차에서 했으니 2차에서는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만 물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 그리고 평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직급 별 역할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 하고 면접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 지원동기, 경력이라면 이직 사유, 시사, 회사에서의 문제상황 발생시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회사에서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있는가?] 등등 물어보십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저는 취경원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취업에 확실한 도움이 됐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제약/바이오 엘리트 취업특강, 영어토론, 취업준비반, GSAT 특강 등등 수강하였고, 면접 전에는 상담 신청을 통해 선생님과 함께 모의면접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쯤부터 이런 강의들을 틈틈히 이수하면서 감을 잡으면 취업이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듭되는 대기업 최종탈락에 자신감을 정말 많이 잃어버렸었는데, 모의면접 진행했던 취경원 선생님이 용기를 많이 주셔서 멘탈관리적으로도 도움이 됐던 기억도 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니 추천드립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사실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해 다니고 있는 이 회사는 중견수준으로, 손꼽히는 대기업이 아니기에 수기를 적는게 망설여 지기도 했지만, 합격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고자 적게 되었습니다.
취준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답없는 기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든것이 정상입니다. 저도 취업했지만 아직도 이직 취준이 끝나지가 않네요. 취준 기간에는 집에만 있지 말고 꼭 집 앞 카페라도 나가서 활동하고, 자신한테 돈도 쓰고, 맛있는것도 많이 먹고 컨디션 유지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버틸 수 있고 무엇보다 시야도 좁아지지 않습니다. 딱 1번의 승리를 위해 같이 파이팅 해요

학과(부)	분자의생명전공	연도	2020년 하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직 무	기술직
졸업(예정)연월	2021.02	입사(예정)연월	21년 상반기 발령 예정

■ 스펙

영어점수	TOEIC 880	평균평점	4.34
영어회화점수	-	기타 외국어점수	-
자격증	한능검 1급	취업 시 나이	24세(만22세)
부/복수/연계전공	-		
인턴십	-		
수상경험	-		
해외경험	-		
봉사활동	-		
동아리	-		
기타 특이사항	-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회사별 전형 유형에 따라 내용 수정, 표 추가 가능)

회사	직무	서류전형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7급 공무원	기술직	O	O	O	O	O

■ 취업 준비 과정

1.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전형이란?

- **시험대상:**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 졸업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23년도 부터는 1년 이내인 자)
* 졸업석차 상위 10% 이내, 졸업학점 3/4 이상 취득

- **선발방식:** 직군별 선발(행정/기술분야)

* 이공계열은 기술분야에 속함

- **시험과목:** 헌법 + PSAT(5급 1차와 동일)

* 영어, 한국사 검증시험 기준점수 충족

- **임용방법:** 수습(1년) 후 임용여부 결정

* 근무성적평가(2회) 결과 반영

<헌법 및 PSAT 정보>

- 헌법: 5급 1차 헌법 시험과 동일, 25문제/25분
- PSAT: 5급 1차 PSAT과 동일, 40문제/90분

* 헌법은 pass or fail
* PSAT은 세 과목 합산점수가 커트라인 이상이어야 함

2. 지원자격 준비

저는 지역인재 7급 제도에 대해 19년 6월 초에 알게 되었고, 때마침 **6월 중순에 교내 설명회**가 열려 지원자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설명회 참석 당시 3학년 2학기 재학 중이었지만, 졸업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매 학기 학과석차가 2~3등이었기 때문에 100여명의 졸업예정자 중 석차 10% 이내*에 들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TOEIC과 한능검만 따로 준비하였고, 7~8월달에 TOEIC 880점과 한능검 1급을 취득하여 9월부터 PSAT 공부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지원할 당시 **석차 산출방법**은 학과 3~4학년(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포함) 인원 내 석차 10% 안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따른다면 졸업자 신분보다 졸업예정자 신분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진입점수 및 최종점수

진입을 하기 전 가장 최근 기출로 기초 실력을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19년 기출을 풀어보았고, **평균 50점대**가 나왔습니다. (*전부 85분을 재고 풀었고、찍어서 맞은 문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9년도 기술직 커트라인이 평균 60점**이 조금 안됐었기 때문에 약 10점만 올리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던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신감 덕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실제 20년 시험에서는 평균 70점 정도**로 무난하게 필기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20년도 기술직 커트라인은 60점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4. 필기시험 준비

- **수험기간:** 19년 9월~20년 5월 (시험일자: 20년 2월 29일 -> 20년 5월 16일)

* 평균 PSAT 준비기간: 6개월~1년 (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약 2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추가됨)

- **준비과정**

· 09월: 헌법 및 PSAT(언어,자료,상황) 기본강의 수강
· 10월: PSAT 기출 3회독
· 11월: 학교 기말고사 준비
· 12월: 헌법 2회독 및 기출 돌입 / PSAT 기출 4회독
· 01월: 교내면접 준비 / 모의고사 응시 / PSAT 기출 5회독
· 02월: 헌법 및 PSAT 정리
· 04월: 메가피셋 PSAT 기본강의 수강 및 실전전략 수립
· 05월: 민경채 분석

지역인재 7급 수습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발령일자까지 졸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까지만 다닌 저로서는 PSAT 공부와 학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는 중간 및 기말고사 준비로 인해 PSAT에 대한 감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혹시나 **병행을 생각 중이신 분들은** 시험 기간에도 PSAT 및 헌법 문제 풀이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월달에는 아무래도 교내면접에 힘을 쏟게 됩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충분한 회독과 분석**을 해놓아 불안감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월 이후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험이 연기되어 집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감을 되찾기 위하여 4월달에 다시 메가피셋 기본강의를 들었으며, 이 때 강의를 수강하며 얻은 **실전전략을 토대로 민경채 기출을 분석하며 새로운 문제**를 접하고자 하였습니다. 5급 기출은 일전에 만들어 놓은 정리본을 토대로 확인하는 정도로만 눈에 담았습니다. (*4학년 1학기(9월~12월)에는 PSAT 공부를 병행하였으며, 4학년 2학기(3월~6월)에는 PSAT과 면접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 **수강강의**

· 언어논리: 한림 이나우/메가 김승환

· 자료해석: 프라임 신헌/메가 김승환
· 상황판단: 한림 박준범/메가 최원석
· 헌법: 한림 김유향
(* 전부 기본강의 수강)
대부분의 수험생의 경우 현강 또는 인강을 통해 필기시험을 준비합니다. 학원은 주로 한림법학원, 프라임법학원, 메가피셋, 합격의법학원, 베리타스 내에서 수강하며, 기본적으로 한림법학원/프라임법학원을 많이 선택합니다. 최근에는 메가피셋이 수험생 출신 강사를 필두로 저렴한 메가패스 수강권을 내놓아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여러 강의를 수강해본 결과 한림 및 프라임법학원의 경우 어느 정도 기초를 쌓는 데에는 적절했으나 메가피셋이 실전전략 수립에 있어 강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기출분석**
5급 PSAT 기출은 **0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평균 5회독**을 하였습니다. 시험시간(각 과목당 90분)을 고려하여 2회독까지는 85분을 재고 풀었습니다. 시간 내에 못 푼 문제는 따로 시간을 재면서 몇 분만에 풀었는지 체크해가며 전 문제를 다 풀었고, 다음날 안으로 전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3회독부터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만 풀고 분석을 하였고, 문제별 난이도에 따라 회독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민경채 PSAT 기출은 최근년도부터 풀었으며, 1회독씩만 진행하였습니다. 민경채 분석을 늦게 시작하여 못 푼 회차가 많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학원가 모의고사 대신 민경채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만약 5급 기출을 충분히 분석하셨다면 모의고사보단 **바로 민경채 분석에 돌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출분석은 실수포인트 찾기, 문제 의도파악, 발문에서의 힌트 캐치 등을 위주로 시행했고, 분석이 끝난 뒤에는 비슷한 유형끼리 같은 색으로 필기를 해놓아 다음 회독때 편히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출해설**
언어논리의 경우 과목의 특성상 해설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자료해석과 상황판단, 헌법은 꽤나 도움이 되어 필요하시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강사마다 해설의 상세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찾아보고 본인 성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모의고사**
모의고사로 가장 유명한 곳은 아직까진 법률저널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퀄리티가 실제 기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출 회독 후**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접하고 싶을 때 응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출 분석이 충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응시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기출과의 유형 및 퀄리티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백분위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모의고사 응시의 목적을 현장분위기 경험**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모의고사 때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접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이 오히려 시험 당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시행하는 전국모의고사 외에도 개별 강사의 모강이 있습니다. 언어논리의 경우 퀄리티가 실제 기출에 미칠 수 없다는 평이 많아 풀어보지 않았고, 자료해석의 경우 프라임의 신헌 강사 것을 풀어보았으나 백분위는 좋지 못했습니다. 상황판단은 프라임의 하주응 강사와 메가피셋의 최원석 강사 것을 풀어보았으나 자료해석과 마찬가지로 전부 **점수나 백분위**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저 감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전모와 마찬가지로 분석은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본 시험 점수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 **그 외 기출**
언어논리의 경우 철저히 5급 기출만 풀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접하기 위해 leet나 수능 언어지문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유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언어논리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다른 기출보다는 민경채 언어논리를 푸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 **과목별 전략**
· 언어논리: 논리퀴즈 pass
· 자료해석: 꼼수쓰지 않는 정확한 계산
· 상황판단: 법조문 정복
· 헌법: 빠르게 기출 돌입
기출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느낀 바를 토대로 세운 과목별 전략입니다.
언어논리의 논리퀴즈형은 매년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도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몇 번의 모의고사 응시 이후부터는 **과감하게 풀지 않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볼 때도 논리퀴즈 대신 다른 문제를 다시 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료해석의 경우 숫자의 앞자리만 보고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니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고 몇 번의 검산으로 인해 푸는 시간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한 뒤로는 **일의 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값을 내놓았습니다.
상황판단의 경우 퀴즈형 문제는 함정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들이면 맞출 수 있는 **법조문형의 연습을 많이** 해두어야 안정적인 점수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여러 번 회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암기형 과목이고 중요 지문들이 반복돼서 기출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더라도 1회독 후 바로 기출**에 들어가서 **빈출 선지를 암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정족수 암기를 위해서 두문자가 따져 있는 파일을 구하거나 직접 두문자를 만들어 자신만의 암기방법으로 정족수를 쉽게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필기시험 후기
- **준비물:** 물, 초콜릿, **방석**, 귀마개, 스톱워치, **마스크 여러개, 필기구컵**, 민경채 기출, 5급 기출 정리본
- **실전 전략:**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뛰어넘음
시험 당일에 볼 정리본을 몇 달, 몇 주에 걸쳐서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당일에는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가 너무 많이 정리해놓은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리본을 만들게 되신다면 꼭 인지해야 할 내용만을 3가지 이내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대신 정리본을 보지 않고 그때까지 풀지 않은 민경채 기출을 1~2문제씩 풀며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방석의 경우 하루종일 시험을 보게 되니 의자가 많이 불편하여 모의고사 때부터 들고 다녔습니다. 천방석은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접이식 가벼운 방석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종류의 마스크를 챙겨갔습니다. 만약 마스크를 쓰게 되신다면 시험 장소 컨디션에 따라 최적의 마스크가 다를 수 있으니 다른 마스크를 챙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필기구컵은 책상 옆에 집게처럼 꼽고 사용하는 컵모양의 통인데, 저는 챙겨가지 않아 좁은 책상에 여러 필기구를 놓으니 계속 떨어져 불편했습니다. 한번 사용해보시고 괜찮다면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심시간엔 밥이 넘어가지 않아 따로 챙겨간 샐러드와 초콜릿만 먹고 응시했습니다. 이처럼 혹시 모를 과도한 긴장상태를 대비해 간단하게 칼로리를 충전할 것도 따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위 과목별 tip과 더불어 조금이라도 어려워보이면 바로 다음 문제를 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평소 연습해본 방식이 아니라 하면서도 불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쉬운 위주로 풀다 긴장이 풀리면서 어려운 문제를 접할 수 있어 모든 문제를 풀기에 더 용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여러 번 연습하고 시행해야 불안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1. 교내 선발

- **서류**: 자기소개서, 교수님 추천서

자기소개서의 경우 **가고 싶은 부처를 하나 정하고** 그에 맞게 제 경험과 전공을 녹여 작성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취경원에서 첨삭**을 받으니 생각보다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서의 경우 교수님께 메일로 연락을 드려 전화상담을 한 뒤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모의피셋**

교내선발 참고용으로 학교에서 모의피셋(모의고사)을 응시하게 합니다. 저는 모의피셋을 보기 전 따로 한 번 응시하여 해당 모의고사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응시로 유형을 파악하기는 무리였고, 대신 백분위가 20% 정도 나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의피셋 때는 백분위가 약 20퍼센트가량 떨어져 자신감이 하락했고, 이에 살짝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내면접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합격 여부와 더불어 교내선발된 합격자의 모의피셋 성적을 보면 모의피셋의 반영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교내면접**

저는 12월달에 진행된 **인바스켓 교내면접 특강**에 참석하여 면접에 대한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제공해준 공무원면접 빈출질문을 통해 교내면접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강에 참석하였지만, 특강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혼자 준비하게 되시더라도 인터넷에 공무원 면접 빈출질문을 다운받아 연습해보시고, 또 지원하고자 하는 부처의 이슈나 현안에 대해 몇 가지만 자세히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면접에는 **세미정장~정장**을 입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남색자켓에 흰 셔츠, 검정 슬랙스, 검은색 구두를 착용하고 갔습니다.

저는 필요한 자격요건 외엔 스펙이 전무했기 때문에 면접 도입부터 이를 언급하셨습니다. 면접 준비를 할 때부터 걱정한 사항이어서 조금 당황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들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걸 아시기에 한 번 언급하는 정도로 넘어가셨습니다.

보통 면접관 한 분께서 날카롭게 파고드시는데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소신있게 전달하되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 번 넘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잘못 대답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 면접 이후 제대로 숙지하겠다'는 모습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2. 본 면접

- **시간:** 25분 PT면접 + 15분 인성/상황면접
- **스펙:** 대외활동, 봉사, 동아리 **경험 全無** / 아르바이트 경험도 풀어써낼 정도가 되지 못함
- **면접 준비과정**

· 6월: 면접학원강의 및 면접스터디 + 기말고사 및 졸업논문 준비
· 7월: 면접학원강의 및 면접스터디
· 8월: 면접스터디 + 모의면접

20년도에 본교 수업은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험이나 졸업논문 준비 외에는 크게 방해받을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1년도부터는 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병행하시는분들은 면접학원 수강을 위해 수업을 최대한 몰아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면접 학원

지역인재 7급 면접학원으로는 크게 프라임 이진우와 인바스켓으로 나뉩니다. 이진우 면접학원의 경우 상황면접이 디테일하다는 점과, 초반에 PT 및 상황면접 답변의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답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인바스켓의 경우 PT 모범답변을 제공하여 PT주제별로 작성할만한 내용을 암기하기에 좋았습니다. 또한 이진우 학원보다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1:1로 관리해주는 느낌이 들고, 학원 내 스터디

룸을 제공해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합격자 대부분 어느 면접학원을 가느냐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말합니다. 두 학원 모두 면접에 충분할 정도로 대비해주기 때문에 일정이나 거리, 가격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해 선택하시면 **어느 학원을 다녀도 무방**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면접 스터디

저는 총 3개의 면접스터디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6월엔 행정+기술 혼성스터디를 진행하였고, 7월부터는 기술직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교내 필기합격자분들과 함께 따로 스터디를 3번 정도 진행했습니다. 확실히 혼성스터디에서는 행정적인 요소와 공무원스러운 자세를 배울 수 있어 좋았고, 기술직 스터디에서는 좀 더 전공지식적인 측면을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만약 직렬스터디 하나만 진행하게 되신다면 **다른 직렬과 섞인 스터디**를 추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자면 **면접스터디는 조금 빡빡하게 진행**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통해 어렵고 당황스러운 질문에 적응이 되어 오히려 본 면접에서는 단순한 질문들만 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습 때 너무 어렵게 간다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균형을 잘 맞춰 질문 난이도를 섞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 그 외 준비

저는 현 정권 및 세계 이슈들에 대해서는 신문사 기사 대신 '뉴닉'이라는 메일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재밌게 접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부처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부서별 하는 일을 파악하기도 하고 부처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 기사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외 제 전공 분야와 관련이 없는 이슈들은 너무 어렵고 파고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면접스터디가 끝난 후 PT 주제에 대해 조원들에게 물어보고 마는 정도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대신 **굵직한 이슈나 중요 정책들은** 자세히 찾아보고 암기해두고자 하였습니다.(ex)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 면접 후기

저는 안타깝게도 오후 마지막 순번을 받아 제일 마지막으로 면접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 순번일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보다는 지루함이 많이 느껴졌고,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기보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준비에 철저한 분이시라면 이런 예상치 못한 순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 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년도 면접은 코로나로 인해 **행정/기술로 나뉘어 이틀 연달아 면접**을 진행했고, 또한 거리두기를 위하여 답변 작성을 먹지에 하지 않고 **A4용지에 하여 복사**했습니다. 이번 경험/상황면접의 경우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으나, 저는 작성하고 기다리는 동안 생각한 상황 면접 예상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내던지실 것이라 예상 했는데 상당히 원초적인 질문들만 하셔서 오히려 더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게 되신다면 그럴수록 더욱 **의견을 짧고 굵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마지막 순번이다보니 면접관분들께서 질문을 적극적으로 주시지 않고 지치신 것도 눈에 많이띄어 관심을 이끌려고 하다보니 오히려 답변이 루즈하게 길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면접스터디에서 더욱 연습했어야 했는데 충분히 연습되지 않은 것 같아 끝나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따라서 면접준비를 할 때 영상을 촬영할 경우 여러 번 확인해보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직 PT면접 문제는 플랫폼노동자 지원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기술 관련 PT만 연습해오다가 행정직스러운 문제를 접하게 되어 당황했지만 생각보다 작성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먹지 대신 작성용지를 복사해 면접관분들에게 나누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필기를 할 수 없어** 몇 가지 정의에 대한 것이나 수치에 대해 완전한 파악이 안된 채로 면접장에 입실하였습니다. 그래서인
지 초반부터 플랫폼 노동자 2종류에 대해 모두 설명하라 하셨고, 저는 한 종류만 말씀드리고 남은 한 가지는 명칭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그리 부정적이진 않으셔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 질문 외에 PT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나 면접관 한 분의 표정이 계속 안 좋으셔서 잘못 말하고 있는지 계속 제 답변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습 때 많이 경험해 본 것이라 적응이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실전에 닥치니 계속 눈치를 살피게 되고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다행히 면접이 끝난 후 다른 분들께서도 그런 면접관이 한 분씩 계셨다고 하여 안심했습니다. 만약 면접 시에 면접관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도 동요하지 마시고 **일부러 당황시키려는 의도**라 생각하며 편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tip을 드리자면 공무원스러움이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보시면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상생하는 쪽으로** 의견을 갖고 가시다보면 본 면접 때도 좀 더 답변하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취경원에서는 교내면접과 본 면접을 위해 필수로 **자소서 첨삭, 면접 준비** 등을 받게 합니다. 학교병행으로 인하여 PSAT 준비시간이 부족해 취경원 이용이 부담스러웠지만 돌이켜보니 그 과정들이 없었다면 자소서에서나 면접에서나 제 생각이 정돈되지 않은 채 전달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간적으로 부담이 돼 자주 찾아가진 못했지만 확실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취경원에서 **PSAT 강의비 및 면접학원 비용까지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선예원이란 제도를 알지 못해 PSAT 강의비를 조금밖에 지원받지 못했지만, **선예원에 들어갈 수 있다면 꼭 들어가셔서** 여러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매년 **지역인재 7급 설명회**가 열립니다. 설명회만큼은 꼭 참석하셔서 각종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 선발 과정에 대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이자 합격생 선배의 준비전략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19년 6월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이번 20년에는 11월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만약 놓치셨다면 취경원에 연락하여 정보를 얻거나 주변에 참석한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저는 스펙이라고 불릴 만한 경험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면접과 본면접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교내면접에 관한 취경원의 설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선발 시 보는 최우선 항목은 학업에 충실하였는가**입니다. 본 면접에서도 제 경험에 대해 추가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면접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은 '이 지원자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잘 인지하고 있는가', '공직사회에서 갈등상황을 잘 풀어가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가' 등입니다. 따라서 저는 생각보다도 더 **스펙은 중요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스펙이 없다고 다급하게 준비하시기보단 걱정말고 그저 필기와 면접 그 자체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인재 7급 지원자격은 졸업 후 3년 이내이기 때문에(23년도부터는 1년 이내) **졸업하지 않으셨다면 언제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수료상태로 계셔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졸업생 신분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지역인재 7급에 도전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취업 준비에 있어서도 학교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학교의 지원을 최대한 받으며 취업에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인재 7급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국가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또 가고 싶은 **부처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얻으신 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시면 더욱 의지를 갖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과(부)	분자의생명전공	연도	2020년 하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씨엔알리서치	직 무	CRA
졸업(예정)연월	19년 8월	입사년월	21년 1월

■ 스펙

영어점수	TOEIC 850	평균학점	3.93/4.5
기타 외국어	X	영어회화점수	OPIC IM2
자격증	X	취업 시 나이	29
인턴십	교외 실험실 인턴 1개월		
수상경험	X		
해외경험	X		
봉사활동	교육봉사 50시간		
동아리	X		
기타 특이사항	X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

회사	직무	서류전형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씨엔알리서치	CRA	O	O	O	O	O
아주대병원	CRA	O	-	X	X	X
중외제약	임상	O	X	X	X	X
대한항암요법연구회	CRA	O	-	불참		

■ 취업 준비 과정

0. CRA와 CRO

신약이 출시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시 시험기관의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되면서 과학적인 자료가 생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CRA(Clinical Research Associate, 임상시험 모니터요원)입니다. CRA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직이 아니라, 임상시험 관련 문서를 관리하는 사무직입니다. 또한, 병원으로 모니터링이라는 외근을 나가기도 합니다.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는 제약회사(Sponsor)가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상시험 연구를 위탁하는 회사입니다. 임상시험의 설계,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진로 설정

신약 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인턴을 경험하니, 대학원은 나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직무가 바로 임상, CRA였습니다.
제약회사에 많은 직무가 있는 걸 알았지만, CRA는 굉장히 생소한 직무였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마땅히 없었을 때, 취업경력개발원 엘리트바이오반에서 CRA 현직자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준비할지 조금이나마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직자분이 운영하는 블로그(https://blog.naver.com/eunjkim1980)와 카페(https://cafe.naver.com/cracrc)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2. 취업 방향 정하기
저는 의약품 허가 임상시험을 하는 곳은 CRO와 Sponsor 가리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의약품 PMS 쪽은 지원하지 않아서, 취업 준비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최근 신입 CRA 채용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CRA로 채용하는 곳은 어디든 지원하여, 붙는 곳으로 가세요. 어느 직무보다 경력이 깡패인 직무입니다. CRA로 진입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TA, SSU
CTA는 CRA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로, IRB와 각종 in-house 업무를 담당합니다. SSU는 임상시험의 초기 단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둘 다 CRA보다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또한, CRA 신입을 채용할 때 유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에, CTA나 SSU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CRC는 간호사가 아니면 진입하기 힘들어요) 간혹 CTA나 SSU에서 CRA로 전환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니, 전환 여부를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2) Minor CRO
규모가 작은 CRO에서 근무하다가, 큰 CRO 신입이나 경력직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보통 규모가 작은 CRO는 의약품 허가 임상보다는 PMS,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합니다. 이곳에서 경력 쌓고, Major CRO로 이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3) Sponsor
제약회사의 임상팀에서 신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접 모니터링보다는 CRO management를 주로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급여와 복지가 좋습니다.

3. 스펙 준비하기
1) 어학성적
토익과 오픽은 졸업 전에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져 만료돼, 20년 하반기에는 급하게 시험을 보고 이전보다 낮은 점수로 지원했습니다.
어학성적은 미리 준비하시고, 최대한 고득점을 받아두세요. 토익 성적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토익은 900 이상, 토스는 LV6, 오픽은 IH 이상 받아두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어학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회화 실력입니다. 목표 어학성적을 만든 후에는 회화 능력을 꾸준히 키우세요. 나중에 영어면접이나 실제 업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인턴 경험
의과대학 항암제 연구 실험실에서 1달간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실험실에서 석사를 하려 했기에, 여러 실험에 참여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나중에 동물을 이용한 비임상시험에 참여하고 데이터를 해석했던 경험을 자소서에 썼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경험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글로벌 제약사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admin 계약직입니다. 화이자(Marketing, RA 등)나 바이엘(임상부, 의학부), MSD(임상팀) 등이 방학 때나 학기 중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GSK, 노바티스 등에서는 admin 계약직(임상 업무 보조)을 뽑습니다. 이런 유관 경험을 쌓는 걸 추천합니다.

3) 교육 이수

처음에는 온라인 20시간만 수료했지만, 대부분 취준생이 40시간 교육 이수 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오프라인 교육을 들었습니다. 유료 교육은 부담스러워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교육을 신청했는데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3번째 도전 끝에 12월 KoNECT CRA 초급과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뒤로 꾸준히 교육을 들어서 120시간 정도 이수했습니다.

교육은 지정된 교육실시기관 어디서든 4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 취업을 준비하는 해 초에 듣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4) 자격증

따로 준비하고 취득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컴활 2급이나 워드 1급을 많이 갖고 계시더군요.

4. 취업 스터디 참여

19년 하반기에 처음 서류 합격한 외국계 제약사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취업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 KGCP(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쪽지 시험과 자소서 첨삭,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20년 1월부터는 주 2회 KGCP와 ICH-GCP
쪽지 시험을 보고, 자소서 첨삭과 모의 면접을 격일로 진행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계속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스터디의 도움이 컸습니다.

5. 그 외 프로그램 참여

1) 임실모 취업 세미나

처음 임상 분야로 취업을 준비할 때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2만원. 임상시험과 직무에 대한 소개, 회사 분위기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입을 채용하는 회사 목록과 면접 빈출 질문 등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면접 세미나도 신설됐는데, 참여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2) 잇다

현직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멘토님께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십니다. 10월에는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라이브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3) 코멘토 직무부트캠프

익명의 외국계 제약사 멘토님과 실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18만원. 과제를 해결하고 피드백을 듣는데, 가격이 많이 부담됐습니다. 그래서 합격 후 중간에 환불받았습니다.

4) 취업 프로그램 참여

교내 취업경력개발원이나 무중력지대, 고용센터 등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 분석

1.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별표1을 보면, 임상시험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업무를 시작하기 전 40시간의 신규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입사하고 듣는 교육이었지만, 요즘에는 입사 지원 전에 듣고 지원하는 게 추세입니다. 채용공고를 보면 많은 기업에서 교육 이수자를 우대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교육 이수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러므로 반드시 미리 교육을 이수하고 지원하세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pbp/CCBBC02)에서 교육실시기관과 시작 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준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은 국가임상시험재단(KoNECT), 한국임상개발연구회(KSCD), C&R Academy, LSK Education Center, 한국임상CRO협회(KCROA) 등으로 제한됩니다.

그중 추천하는 교육은 KoNECT 교육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총 2가지입니다.

① 비용이 저렴하다. 대부분의 교육은 40시간에 50~60만 원 정도인데, KoNECT는 24시간에 10만 원(미취업자는 3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나머지 16시간은 온라인 무료교육으로 들으면 됩니다.

② 다양한 회사의 현직자를 만날 수 있다. 입문교육과 신규자 교육은 취준생과 신입이 함께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은 조별로 진행되는데, 취준생과 신입을 적당하게 섞습니다. 3일 동안 같은 조에서 함께 교육을 들으며 친해지면, 회사에 대한 정보와 취업 준비 노하우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신 KoNECT 교육 신청은 수강 신청처럼 힘듭니다. KoNECT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들을 수 있는 교육을 들으세요.

저는 19년 11월부터 취업 때까지 약 120시간의 교육을 들었습니다. 실무경험을 쌓을 수 없었기에, 교육을 통해 CRA에 대한 관심도를 어필하려 노력했습니다. KoNECT 외에도 KOHI, 질병관리청, 화이자 등에서도 무료교육이 있으니 들어보세요. 아래는 제가 들었던 교육입니다.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시간
Pfizer R&D University 13th Training	Pfizer, DreamCIS	19.11	6H
제5회 임상시험 입문과정	KoNECT	19.11	8H
제6회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초급과정	KoNECT	19.12	24H
임상시험 모니터요원(CRA)_신규(온라인)	KoNECT	19.12	16H
임상시험 모니터요원(CRA)_신규(온라인)	KoNECT	20.01	16H
글로벌헬스케어를 위한 기초의학(의학용어의 개론)	KOHI	20.02	2H
글로벌헬스케어를 위한 의학용어(심혈관계)	KOHI	20.02	2H
글로벌헬스케어를 위한 의학용어(항암/면역계)	KOHI	20.02	2H
글로벌헬스케어를 위한 의학용어(약리학)	KOHI	20.02	1H
제1회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초급과정	KoNECT	20.02	24H
제3회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신규자	KoNECT	20.06	6H
임상연구개론	질병관리청	20.09	2H
임상연구 설계	질병관리청	20.09	4H
임상시험 전자자료 처리	질병관리청	20.09	2H
임상시험데이터의 정제와 검증	질병관리청	20.09	2H
임상연구자료와 통계분석	질병관리청	20.09	1H
Clinical Trials in Rare Disease and Oncology	KoNECT	20.09	4H

2. 취업 스터디

저는 취업 스터디를 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KGCP와 ICH-GCP 시험을 보고, 자소서 첨삭과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GCP는 면접 때 단골로 물어보는 질문이고, 필기시험을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1회 독도 쉽지 않았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터디원들끼리 면접 후기를 공유하며, 여러 회사의 면접방식과 회사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업은 긴 호흡으로 준비하는 것이기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려면 스터디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https://cafe.naver.com/cracrc 여기에서 스터디를 구해서 참여했습니다

3. 현직자 인터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현직자 인터뷰입니다. 교육, 스터디, 멘토링 등 다양한 경로로 알게 된 현직자분들에게 직접 궁금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회사의 강점과 경쟁력,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간호학과 출신이 아닌 경우 업무에서 힘들 것 같은 점이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익명의 정보가 돌아다니지만, 현직자의 정보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주로 취업 스터디에서 먼저 취업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꼭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현직자와 연락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예의 바르게 질문하면, 다들 친절히 답변해주실 거예요.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1. CRO

CRO들은 대부분 수시채용이기 때문에, 수시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지원순서대로 면접을 보고 합격자가 나오면 종료하기 때문에, 공고를 확인하면 바로 지원하세요. Local CRO는 네이버 카페 신약 개발임상 연구원 모임(https://cafe.naver.com/cracrc), 사람인, 잡코리아에서, Global CRO는 네이버 카페와 링크드인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CRO는 자유 양식의 자소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처음 잘 써놓으면 조금 수정해서 여러 회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3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썼습니다.

1) 지원동기: CRO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동기가 아닌, 직무 지원동기로 작성했습니다. 임상시험과 CRA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작성했습니다. 현직자 인터뷰를 하면, 회사 지원동기로 작성하는 것도 수월합니다.

2) 임상시험 관련 경험: 의무병 복무 경험과 비임상시험 인턴 경험, 이렇게 2가지 경험을 적었습니다. 임상시험과 어떻게든 연관성을 만들고자 최대한 노력했고, 이 경험이 업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3) 입사 후 포부: 가장 공들여서 쓴 문항입니다. 입사 후 포부에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나뉘고, 이것이 서류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PM이 되고 싶다고 작성하는데, 현직자분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포부라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차별로 임상시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떻게 성장할지를 밝혔는데, 이 부분에서 현직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 Sponsor

Sponsor는 주로 공채로 채용합니다. CRA보다는 임상팀, PM, 임상 개발, 임상 운영 등의 직무로 채용합니다. 임상 운영에서도 직접 모니터링을 나가는 회사와 CRO management만 하는 회사로 나뉩니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안 나가는 회사에서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Sponsor와 일부 CRO는 회사별로 양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지난 채용의 자소서 항목과 유사한 경우가 많기에, 지난 공고를 참고하시고 미리 자소서를 작성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채의 경우 회사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참여하고 방향성을 잡아 자소서를 작성하세요. 임상 파이프라인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나 DART, 한경 컨센서스 등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자 수의 압박이 있으니 반드시 두괄식으로 작성해주세요.

■ 지원 회사별 시험(인적성, 논술 등) 후기

1. 중외제약 AI 인·적성

-공통 답변 질문: 자기소개(90초), 성격의 장단점(60초), 직무 지원동기(60초) → 면접관들이 공통 답변 질문을 직접 확인하므로, 신경을 써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외제약의 경우, 마지막 추가 질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약사의 경우, 한글로 주어진 질문에 영어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I 인·적성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 AI 인·적성에 관한 많은 영상이 있으니, 미리 보고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인성 문제에서 '~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낚이지 말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에 체크 해야 합니다.
-AI 인·적성은 최대한 또박또박 발음하고, 시선 처리와 표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Vrew"라는 앱의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AI 인·적성 음성인식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이 앱을 이용해서 미리 연습하면, 실제 인·적성에서 또박또박 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1. 아주대병원 임상시험센터-CRA 계약직
-45분간 실무진 면접 진행. 면접관은 2명, 면접자는 5명.
-공통질문에 대한 면접자의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뭐라 답변했는지 계속 기억하며,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입을 채용하기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노력에 대해 많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들이 최대한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해서 면접관님께 여러 번 긴장 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면접관님의 의도와 다를 경우,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COVID-19 국책과제를 담당할 CRA를 급하게 채용하는 공고였습니다. 하지만 ARO의 경우, 간호사 면허가 필수거나 우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씨엔알리서치-CRA 인턴
-30분간 임원면접 진행. 면접관은 3명, 면접자는 4명(조마다 다름. 2명~5명) → 20분간 KGCP 30문항 필기시험
-이력서와 자소서 기반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CRA 지원동기와 업무에 대한 이해도, 노력에 대해 많이 물었습니다. 조마다 분위기가 달랐는데, 저희 조는 약간 압박 면접이 있었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질문을 받아 당황했지만, 최대한 준비한 답변과 연결해서 답변하려 노력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답변하세요.
-다대다 면접이기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에 짧게 대답하지 말고, 1분 정도 충분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면접 때 답변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가 왔을 때 손을 들고 준비한 답변을 말했습니다.
-간호사, 약사, CRC, 심지어 CRA 재직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합니다. 스펙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스펙으로 이기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CRA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필하는 게 낫습니다. 생각보다 신규자 교육 40시간을 안 듣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교육 이수를 통해 자신의 관심도와 노력을 어필합시다.
-KGCP 필기시험은 어렵지 않으니, 여러 번 정독하며 준비하세요.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1. 엘리트바이오반
19년 상반기에 참여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들으면 좋습니다. 취업 준비의 A부터 Z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CRA 재직자분의 강연입니다. 생명과학 출신 PM 선배님의 강연을 들으며, CRA의 실제 업무와 필요한 역량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생명과학 출신인데 CRA에 대해 어떻게 알고 준비하게 됐는지 많이 물어봤는데, 이때의 경험을 잘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2. 자기소개서 첨삭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에 참여했습니다. 자소서는 공채 시즌 전에 미리미리 첨삭 받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첨삭해주시는 분마다 성향이 다르기에, 다양한 분에게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3. 면접스쿨

20년 하반기에 참여했습니다. 2번의 모의 면접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모의 면접을 매주 진행했지만, 취준생들끼리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신청했습니다.

2분의 면접관과 25분간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선 처리와 자세부터 답변의 내용까지 면접의 모든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2번의 모의 면접에서 실전보다 더 빡세게 진행했기에, 실제 면접이 압박 면접으로 진행됐지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사람이 없다'였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직무를 준비하는 사람도 없었고, 과 선후배 중에서도 재직자가 없었기에 더 막막했습니다. 취업 스터디에서 간호사분들은 주변에서 정보를 많이 얻어 짧은 준비 기간에도 빠르게 취업하는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기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19년 하반기에 CRA 직무로 10개의 회사 지원해서 4곳에 서류 합격, 3곳에 면접, 그리고 1곳에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회사 대부분이 재택근무로 바뀌고 신입 교육이 제한되면서, 회사들은 신입보다 경력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상반기에는 23곳에 지원해 전부 서류 탈락했습니다. 20년 하반기에는 31곳에 지원해 6곳에 서류 합격, 2곳에 면접, 1곳에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신입을 뽑는 회사는 거의 다 지원했고 거의 다 떨어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4번 만에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취업 스터디를 같이 하시던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을 결국 다 취업하시더라고요. 취업 준비하면서 속상한 일이 더 많겠지만,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중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기를 읽는 후배님은 저보다 적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준비과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후배님에게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취업경력개발원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필드에서 뵙길 기원합니다.

학과(부)	분자의생명전공(대학원)	연도	2020년 하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직 무	시험 분석 파트
졸업(예정)연월	2016.02 (이후 대학원)	입사년월	2021.01

■ 스펙

영어점수	X (만료)	평균학점	3.83
기타 외국어	X	영어회화점수	X
자 격 증	기사 자격증 1개	취업 시 연령	28
인 턴 쉽	정부출연 연구소, 기술지주회사 (방학에 진행되는 학점 연계 인턴)		
수상경험	국제 학회 1건		
해외경험	학회 발표를 위한 해외 출장 다수		
봉사활동	X		
동 아 리	X		
기타 특이사항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회사별 전형 유형에 따라 내용 수정, 표 추가 가능)

회사	직무	서류전형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시험 분석 파트	O	O	O	O	O

■ 취업 준비 과정

학부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를 위하여 인천대 대학원으로 진학했습니다. 이후 석사를 졸업하고, 에듀윌 NCS 봉투 모의고사 5회를 사서 풀어보았더니 모듈형, PSAT, 피듈형 모두 딱 평균점수(어플에서 평균 나옴)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에듀윌 공기업 NCS 통합기본서를 사서 자습을 했고, 운 좋게 처음 지원한 공공기관에서 바로 서류 합격 후 인적성 및 NCS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1차면접, 2차면접을 유투브를 보며 연습했고 따로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 분석

대학원 설정으로 인한 전공 분야가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와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NCS의 경우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지만, NCS 결과로 반절을 탈락시킨 것을 봐선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풀이 속도가 빨라야하는 것 같습니다.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자기소개서를 따로 제출하진않고 온라인 접수 시 1000 BYTE 이내로 5가지 질문을 답변해야했습니다. 석사 이상 전공직 직종이라 그런지 질문 내용은 1. 본인의 기술/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 2. 지원분야에 대한 본인 역량 설명 및 장,단점 기술/단점 극복을 위한 노력과 계획, 3. 협업 경험과 본인

의 역할 및 결과, 4. 지원 동기, 중장기 목표, 5. 지원 분야의 직무 경험, 경력 등 직무 관련이 중점이었습니다. 답변은 최대한 직무와 관련하여, 왜 이 분석작업이 소비자한테 필요한지(분석기관이라서), 왜 제가 적합한지를 강조했습니다.

■ 지원 회사별 시험(인적성, 논술 등) 후기

인적성 및 NCS 난이도는 제 기준으로도, 다른 사람 후기를 봤을 때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회사를 지원해본적이 없어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필기 시험으로는 분별력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과반수를 탈락시켜서 약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적성과 NCS를 따로 보는게 아니고 합쳐서 봤습니다. 시간분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되네요.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1차는 주로 직무 관련이었으며 3:3면접이었습니다. 전공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왜 하필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다른 지원한 회사가 있는지? 부정적/긍정적 경험 (업무 내용중심으로), 장/단점 구체적으로 소개 및 왜 그것을 본인 장단점이라 생각하는지? 갈등 경험이 있는지? 등이었고 사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2차는 인성 면접일거란 예상과 다르게 직무를 많이 물어봤고, 면접관 3명에 면접자 1명씩 진행됐습니다. 전공 내용 및 본인 수행 능력을 많이 질문받았고, 장/단점 구체적 및 그 이유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유하셔서 저도 잘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솔직히 유투브에 나오는 인성면접(빈번한 야근.. 회사 생활 스트레스.. 팀과 개인의 실적 중..)은 거의 안나왔습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바로 취업이 된터라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혼자 했지만, 이런 센터를 이용했으면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혼자 하면 많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걱정을 하게됩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각자의 자리는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너무 풀 죽지 마세요.

03. 생명공학전공

학과(부)	생명공학전공	연도	2024년 하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 무	공정엔지니어링
졸업(예정)연월	2024.08	입사(예정)연월	2025 상반기

■ 스펙

영어점수	토익 905	평균평점	4.0/4.5
영어회화점수	오픽 IH	기타 외국어점수	-
자격증	컴활 2급	취업 시 나이	24(만 23)
인턴십	교내 장기현장실습(ipp) - 제약회사 QA 부서 6개월		
수상경험	-		
해외경험	-		
봉사활동	-		
동아리	-		
기타 특이사항	학부연구생 6개월, 직무 관련 교육 4회(단기 기기실습 교육, 장기 바이오교육, 단기 GMP교육, 직무부트캠프), 학생회 2년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회사별 전형 유형에 따라 내용 수정, 표 추가 가능)

회사	직무	서류전형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정엔지니어링	O	O	O	O (원데이면접)	
동아ST	QA	O	O	X		
HK이노엔	QC	O	-	X		

■ 취업 준비 과정

1. 진로 설정 방법 : 생명공학전공에서 가능한 분야는 제약, 화장품, 식품 정도인데 저는 추후 이직이나 연봉, 복지 등 고려해서 제약쪽으로 골랐습니다. 직무는 개인 선호도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QA, QC, 생산 순서로 선호도 갖고 지원했습니다. 직무보다는 기업 밸류를 우선시하여 지원했습니다.
2. 스터디 여부 : 전공취업동아리에서 기업 분석 및 스펙(토익) 쌓기를 했습니다. 학부 내 인원들끼리 진행해서 모두 비슷한 진로였고, 도움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3. 취업 준비 시작 : 2학년 때부터 교내 취업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지속해서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세미나, 학습 상담,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양 강의 중 취업 관련 강의 등을 수강했습니다. 4-2에는 인턴을 하고 있어서 졸업쯤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적이나 제약 관련 교육은 졸업 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졸업 후부터는 계속 자기소개서 쓰고 지원했습니다. 본격 취업 준비

시작 이후에는 교내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후술) 네이버 취업 카페(독취사, 제대모, 바인소 등)와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제약, 삼성 등)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 분석

1. 영어 성적 : 제약 산업 준비하신다면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필요하시다면 토익 800점 이상을 추천해 드리고, 저는 900점을 목표로 했습니다.
2. 학부 성적 : 학부 성적은 4.0이었지만 전공 성적은 그보다 낮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학점이 낮아도 면접 때 그에 대해 솔직하고 타당하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합격자분들 중에서도 낮은 학점이 존재합니다.
3. 학부 연구생 : 이공계는 학부 연구생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때 관련 질의를 받을 수 있으니, 실험 과정과 배운 점, 에피소드 등을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4. 직무 관련 교육 : 오프라인 장기간 GMP 교육을 추천합니다. 저는 싸토리우스 주관 교육을 수료했는데, 실습과 팀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어서 면접 때 도움이 됐습니다.
5. 직무 관련 경험(인턴) : 외부 인턴 경험은 정말 드물기에 교내현장실습을 추천합니다. 맡은 업무에 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자기소개서 첨삭 및 면접 스터디 : 네이버 취업 카페, 취경원, 그리고 교수님께 자기소개서 첨삭을 부탁드렸습니다. 여러 곳에서 받고 취합하여 최종본을 만들었습니다. chat GPT 유료 버전이 유용했습니다. 면접 스터디 4번, 모의면접 3번 등 면접 경험을 최대한 쌓기 위해 노력했고, 유용했습니다.
7. 기타 : 식약처에 제약바이오 관련해 여러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서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올 때 찾아보았고, 혹은 면접 필살기로 이런 부분까지 알고 있음을 어필하고자 할 때 사용했습니다.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채용 인원에 관한 오피셜 정보는 없지만, 최종 합격은 세자릿수, 면접은 그에 3배 정도인 거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니 고려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동기 : 공정엔지니어링의 직무 중 QC를 선호했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품질 + 나의 품질 관련 역량 어필'로 작성했습니다.
2. 성장과정 : 교내 장기현장실습 내용에 대해 에피소드 2개로 나눠서 작성했고, '배움을 위한 노력과 열정'을 어필했습니다.
3. 최근 사회 이슈 : GMP 관련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4.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동가치 중 본인이 가진 역량 : 직무 관련 교육의 팀프로젝트 경험에 대해 작성했고, '협업과 소통 능력'을 어필했습니다.

다른 스펙보다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3월과 9월 초에 서류 접수가 시작되니, 충분히 미리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셔서 많은 첨삭과 수정을 거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지원 회사별 시험(인적성, 논술 등) 후기

1. 시험 특성 : 타임어택 시험이기 때문에 '버릴 문제 파악하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e-book 구매 추천해 드립니다.
2. 문제집 : 소위 '파랑이'라고 부르는 해커스 문제집 2회 > 소위 '하양이'라고 부르는 해커스 문제집 2회 > 렛유인 봉투 모의고사 > 해커스 봉투 모의고사 순서로 추천합니다. 특히 상하반기 가리지 않고 봉투 모의고사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Tip : 문제집을 풀면서 '비타민 계산 연습' pdf를 통해 사칙연산과 분수 비교 계산 속도를 올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양이 풀이 과정' pdf를 구매하고, 문제를 보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GSAT

후기 블로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tip를 찾아보았습니다. 유튜브 '봉봉티비', '더챕터인적성' 등에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tip을 얻었고, 이를 체화했습니다. 체화를 위해 같은 유형의 문제를 직접 만들고, 막히지 않고 바로 풀릴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멈칫하는 부분은 색깔 펜으로 표시하고, 추후 그 부분을 공략했습니다. 체화가 어려운 tip은 변형하여 내가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익혔습니다. 이는 수리 영역과 추리 중 조건추리에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수리 영역의 경우 모니터를 손으로 훑으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4. 공부 시간 : 서류 합격 전까지는 문제 유형을 익혔고, 서류 합격 이후 3주 매진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시험 전까지 안정적인 모의고사 성적이 뜨지 않아 불안했지만, 본 시험에서 최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5. 시험 환경 : 유선마우스를 추천합니다.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 구체적인 질문은 회사와 서약을 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준비 : 엑셀을 활용하여 <기업분석, 산업분석, 내 경험, 자소서 기반, 인성면접, 직무면접, PT면접, 영어면접> sheet를 만들었습니다. 기업, 산업, 전공 공부를 하면서 예상 질문을 리스트화 했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내 경험 중 어떤 걸 끌어오면 좋을지 고민하는 것만으로 답변하기 유리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한 모든 활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why 질문을 던지며 꼬리질문을 만들고 대비했습니다. <그 경험을 왜 했고? 해당 경험에서의 역할은? 해당 경험에서 최대 성과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가장 부정적이었던 기억은? (사람, 상황) 해당 경험이 본인에게 남긴 2가지?> 등입니다.
2. 직무 면접 : 회사의 산업과 공정 위주의 공부가 우선으로 필요합니다. 전공 공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공부하면서도 그것을 면접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직무 질문 이외에도 직무 관련 경험 기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오면 <고민하기, 솔직히 모르는 것을 고백하기,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겠다며 최선을 다하기> 전략을 썼습니다. 칠판을 썼다면 지우고 나오셔야 합니다. 약 160개의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딱딱한 분위기였지만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로 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 인성 면접 : 기업 리뷰 플랫폼, 취업 카페 면접 합격 전략집(무료), 면접 스터디 등에서 질문을 모아서 약 200개의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대비했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기, 진중한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 모두 비추기, 대화형식으로 질문 이끌기> 전략을 썼습니다. 특히 답변이 어려운 질문에도 긴장할지언정 끝까지 말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1. 맞춤형 잡매칭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 노승희 선생님과 함께 기업 및 직무 분석, 취업로드맵 계획을 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자기소개서 첨삭 및 모의면접 등의 도움을 받았고, 유용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상담을 이어가며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하실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꾸준히 담당자분과 소통하면서 보완할 점을 찾아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GSAT 특강 기초반 및 심화반 : 렛유인 강사진, 학습 자료집이 유용했습니다.
3. 대기업 1:3 모의면접 및 삼성그룹 1:1 모의면접 : 긴장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어 유용했습니다. 피드백과 질의응답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참관하여 다른 학우들의 모습을 보았고, 귀감삼을 점을 배웠습니다. 모의면접 기회를 잡고, 없다면 컨택하여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4. 전공취업동아리 : 금전적 지원을 받아 토익 문제집을 구매했습니다. 취업동아리 명목 하에 박람회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먼저 취업하신 동아리 선배분께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챗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 자기소개서 작성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에도 유용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는 법이 유용했습니다.
6. INU 직무스쿨 및 pre 엘리트 프로그램 : 저학년 때 처음 제약바이오산업과 여러 직무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는 데 유용했습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목표에 대한 집념이 있었기에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예상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상보다 기간이 길어져 힘들었던 시기에 합격 소식을 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완점을 파악하되, 자신을 탓하지 말고 긍정적인 힘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주변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용기내서 정중히 도움을 요청드렸고, 많은 정보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과 실무에 대한 지식은 현업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작은 인연이라도 꾸준히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취업은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펙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나를 알아주고 필요로 하는 기업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히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후배님들에게 이런 말이 당장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힘들 때 한 번 더 일어나게 하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과(부)	생명공학전공	연도	2022년 하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대웅제약	직 무	RA(Regulatory Affairs)
졸업(예정)연월	2023.02	입사년월	2023.01

■ 스펙

영어점수	TOEIC 900	평균학점	3.7/4.5
기타 외국어	-	영어회화점수	TOEIC Speaking (AL)
자 격 증	-	취업 시 연령	23
인 턴 쉽	-		
수상경험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지킴이 활동우수상 식약처장상 [2] 교내 우수레포트 공모전 우수상 [3] 영어에세이공모전 최우수상 [4] 우수 튜터링 팀 공모전 장려상		
해외경험	-		
봉사활동			
동 아 리	외부 영어회화 동아리		
대외활동	[1]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제9기 식약아리아 기자단(2021.03-2021.12) - 포트폴리오 URL: https://m.blog.naver.com/PostSearchList.nhn?blogId=kfdazzang&orderType=sim&searchText=%EC%9D%B4%ED%98%9C%EC%A0%95 [2]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제4기 팜블리 기자단(2022.04-2022.12) - 포트폴리오 URL: https://m.blog.naver.com/PostSearchList.naver?blogId=kpbma1026&orderType=sim&searchText=%EC%9D%B4%ED%98%9C%EC%A0%95 [3] 식품의약품안전처 제8기 의약품안전지킴이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

회사	직무	서류 전형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	합격
Johnson & Johnson(Janssen Vaccine)	QA Lead(1Y-Contract)	합격	불합격(실무진 면접)			불합격
Boehringer Ingelheim	Medical RA	합격	불합격(실무진 면접)			불합격
한미약품	Global RA	합격	불합격(AI 역량검사)		불합격	불합격
보령	Global RA(2Y-Contract)	합격		불합격(실무진 면접)		불합격

회사	직무	서류 전형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	합격
Parexel	RA Associate	합격 (HR Interview)	합격 (English Logic Test)	합격 (Team Managers Interview	합격 (Peer-level Interview)	합격
대웅제약	개발	합격(자기소개 영상 제출)	합격(인성검사)	합격(실무진 면접, 적성고사)		합격

■ 취업 준비 과정

[1] 진로 설정 방법

시작에 앞서 제약사의 RA(Regulatory Affairs)직무에서 수행하게 되는 주요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RA 파트에서는 주로 의약품의 발매와 시판, 시장확장 등에 요구되는 관련 허가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허가 및 등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국내의 경우 식약처, 해외의 경우 FDA, EMA 등 각국의 규제당국에서 제시하는 규정을 연구 및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약품의 품목 허가나 허가 유지에 요구되는 기술문서(CTD 등)를 품질, 임상 등 사내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작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관부서나 파트너사 등과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하면서 제품의 개발 진도를 관리 및 조율하기도 하고, 규제기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전략적으로 IND/BLA 등을 진행하며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저는 RA파트에서 이와 같이 제품의 생산·품질·연구·임상 부문과 더불어 시판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주기적인 부문에 관여하고 학습하면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약품 개발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각국의 의약품 허가규정 및 가이드라인 관련 동향 부문을 비롯한 의약품 개발 트랜드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해당 직무가 갖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학부 시절 전공 교과목을 통해 쌓아온 바이오의약품 및 제약산업 관련 배경 지식이나, 각종 문서 작성 및 자료의 해석과 활용역량, 대외활동(식품의약품안전처·제약바이오협회 기자단 활동 등) 경험을 통해 길러온 직무 관련 배경지식과 역량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해당 직무에서 이러한 역량과 경험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제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 판단하여 RA Specialist로서의 커리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2] 어학

제약사 RA직무에서는 공통적으로 영어역량과 관련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영문 용어 등을 해석·이해하고, 규제당국 및 파트너사와의 소통업무 등 업무 수행 시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영어 독해·작문·회화 역량을 두루 요구하고 있습니다.

1) TOEIC

4월부터 6월까지, 주에 한 번 3-4시간씩 LC 및 RC 기출문제 풀이·오답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매일 풀어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이나 다른 학습을 병행하느라 이 이상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다면 YBM이나 해커스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하루에 몇 문제만이라도 추가적으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용했던 토익 기출문제집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2 1000 Listening

②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2 1000 Reading

빈출단어는 일명 해커스 노랭이로 불리는 교재(해커스 토익 기출 보카 TOEIC VOCA 영단어)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단어를 무작정 외우려고 애쓰기보다는 소설책 읽듯이 대충 읽어나가다가 안 외워지는것들은 체크해두고 넘긴 후 나중에 다시 읽어보는 식으로 다 독한 뒤 도저히 안 외워지는 것들만 따로 모아서 쓰거나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암기했습니다.

무료 토익학습 어플리케이션은 'YBM 픽토', '토익 기출보카', '산타보카', '해커스 토익'을 추천합니다.

2) TOEIC Speaking
준비기간은 2주 정도로, 하루 30분-1시간 정도 학습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토익스피킹'을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 채널들의 영상을 보면서(시계토끼 제X쌤, 제X크 토익스피킹, X웬 TV 등) 문제유형과 몇가지 빈출 템플릿들을 익혔습니다.

[3] 대외활동
매년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모집하는 기자단 대외활동을 추천합니다.
약 1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매월 1-2개의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컨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제작한 컨텐츠는 식약처·협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채널에 게재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협회 기자단의 경우 제약사 컨택을 통한 현직자 인터뷰, 제약계 행사 및 국회 정책토론회 방문 등 협회의 공신력을 빌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약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우들이라면 관심갖고 도전해 볼 만한 대외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4] 채용공고 확인
RA는 신입 포지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잡코리아, 사람인, 팜리크루트, 파마메디잡, 피플앤잡, 링크드인, 잡플랙스 등 다양한 채용 플랫폼을 이용하여 지원 공고를 탐색했습니다. 아울러 RA 직무는 기업별로 명칭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허가팀, 제약 RA, 해외 RA, 글로벌 RA, 인허가, CTD작성 등 다양한 키워드를 이용하여 검색했습니다.

아울러 대웅제약, 에스티젠바이오, 존슨앤드존슨,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화이자 등 제약사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취업준비중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면접준비
신입 포지션을 지원하는 만큼, 면접 시에는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 및 인성 질문 위주가 많았습니다. 다음 문항들은 어느 회사에서나 물어보는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막힘없이 술술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자기소개(1분 내외) / 기업·직무 지원동기 / RA직무에서 하는 일·하고 싶은 일 / 직무관련 개발해 온 역량 / 갈등관리·협업경험 사례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궁금한 사항]

또한 잡플래닛, 캐치 등의 사이트에서 기업별 면접 예상질문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제약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직무 소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접 스터디 팀을 구성해서 모의면접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꼭 서로 비슷한 직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돌발상황에 적응해 보고,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 지 파악해 보면서 준비했던 답변을 정

돈해 볼 수 있습니다.

[6] 참고도서

1) 「AI 면접 합격 기술」, 설민준 著
2) 「300대 기업 취업가이드」, 한국경제매거진

■ 취업성공 원인 분석

제가 생각하는 RA 신입 포지션의 취업성공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RA직무·인허가 업무 관련 지식
② 영어역량

인허가 업무 관련 지식은 관련 유료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식약처 홈페이지나 온라인 허가업무 설명회,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관련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히 파고들어 공부하기보다 CTD 자료 개요 및 모듈, 인허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등 개괄적인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예상범위 밖의 돌발 질문들이 나오는 경우 당황하기 쉬운데, 면접 스터디를 진행해 보거나, 면접을 여러 번 보면서(...) 순발력과 임기응변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면접 후에는 일반적으로 지원자가 회사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지원공고에 기술되어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 보거나, 해당 직무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여쭤보는 등 직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약사별로 유튜브 채널 등 소통 채널에 컨텐츠를 게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언급하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신입 면접의 경우 자기소개서 및 인성 관련 질문과 더불어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눈에 띄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식약처, 제약바이오협회 기자단 관련 대외활동 경험의 경우 매 면접 때마다 질문을 받았고, 호스피스 병동 봉사활동 경험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시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력서에 기재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면접 시 해당 활동에서 얻은 성과나 역량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면접을 보기 전 본인이 작성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말해 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 기업의 경우 특이하게도 서류전형에서 일반적인 자기소개서가 아닌,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게 됩니다. 분량은 3분에서 5분을 권장하고 있으며, 저는 3분 조금 넘게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RA직무를 지원했던 만큼, 업무 전반에 중요한 영어역량을 어필할 수 있도록 영어로 자기소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1] 얀센백신 QA Lead 직무 면접(1Y-Contract)

COVID-19현황으로 인하여 비대면 플랫폼(Zoom)을 통한 1:1 실무자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면접시간은 약 40-50분 정도입니다. 시작에 앞서 면접관님께서 QA팀 및 업무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십

니다.

Q: 얀센백신에 대해 알고있는 것
Q: 자기소개, 얀센백신 지원동기
Q: 정직원이 아니라 1Y Contract position에 지원한 이유
Q: 본인의 강점과 약점
Q: MFDS 리포터와 같은 대외활동 경험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Q: 얀센 社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화이자 社 mRNA 벡터 백신인데, 각 플랫폼에 대해 어떻게 생
Q: 향후에는 두 백신 플랫폼 중 어떤 것이 더 잘 나갈 것 같은지
Q: Technical writing 역량 함양을 위해서 공부했거나, 자신있는 내용
Q: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워라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Q: 영어를 어느정도 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 간단한 영어질문)
Q: 번역 작업도 자신있는지
Q: (업무 스타일 관련) 예시상황을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건지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Q: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과 관련한 별명이 있는지.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별명이 있는지
Q: 회사에 들어오면 수행하고 싶은 업무, 잘 할 수 있는 것

인터뷰 종료 후에는 지원자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어집니다. 저는 전임자께서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었던 비결, QA 팀에서 요구되는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QA팀에서는 특히 Overall 개념 및 게이트키퍼의 역할 등을 요구하고 에 따라 QA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다양한 것들을 두루두루 잘 알고, (부서간) 연결고리를 잘 이해할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 한미약품 해외 RA 직무 면접(AI면접)

장비점검 ▶ 자기소개 ▶ 기본질문 ▶ 성향파악 ▶ 상황대처 ▶보상선호 ▶전략게임 ▶ 심층대화 순으로 AI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문항마다 시간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총 면접시간은 약 1시간 30분입니다.

1) 자기소개 및 기본질문

Q: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Q: 가장 원하는 직무에 대한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
Q: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2) 전략게임

하노이의 탑, nBack 등 다양한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잡플래닛 등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료 볼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연습을 통해 게임 방식에 적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심층면접

Q: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을 선호하는 편인가요?
Q: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Q: 다른 사람들과 일을 진행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나요?
Q: 입사 후 의견 및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함께 일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4) 맞춤 질문

Q: How did you first become interested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Q: Please describe your past efforts to join as a member of the Global RA, Hanmi pharmaceutical
Q: Describe an example of overcoming difficulties by demonstrating the spirit of teamwork.

[3] 보령제약 Global RA 직무 면접(2Y-Contract)

다대일(Global RA팀 실무자 두 명, 지원자 한 명)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 및 관련 대외활동(식품의약품안전처 기자단, 병동 봉사활동) 위주 질문으로 면접이 진행되
인허가 업무, 그 중에서도 해외 RA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향후 커리어도 RA직무에서 쌓을 것
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어 질문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했던 병동 봉사활동 경험 시 있었던 에피소드나,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ICH 가이던스, USP 공정서 등 해외 가이던스에 대해 접해본 경험, CTD
학습했던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4] 대웅제약 RA 직무 면접

서류(자기소개 영상) ▶ 인성검사 ▶ 면접 및 적성검사 순으로 전형이 진행됩니다.
다대다(실무자 두 명, 지원자 세 명)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자 간 답변 순서는 따로 없고, 먼저 손을 드는 사람부터 답변기회가 주어집니다.

자기소개 / RA업무에 요구되는 역량 및 본인이 준비한 사항 / 의약품의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에서 RA가 수행하는 역할 / 입사 후 실제로 RA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내가 예상했던 RA 업무 간
분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것인지 / 갈등관리 경험
인의 장점과 단점 / 장기간 동안 준비해 온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 입사 후 포부 영어로 답변하기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1] 취업경력개발원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구직정보와 인턴 정보를 탐색했습니다.
[2] INU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참여
[3] INU 우수중소기업 메타버스 설명회 참여
[4] INU 외국어우수학생 진로취업 지원 간담회 참여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약회사 취업을 준비한다면, 흔히들 인턴경험만을 필수 스펙으로 꼽지만 인턴 뿐 아니라 대외활동·동아리·학부연구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를 가더라도 본인이 어떤 부서에 가야할 지, 어떤 업무가 자신의 성향에 맞을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별활동을 할 때 본인이 주도하는 업무를 잘 한다던지, 혹은 서포트 및 백업을 잘 한다던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좋아한다던지, 정적인 업무를 선호한다던지, 이러한 성향에 따라서 본인과 잘 맞는 부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는 제약사 내에 어떠한 부서들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R&D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 이뤄지는지, 각각의 부서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상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과(부)	생명공학전공	연도	2021년 상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한미정밀화학	직 무	분석연구팀
졸업(예정)연월	2021.02.19	입사년월	2021.04.12

■ 스펙

영어점수	TOEIC 895	평균학점	3.63
기타 외국어	-	영어회화점수	-
자 격 증	-	취업 시 연령	26세 (만 24세)
인 턴 쉽	IPP 현장 실습 – 한미정밀화학 분석연구팀		
수상경험	-		
해외경험	-		
봉사활동	-		
동 아 리	봉공근 (전공취업동아리)		
기타 특이사항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

회사	직무	서류전형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한미정밀화학	분석연구팀	O	O	O	O	O
대한약품공업	QC	O	O	O	X	X

■ 취업 준비 과정

안녕하세요, 생명공학전공 이국현입니다. 취업성공수기로 많은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지만, 다른 학과 학생분들께는 도움이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공학전공 학생들을 주 독자로 설정하고 글을 적으려고 하오니, 다른 학과 학생분들은 본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최대한 얻어가시지 바랍니다.

생명공학전공 학생분들은 가장 먼저 대학원 진학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희 학과는 대학원 진학률이 꽤나 높습니다. 얼추 3명 중 1명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학문을 깊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취업을 위해 진학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은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로 대학원에 갈 생각이신 분들은 이 글을 더 이상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교수가 되어서 학교를 빛내주세요. 하하.

그럼 여기에는 이제 학사 후 취업 혹은 석사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만 남았겠군요. 이제부터는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의 취업에 있어서 대학원 진학이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 2년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 시간을 견딜 각오는 되어 있는지 등을 본인 스스로 대답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야가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될 지를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대답을 해보며 본인의 진로는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이 다음에는 학사와 석사 졸업 후에 취업 준

비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 개인적인 의견과 교수님의 의견, 주변 친구들의 경험, 저희 회사 분위기를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에 가장 필요한 스펙은 크게 영어, 경험, 학점, 자격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팀장님은 자격증을 크게 중요치 않다 하시지만, 교수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니 넣었습니다. 먼저 영어는 기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공인영어성적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잠시 화면을 끄시고 토익 공부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달 독학으로 저만의 공부법과 문제풀이 방법을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법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그럼에도 토익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OPIC과 토스는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학점은 모두 3.5만 넘기라고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은 지금 동국대에 계신 김모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말씀을 인용하자면 '위험물/화분기/화기'가 가장 쓸모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은 사회 경험이나 봉사 경험 등이 있겠지만, 모두들 인턴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회 경험과 봉사 경험 등은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용될만한 애피소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IPP같은 학교 프로그램, 각각의 회사에서 채용하는 인턴 등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터디그룹을 만들거나 소모임을 만드는 등의 활동은 개인의 몫입니다. 혹자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혹자는 같이 공부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것들 말고 학교 프로그램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대학생에게 있어서 만원도 소중한데, 교재사고 공책사고... 지출이 너무 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학교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소확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스터디그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스터디그룹을 모집하는데, 크게 전공 튜터링, 교과 스터디, 비교과 스터디 등으로 나뉩니다. 전공 튜터링과 교과 스터디는 전공 과목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것이라 보통 1, 2, 3학년 학생들이 주로 지원합니다. 그에 비해 비교과 스터디는 모든 분야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취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도 자산관리 및 재테크라는 테마로 비교과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전공 튜터링은 튜터 20만원, 튜티 인당 7만원이고, 교과/비교과 스터디는 인당 7만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교재 구매에 있어서 상당히 짭짤하므로 3학년까지는 전공튜터링을, 취업 준비할 EO에는 비교과 스터디를 활용해보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공취업동아리입니다. 전공취업동아리의 가장 큰 장점은 재학생 말고도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대 지원금은 200만원이지만, 실제 책정되는 지원금은 약 100만원 안팎입니다. 취업동아리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모두 취업과 관련된 항목으로 지출해야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교재 이외에는 특별히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재 및 학용품을 구매하기에는 충분히 많은 지원금이 나오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취업성공 원인 분석

인턴 생활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갓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채용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생명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경험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만한 것은 실험실 경험밖에 없지만, 실제 회사 생활은 실험실 생활과 매우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실험실 생활이 있으면 그 경험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실험실 생활을 크게 보지는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IPP 현장 실습을 통해서 한미정밀화학 분석연구팀에서 실무 경험을 해봤고, 많은 분석 장비들과 실험들을 직접 다뤄보면서 회사 생활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회사는 대인 관계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큰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생활을 하는 것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취업에 있어서 큰 이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제가 지금까지 서류를 제출한 회사는 대한약품과 한미정밀화학 두 군데가 전부입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운이 좋게 바로 취업에 성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에 서류를 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에 대해서만이라도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약품은 인적성 검사가 따로 없고 서류 후에 바로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 먼저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적었던 자기소개서가 정말 잘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서 자기소개서를 아직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약품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장과정 2, 성격 및 특기사항, 3. 지원동기, 4. 입사 후 포부. 모두 700자 내외입니다. 대한약품에서는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평범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대한약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소개서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정밀화학에서는 서류 합격 후 인적성 검사,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한미정밀화학은 대한약품처럼 저렇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점을 노력했는지를 묻거나 지금까지 살면서 갈등을 겪고 해결했던 경험 등을 물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후배님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도 특별하지 않은 질문들이 될 만큼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피소드 거리가 몇 가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에피소드는 창작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경험일 때 비로소 더 재미있고 더 진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그것이 연애가 될 수도,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여행이 될 수도,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생도 재미있게 살고 자소서나 면접에 쓸 에피소드도 많이 만들기 바랍니다.

■ 지원 회사별 시험(인적성, 논술 등) 후기

한미 계열사에서는 인적성 검사를 합니다. AI인적성이라 집에서 진행하지만, 은근히 떨립니다. AI인적성 방식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본인의 성향, 주어진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업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AI인적성은 카메라로 본인의 얼굴을 시작부터 끝까지 비추면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건 간단한 자기 소개나 지원 동기같은 질문입니다. 대답 시간은 90초, 생각 시간은 약 30초입니다. 중간에 말을 실수해도 20초 이내로 다시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1번 주어지므로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성격테스트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중에 본인에 해당하는 걸 체크하면 됩니다. 은근히 오래 걸리지만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잘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게임을 진행했었습니다. 게임 종류 중에는 N-back, 공 무게 맞추기, 공 위치 맞추기, 삼각형 방향 맞추기, 날씨 추측, 감정 추측 등이 있습니다. Youtube에 검색하면 잘 나와 있으므로 한번 검색하셔서 이런 게임이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상에 대한 기준을 묻습니다. 예컨대 지금 5만원 vs 1달 뒤 10만원 이런 걸 묻습니다. 본인의 기준을 세워서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층질문을 합니다. 예컨대 본인은 직관적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여기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직관을 믿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이어서 하고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 직관을 믿지 않아서 아쉬웠던 경험이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이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약 3개의 질문을 이어서 하므로 여기에는 그저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I인적성을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거기서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대한약품과 한미정밀화학으로 나누고, 한미정밀화학은 제가 '특별히' 수고를 더 해서 인턴 면접과 채용 면접 둘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약품의 면접은 직접 회사에 방문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서해선이라는 생소한 지하철 노선을 따라 종착역에 도착하면 바로 앞에 대한약품 회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3명 정도가 면접을 봤던 거로 기억합니다. 면접은 1대 3으로 진행되었고, 인사총무팀과 제가 지원한 부서의 팀원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회사,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2. 한미정밀화학에서 인턴 생활할 때 배웠던 것
3. 회사 생활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는지
4.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는지

아마 세부적인 사항이 더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많이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저 위의 4가지는 분명히 기억이 나서 적어드립니다.
한미정밀화학은 Zoom을 통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3명에서 4명정도가 한 팀으로 면접을 보고 약 3대 3, 4대3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미정밀화학 인턴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1. 생명공학전공은 어떤 전공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달라.
(답변) 생명공학전공은 생명과학이라는 자연과학을 이용하여 가치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공이다.
2. 생명공학전공은 우리 회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답변) 생명공학과 같이 한미정밀화학도 자연과학을 이용하여 가치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3. 학교 실험실 생활을 하면서 다뤄본 장비 중 하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라
(답변) 없음. 다른 질문자에게 공통으로 했었던 질문이라 적어놨습니다.
4.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전공 과목이 무엇인가
(답변) 유기화학
5. 왜 그 전공 과목이 재미있었는가
(답변) 전기음성도와 전자의 이동에 대한 개념만 익히면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이해가 갈 것이라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6. 그 전공 과목에서 배웠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반응이 있으면 설명해달라
(답변) Diels-alder 반응과 conjugated system에 대해 설명
7. 분석화학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따로 공부한 것이 있는가
(답변) 화학분석기사 자격증 공부를 했었다
8. 자격증을 현재 취득했는가
(답변) 기사 시험은 1년 중 상반기에 몰려있고, 저는 3학년 2학기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2020년 상반기 기사 시험이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어서 현재 자격증은 없는 상태다
9. 타 인원에 비해 봉사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특별히 할 말이 있는가
(답변) 봉사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배려심이 많은 게 아니고 적다고 해서 배려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봉사 시간에 대해선 크게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적 받음)
10. 같이 면접보는 인원 중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둘 중에서 1명만 붙고 1명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우리 둘 다 이번이 좋은 기회이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큰 경험을 하고 있고 생각한다. 만약 이번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다음 회사 면접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고 아마 나의 친구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11.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데, 인턴 기간 중회사 출퇴근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답변) IPP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안내되어있었다. 따라서 기숙사에서 지낼 생각이고, 만약 안된다면 방을 하나 얻으려고 한다.

12. 대학원 진학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답변) 대학원 진학은 관심이 없다. 나를 나타내는 키워드로는 책임감을 말하고 싶다.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야말로 조직을 구성하는 팀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경험과 성향을 봤을 때 그 역할을 잘 해낼 자신이 있다.

한미정밀화학 채용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1. ALCOA원칙이 무엇인가
2. NMR에 대한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3. 인턴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4. 본인의 졸업논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보라
5. 분석연구팀에 들어오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것이 무엇인가

제 답변 중 참고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잘 찾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IPP 현장 실습을 했었으므로 IPP 현장 실습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선 IPP 현장 실습은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에서 인턴하기'라는 과목을 수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점을 취득하면서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규정된 월급도 받습니다. IPP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든 회사에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IPP 사업단에 인턴을 뽑겠다고 신청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굳이 뽑을 필요가 없다면 학생들 입장에선 IPP를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해 인턴 생활을 할 기회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IPP 현장 실습은 인턴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준 회사 중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회사를 골라서 그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중 한미정밀화학 분석연구팀을 선택했습니다.

IPP 현장 실습을 하게 된다고 무조건 채용이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연계형으로 인턴을 선발하는 회사도 있고, 채용과 무관하게 인턴을 선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한미정밀화학은 채용과 무관했습니다. 또한 IPP는 3학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3학년들은 특히나 채용 연계가 거의 안됩니다.

IPP현장 실습이 좋은 것은 인턴 경험도 쌓고 돈도 벌고 학점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영어성적, 인턴, 자격증을 가장 큰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인턴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분들이 IPP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한미정밀화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회사 소개나 분석 장비 소개 등은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IPP 현장 실습은 3학년 때부터 꾸준히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연계는 잘 안되겠지만 4학년 1학기와 2학기 중 둘 중 하나라도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3학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IPP는 1학기만 다닐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1학기는 5월 정도에, 2학기는 11월 정도에 모집을 진행합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을 하고 나니, 취업 전에 많이 놀아둘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1학년, 2학년이 있다면...어서 놀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연애도 많이 해보세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취준생 당시에는 취업을 위해선 뭐라도 할 것 같았지만, 취업을 막상 하니까 놀 시간도 없고, 놀 힘도 없고, 놀 정신도 없네요 하하. 지금 6월 25일에 이 글을 적고 있는데, 얼른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하하하.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적은 글이 큰 힘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차선보다는 최선이 되도록, 최악보다는 차악이 되는데 도움이 될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덕을 많이 쌓으면 본인이 언젠가 돌려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tip도 제가 다 채워 넣고 궂은 일들 그냥 제가 다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풀리나 봅니다.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언젠가 그 복을 본인이 받게 됩니다. 하하

어디 공모전으로 내는 글이 아니라 첨삭 없이 바로 제출한 글이라 글솜씨가 부족할 것 같네요. 제가 글을 잘 못쓰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의미있는 하루가 되셨길.

학과(부)	생명공학전공	연도	2021년 상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보령제약	직 무	분석팀
졸업(예정)연월	2021.08.13. (졸업예정)	입사년월	2021.04.19

■ 스펙

영어점수	-	평균학점	3.78
기타 외국어	-	영어회화점수	토익스피킹 – 150점 (level 6)
자 격 증	-	취업 시 연령	26세
인 턴 쉽	한미정밀화학 분석연구팀 (6개월)		
수상경험	-		
해외경험	-		
봉사활동	-		
동 아 리	-		
기타 특이사항	-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회사별 전형 유형에 따라 내용 수정, 표 추가 가능)

회사	직무	서류전형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한미정밀화학	미생물 품질관리	O	O	O	-	X
보령제약	분석팀	O	-	O	-	O
하나제약	이화학 품질관리	X				

■ 취업 준비 과정

생명공학전공을 나와서 바이오나 제약으로 많이 진출하는 선배들을 보고 저도 막연하게 제약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막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준비할 수 있고,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학점부터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낮았던 학점을 관리하였습니다. 3점 후반대의 목표를 세워서 학점을 관리하며 남은 학기를 보내던 와중 선배들의 추천으로 IPP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약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 제약회사 안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서 일해본다면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욱 잘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와닿을 것 같았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IPP 프로그램에 도전하였습니다. IPP 프로그램을 도전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학점만 관리하였고 막상 다른 스펙 같은 건 준비하지 않았던 저는 취업 과정에서 첫 번째 후회를 이때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이외에 다른 자기소개서를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았던 저는 한미정밀화학 서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3일 전부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작성하면서 학점, 학부 연구생, 학생회 활동 이외에는 딱히 제가 할 말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다른 방법으로 세우기로 하였고, 어차피

직원을 뽑는 면접이 아니므로 영어 성적 같은 스펙보단 인성과 자신감으로 승부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떨어지면 다른 곳에도 지원해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고, IPP 담당 교수님께 간단한 첨삭을 받은 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였고 저의 예상과 같게 서류는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에 합격한 후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정말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면접에 자신 있기도 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오자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면접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현장에서 하는 면접보다 저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무난하게 면접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한미정밀화학 분석연구팀에서 인턴으로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자기소개서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 취업 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준비한 사람들과 경쟁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서 7월 한 달 동안 강남으로 주말 토익학원에 다녔으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 번 더 안일하게 생각한 저는 그냥 회사에만 집중하고 시험은 나중에 12월쯤에 보자는 생각을 가졌고 이게 취업 과정에서 두 번째 후회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한미정밀화학 분석연구팀에서 일하면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원료의약품에 대한 여러 시험 방법 및 분석기기(HPLC, GC, UV, IR 등)를 직접 사용하며 시험해보면서 제약회사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20년 12월 24일 저의 6개월 동안 인턴은 끝나게 되었고, 다시 취업전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후회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졸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어성적이 없었던 저는 황급히 영어성적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익 공부를 하는데, 한 달 만에 되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어디 가고 토익 늪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었고 졸업을 하기 위한 마지막 영어성적 제출 날이 지나게 되면서 졸업을 못 하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무슨 후회를 할 일이 있겠나 하겠지만 취업전선에서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서류에서 '졸업자'만 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바로 취직하고 싶었던 저는 발목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직 준비 못 한 영어성적 또한 마음에 걸렸고, 토익을 단기간에 취득할 자신이 없어서 토익스피킹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토익스피킹을 준비하면서 토익을 준비할 때 보다 더욱더 재미있고 쉽게 느껴져서 3주간의 준비 끝에 150점을 받으며 졸업 여건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토익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스피킹 같은 회화 쪽으로 변경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제이크 토익스피킹 교재를 구매해서 유튜브 무료강의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영어성적을 취득한 저는 수료 상태이긴 했지만, 졸업예정자도 뽑는 공고들에 지원을 하나 두 개씩 했고, 운이 좋게도 저의 IPP 경험을 잘 살려서 말했던 보령제약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 분석

제가 보령제약에 최종합격을 하면서 저도 의아한 마음에 첫 출근 날 팀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왜 저를 뽑으셨냐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팀장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운이 좋았겠지?"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뒤에 나온 말은 저의 경험을 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직하기 전 학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IPP라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임하였고, 그 경험이 저에겐 취업을 성공시켜주는 기회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님 말씀대로 취업은 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에 다 합격하고 나서 긴장을 너무해서 면접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같은 면접장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운을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면접장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석연구라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제가 작성했던 회사는 위에 표에 나와 있듯이 총 3가지입니다. 그중 서류합격에 성공했던 두 가지 회사에 대한 서류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 지원했던 회사는 한미정밀화학이었습니다. 한미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공채로 진행되었고 자소서의 질문대로 어떤 방식으로 답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미정밀화학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와 지원직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뭔지?
- 한미정밀화학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경험을 통해 남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습득하고, 회사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2.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 솔직하게 저의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서 적었고,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적었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3. 열정을 가지고 수행했던 일은 무엇인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복싱 경험을 바탕으로 시 대회 우승까지의 과정을 적고 그를 통해 깨달은 점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4. 향후 포부
- 저의 경우 3가지 목표를 나열해서 그에 대한 이유를 적고 그 목표들이 당사에 어떤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포부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진짜 목표에 대해서 적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논리정연하게 단기간의 목표와 장기간의 목표를 정해서 적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5. 단체활동을 하며 겪은 갈등과 이를 극복한 경우는?
- 제 고등학교 시절 농구대회에 나가서 겪은 갈등을 적었고 어떻게 극복했고 그를 통해 깨달은 점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6. 본인의 강점과 약점은? 그 강점이 당사와 본인의 발전에 영향을 줄 거 같은지?
- 이 부분은 제가 느끼기로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항목 같아서 저의 성격의 장단점을 말하며 단점은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적었고, 장점을 통해서 회사와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적었습니다.

보령제약과 하나제약의 경우 수시채용이라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었고, 한미정밀화학에서 다양한 항목에 대해 답변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지원 회사별 시험(인적성, 논술 등) 후기

한미정밀화학에서 AI 면접을 봤었는데, AI 면접의 경우 집에서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AI 면접이라 대충 친구한테 듣긴 했지만, 정확히 뭐가 나오는지 몰라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AI 면접에 대한 정보가 매우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AI 면접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릴리예지라는 분의 영상을 보고 연습했고, AI 면접은 영상을 참고해서 하면 어렵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한미정밀화학: 1차 면접만 진행하였고 1시간 정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위주의 인적성 질의응답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전공 질문도 하였는데, 제가 지원한 부서의 경우 미생물품질관리팀이어서 1. 미생물 생장곡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각 단계의 특징이 뭔지 말해주세요. 2. 미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또한, 한창 미국 화이자 백신이 FDA 승인 허가가 나서 mRNA 백신의 기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한미정밀화학이 면접 보기 2일 전 신문 기사가 났는데 mRNA의 백신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기 때문에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뉴스 같은 것을 보면서 회사의 최근 정보

를 알아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제약: 1차 면접만 진행하였고 1시간 정도 대면 면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위주의 압박 면접이 진행되었고, 자기소개서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콕 집어서 압박하는 식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실무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면접관들의 경우 신입이 면접을 보러와서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다 알고 있으므로, 괜히 속여보겠다고 거짓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압박이 더 센 압박으로 조여 들어오기 때문에 자소서에 적은 사실 위주로 담백하게 말씀드리고, 잘못 말했을 땐 수긍하는 편이 덜 압박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면접이던 압박 질문이 들어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맞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면접관님의 굴레에 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수긍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이렇듯 저의 경우에는 둘 다 신입을 뽑았기 때문에, 자소서 위주의 인적성 질문이나 간단한 전공지식이나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지 실무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저처럼 실무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업무를 했었는지 간단하게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면접에서 대답할 땐,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 위주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했듯이 IPP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연구팀에서 인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약회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험법 및 기기들을 직접 다뤄보면서 제약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일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IPP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사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엔 모르는 게 많았고, 스스로 준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준비하지 않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준비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이 바뀔진 모르겠지만 많이 변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느낀 점은 미리미리 하는 게 진짜 정말 좋습니다 ^^...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운동을 많이 좋아해서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취미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 잘 잡으셔서 좋은 곳에 취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과(부)	생명공학전공	연도	2020년 하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에스바이오메딕스	직 무	품질보증 (QA)
졸업(예정)연월	2020.02.14	입사년월	2019.11.04

■ 스펙

영어점수	토익스피킹 Level 6 (130점)	평균학점	3.39
기타 외국어	없음	영어회화점수	130점
자 격 증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2급 생물공학기사 (필기)	취업 시 연령	23
인 턴 쉽	경험없음		
수상경험	인천대학교 창업아이디어공모전 최우수상		
해외경험	경험없음		
봉사활동	봉사동아리 '솔트' 활동		
동 아 리	인천대학교 응원단 '커플리온스' 인천대학교 봉사동아리 '솔트'		
기타 특이사항	-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회사별 전형 유형에 따라 내용 수정, 표 추가 가능)

회사	직무	서류 전형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	합격
㈜리독스바이오	생산관리					
㈜새한화장품	품질관리					
구주제약(주)	품질관리					
잉글우드랩코리아	품질관리					
㈜다비드화장품	품질관리					
정우신약(주)	품질관리					
㈜내추럴스토리	품질관리					
㈜바이오코스텍	품질관리					
㈜삼우메디안	품질관리					
㈜테라시온바이오메디칼	품질관리					
파일약품(주)	품질관리					
㈜알피바이오	품질관리					
경방신약(주)	품질관리					
㈜신도피앤지	품질관리					
㈜에스바이오메딕스	품질보증					

■ 취업 준비 과정

[진로설정방법]

중고등학생시절부터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생명공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했던 저는 진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

습니다. 다만, 생명공학이라는 엄청난 분야안에서 관심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실험실 생활을 하며 대학원 진학보다는 바로 취업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고, 대부분 QA (품질보증), QC (품질관리) 직무에 많이 취업한다고하며 그 직무에대해 특히 더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글로만 읽는 것으로는 직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해도 잘되지 않아서 저는 가리지 않고 다양한 회사에 지원하긴했지만 후배분들은 GMP교육이나 직무교육 등을 신청하여 직접 경험해보고 직무를 선택하면 더 적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색하면 GMP 및 바이오의약품 관련 교육들이 많고 무료인것도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직업기초능력 향상 과정]

대학교 1, 2학년때 까지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보다 중앙동아리 활동 및 단대 학생회 활동을 하며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키우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들을 만들었습니다. 춤에 흥미가 있던 저는 응원단에 들어가 동료들을 믿고, 협력하여 고난이도의 동작을 성공하기도하고, 부상으로인해 느꼈던 부담감과 그럼에도 가지고 있었던 열정 등에 대한 모든 기록을남겨두었고 후에 이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냈습니다. 봉사동아리 '솔트'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긴했었지만 크게 특별했던 기억은 없어서 이력서에만 작성하고 자기소개서에는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과활동으로는 생명공학부 뿐만아니라 생명과학부 학생들과도 친해지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싶어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생회로 2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운영부장과 총무를 맡으며 OT,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및 진행하였고 이 경험들은 저의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었습니다.

[기타내용]

저는 취업을 위한 스펙관리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관련 대외활동에 지원했었지만 대부분 영상편집실력 및 포토샵 능력 등 컨텐츠를 재밌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했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분들은 영상편집 및 포토샵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서 대외활동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논문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전국대학생생물학심포지엄(서울대학교)' 활동을 진행하였고 인천대하교에서 과친구들과 창업동아리를 결성하여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한 파마제'라는 주제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했습니다. 또한, 학부실험에서 해보지 못했던 실험들을 따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빠짐없이 참여했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고민은 매우 많았는데 토익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않아 학원, 인강 다 했었지만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익스피킹으로 바꾸고나니 공부도 재밌어지고 점수도 잘나왔습니다. 영어시험 종류에 따라 잘맞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시면 저처럼 토익스피킹이나 오픽 등 다른 시험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익스피킹은 계절학기수업으로들었던 수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취업을 준비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 분석

매번 서류에서부터 떨어져 면접까지 가보기도 힘들었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말은 '평균적으로 50~60번 지원해야 한번 면접볼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더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고,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간다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지금당장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은 회사여도 직접 경험하

고 배운 후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자는 생각으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한가지 팁은 회사에 지원하기전에 지원하는 회사 및 직무에 대하여 이해하고 검색해보며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확인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간다면 취업성공의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대부분 QC로 지원하였고 10/1 정도는 QA로 지원했습니다. 보통 인원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지원했던 회사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지원동기, 입사 후 목표, 성장과정, 전공역량을 키우기위한 노력,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많이 작성했습니다.
지원동기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게 작성하였는데 홈페이지, 기사 등을 확인하여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부분이 기대되고, 어떤 직무를 담당하여 그 길에 함께하고 싶은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다른 항목들은 각 회사의 인재상을 참고하여 그에 맞는 에피소드를 쓰긴 했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작성하여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성정과정]
저는 6년 동안 생명공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공지식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연계 연구 활동을 통해 저의 전공을 결정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정확한 검증과 이에 대한 책임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 이성근 교수님과 '간헐적 단식에 의한 효모수명 변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mRNA, 단백질 발현변화와 활성산소량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덕분에 고등학교 때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PCR, 전기영동 분석, cDNA 합성, western blot 등의 실험 과정을 직접 해보고 분석해보며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을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것으로 추측하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없다. 하나로 인해 우리의 연구 전체가 신뢰할 수 없는 연구가 될 수 있으므로 몇 번을 다시 하더라도 정확하게 검증된 결과만을 논문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데 정확한 검증이 바탕이 되며 실험자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계기로 저는 지난 6년 동안 생명공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쌓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관리해보다!'
2017 생명과학 기술대학 학생회에서 운영부장으로, 2018 생명과학 기술대학 학생회에서 총무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운영부장으로서 모든 단과대학 행사의 운영을 위해 미리 장소를 알아보고 대관하는 것부터 행사진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했으며, 총무부장으로서 모든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짜고 학생회비를 관리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활동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지만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만큼 팀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며 모두가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행사 운영을 위하여 시간별로 해야 할 일과 필요한 물품을 정리하여 팀원들과 공유하였고,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한 예산과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비교하여 어떤 부분에서 더 초과하였는지, 많이 남은 물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따로 정리해 다음 행사에서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품질보증 부서에서 다양한 문서를 관리하고 품질 보증 단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석사 같은 학부생을 목표로!'

인천대학교 고분자 생체재료실험실에 들어가 다양한 실험기기들을 다루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경험을 통해 컴퓨터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산소와 과산화 칼슘의 농도에 따라 고분자의 특징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소 발생량, 탄성 계수, -SH기의 양 등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레오 미터, 산소 센서, NMR, 동결건조 기기, 원심분리기 등 학부 실험에서 다루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효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조건별로 나누어 그래프를 그리는 법과 고분자에 들어있는 물질의 농도를 계산하는 법 등을 배우면서 실험결과 분석 및 정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 같은 학부생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장비를 직접 다루고 결과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수님 덕분에 전공 지식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회사의 품질보증 부서에 지원하는 만큼 이러한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 쉽게 업무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단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저의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고분자 생체재료 실험실에 들어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튜브의 뚜껑 위로 손을 움직이며 오염 가능성을 높인다거나 파이펫의 아래쪽 부분이 다른 곳에 닿는 등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조차 확실히 하기 위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뚜껑의 위치도 신경 쓰고 나의 움직임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였으며 새로 다시 해야 할 때는 고민 없이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연한 연구자의 자세이긴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을 더 확실히 인지할 수 있었고, 앞으로 품질 보증 직무에서 더 엄격하게 실수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인천대학교 응원단 '커플리온스' 활동으로 응원제를 준비하던 중 무릎부상으로 깁스하게 되었고, 의사로부터 당분간 무릎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응원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응원단은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제가 빠지면 팀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저의 부상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연습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눈으로라도 안무와 동선을 확인하며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였고, 이러한 저의 모습에 팀원들도 자극을 받아 열심히 한 결과 응원제 무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은 품질보증 업무에서 책임을 다하여 꼼꼼히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면접을 본 회사는 2군데인데 모두 1차면접만 있었습니다. 질문 및 분위기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테라시온바이오메디칼**

1 : 2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전공관련 질문보다는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바탕으로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고 칭찬해주시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경험했던 대외활동이 어떤 활동이었는지, 집이 먼데 입사하면 어떻게할 예정인지, QC로 입사하긴하지만 다른 업무도 맡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대한 질문이여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채용이 갑자기 미뤄지게되는 내부사정으로인해 3월에 입사하실 수 있냐는 문자를 받았지만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한 후여서 가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만났던 분들은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너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 **에스바이오메딕스**

QA로 지원하여 면접을 봤고 3:3으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바탕으로한 질문외에 GMP의 정의를 물어보셨고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직접 경험했던 실험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취업경력개발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던 선배의 조언에따라 4학년 1학기부터 작성해둔 자기소개서를 들고 자주 취업경력개발원으로 찾아가 첨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해야할지 막막했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이런 에피소드는 이렇게 쓰면 좋을것같고, 이런내용은 빼면 좋을 것같다며 정리를 해주셔서 훨씬 쉽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 수정하면서 말도 매끄러워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깔끔하게 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도 찾아가 도움을 받았는데 면접볼때의 의상, 표정, 자세, 말투 등 실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주시고 자기소개에 대한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받았는데 후에 중소기업에 가지않게되면 다시 돈만 반납하면되서 큰 부담없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다면 의무적으로 다녀야하는 기간이 있지만 장학금 1회당 6개월 정도로 긴 기간이 아니여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는 좋은것같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도 따로 신청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취업하는데 받고싶은 교육이 있으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일 것같습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준비를 하는때가 가장 불안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불안할 수는 있지만 열심히 하는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기에 꾸준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돈 많이 버세요!

04. 나노바이오전공

학과(부)	나노바이오전공	연도	2024년 상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비씨월드헬스케어	직 무	QA
졸업(예정)연월	2023.02	입사(예정)연월	2024.05

■ 스펙

영어점수	토익 720	평균평점	3.35/4.5
영어회화점수	오픽 IH	기타 외국어점수	X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2급	취업 시 나이	27세
부/복수/연계전공	-		
인턴십	X		
수상경험	X		
해외경험	X		
봉사활동	X		
동아리	X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

회사	직무	서류전형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정엔지니어링	X	X	X	X	X
에스티젠바이오	QC	X	X	X	X	X
대봉엘에스	QA(계약직)	O	O	O	-	O
비씨월드헬스케어	QA	O	O	O	O	O

■ 취업 준비 과정

4학년 졸업 후 바로 자대 대학원에 입학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1학기 후 자퇴하고 취업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약 11개월간 취업준비에 몰두했고 2024년 5월에 최종 합격을 하게되었습니다.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 싶었기에 직무는 제약회사의 품질관리(QC)/품질보증(QA)으로 정한 뒤 관련 스펙을 쌓고 직무공부를 했습니다.

토익, 오픽과 같은 영어성적을 평균이상(토익 800이상, 오픽IM3 이상)을 만드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익은 점수 올리는 것이 어려워 목표치 달성은 실패했지만 오픽은 IH를 취득하여 지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오픽점수만 기입하였었습니다.
또한 QA직무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컴활2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컴활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점수가 나오는 데 오래걸리기 때문에 한번 불합격을 하면 재시험결과까지 보기에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3개월정도 걸렸습니다. 그 외에 자격증을 따면 좋았겠지만 관련 자격증(GMP자격증 등)을 따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실무적인 경험이나 스펙을 쌓고 싶은 마음이 커서 외부 직무 교육을 기회되는 대로 찾아들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자소서를 많이 작성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처음에는 날것 그자체인 자소서로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보고, 수차례 자소서 내용을 다듬고 나서야 서류 합격률이 조금이나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몇 번 면접을 보고 운좋게도 면접을 본 몇 군데에서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 분석

1. 영어성적

제약회사 품질관련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득점 영어성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영어성적을 고득점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력지원이라면 말이 다르겠지만 신입지원이라면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첫 번째는 토익이든 오픽이든 토스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어시험을 결정해서 토익은 800이상, 스피킹은 IH이상을 취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자소서에 쓸 경험 정리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경험들을 자소서 항목과 잘 엮어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편입 전 학교와, 편입 과정, 편입 후 학교, 대학원 생활 등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들에서 자소서 항목과 엮을 이야깃거리를 잘 다듬어 자소서 항목들을 채워나갔었습니다.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뻔뻔하게 성과나 느낀점, 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이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듯 작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현직자에게 자소서 첨삭받기

자소서는 꼭 관련 현직자에게 첨삭을 받아봐야 합니다. 취준생의 시선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직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직자의 관점에서 자소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먼저 취업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한 적도 있고, 현직자를 찾아 조금의 첨삭비를 지불 후 자소서를 첨삭받기도 했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고, 실제로 그 첨삭으로 자소서 다듬는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는 '현직자의 첨삭'입니다. 관련 전공이 아닌 사람(취업한 친구)의 첨삭도 좋은 점이 있었지만, 자소서의 틀을 다듬는 정도라면 현직자의 첨삭은 자소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현직자를 찾아 첨삭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많은 회사들의 서류를 썼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역시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지원한 직무와 어떻게 연관시키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로 높은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통적인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모든 서류전형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와 자신만의 경험, 경력을 잘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면접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돌이켜 보자면 지원 직무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았을 때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어떻게 그 직무에 임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두루뭉술해질 수 밖에 없는 직무에 관한 답변을 좀더 상세히 말할수록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지원자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별개로 자신만의 어떤 경험에 대한 에피소드가 면접관에게 호감 또는 플러스 점수가 될 것 같다

면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한 회사의 면접관께서, 제가 우려하던 학력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강점으로 봐 주셨고, 제 에피소드들을 듣고 채용을 결심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면접까지 갔다면 스펙 외에, 자신이 결국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어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어떠한 질문을 듣든 자신있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에피소드여야만 합니다. 조금의 주저함이 보인다면 오히려 공격받을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곳에 자문을 구하던 와중 취업경력개발원에 상담을 요청하여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취업경력개발원은 자신의 어떤 학과출신이냐에 따라 담당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고, 좀더 직무중심적인 자기소개서 첨삭,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력부터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까지 첨삭 받으면서 취준생의 시야로는 보이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었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혼자 하다보면 막막하기도 하고 외로워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취업경력개발원을 이용하는 혹은 이용했던 것으로 취업까지 성공한 동문들의 사례를 직접 들으면서 위안도 되고, 취업성공에 대한 열정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아직 취업경력개발원을 이용해보지 않은 동문이 있다면 꼭 한번쯤 이용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 준비는 힘들지만 몇 번은 꼭 기회가 옵니다. 그 때까지 꾸준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취업이 힘든 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문제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자책한다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취준이 힘든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또 너무 취준 기간이 길어지고 힘들다면 조금은 눈을 낮춰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첫 직장에서 평생 다닐 것 아니잖아요(너무 염원하던 회사라면 모르겠으나 결국 거기가 첫 직장이라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어떤 회사든 경험할 수 있다면 경험해보고 또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3달간의 경험은 1년의 취준기간보다 값집니다.
화이팅!

학과(부)	나노바이오전공	연도	2023년 상반기

■ 합격 정보

취 업 처	휴온스	직 무	품질관리
졸업(예정)연월	2022.08	입사년월	2022.05

■ 스펙

영어점수	TOIEC 845	평균학점	3.67
기타 외국어	N/A	영어회화점수	N/A
자 격 증	N/A	취업 시 연령	26
인 턴 쉽	한미정밀화학		
수상경험	N/A		
해외경험	N/A		
봉사활동	N/A		
동 아 리	N/A		
기타 특이사항	N/A		

■ 지원 회사별 전형 결과

회사	직무	서류전형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	합격
휴온스	품질관리	O	O	O	O	O

■ 취업 준비 과정

- 재학생 신분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재학생이 취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스펙 쌓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교내 동아리, 공모전, 학부 연구생, 인턴실습 등이 있지만,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단기간에 큰 경험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에는 인턴이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턴을 지원하기에 앞서 개인의 신분으로 지원하는 회사의 자체 인턴프로그램과 학교의 인턴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신분으로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는 대게 체험형 인턴이 아닌 전환형 인턴이 많았습니다.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인턴준비와 취업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미 다양한 스펙들을 가지거나 인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환형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위를 받지 못한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안되므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학교 인턴프로그램들은 대비되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학교를 연계해서 하므로 학생의 신분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환형 인턴도 있지만, 참여형 인턴도 있어서 아직 졸업까지 학기가 많이 남은 3학년 학생들부터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의 인턴으로 참여시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턴 참여 학기에도 이러닝이나 OCU, 야간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므로 인턴 때문에 휴학을 하거나 초과학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학습병행이나 단기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자신의 목적이나 희망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보고 학교를 통해 장기현장실습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장기현장실습 준비

교내 IPP사업단 홈페이지에서 모집 부서별로 하는 업무를 확인하고 지원할 회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을 학사로 취득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제약회사의 품질관리(QC)나 품질보증(QA)를 기준으로 찾아보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와 회사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마감 기간을 넉넉하게 주고, 개인당 3번의 기회가 있으므로 가장 가고 싶은 회사부터 1지망을 쓰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지원 회사를 결정하고 나서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았고 따 둔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인재상을 찾아보고 지원업무와 관련된 전공과목과 경험들을 최대한 적용하여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자소서에 적힌 내용을 위주로 질문을 받았고, 좋게 봐주신 덕분에 최종 합격하여 한미정밀화학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 분석

- 인턴으로 일한 것을 자소서에 녹여내기

회사 일은 저에게 매우 낯설었습니다. 저는 생명공학부로 학교에서 전공수업을 통해 이론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일반생물학부터 시작하여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미생물학, 유기화학, 발효공학 등 다양한 교과목들을 이수했지만, 정작 회사에서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모든 게 새롭고, 배웠는지조차 까마득했습니다. 회사에서 다루게 되는 장비들은 대부분이 처음 보는 것이었고 이론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작동하는 방법은 생소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론을 중점으로 배웠다면, 회사의 교육은 이러한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기계를 사용하여 확인하는지를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이론과 직무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회사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잘하고자 하는 의지와 다르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음에도 순간의 착각으로 실수를 하거나, 미숙한 실험기구 조작으로 인해 실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자책하며 사태를 수습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 사회초년생으로의 예행연습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했을 때 나의 태도는 어때야 하며, 수습할 방법을 찾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취업 자소서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요즘은 인턴을 금턴이라고도 합니다. 정규직보다 인턴 경쟁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스스로의 자신감과 자소서의 이야깃거리로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약회사는 실무경험을 높게 쳐주지만 인턴을 뽑는 곳이 거의 없어서 취업 시장에서 남들과는 대비되는 좋은 스펙으로 작용하였다고 느낍니다.

■ 지원 회사별 서류 후기

운이 좋게 첫 지원이 합격으로 이어져 제가 다른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휴온스라는 회사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22년 8월 졸업예정자로 22년 3월 말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애매하게 상반기 취업 기간의 중반부터 준비하면서 많은 공채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수시채용의 경우, 언제 공고가 올라올지 몰랐기에 자소서의 공통 질문들을 작성하며 준비하였습니다.

휴온스 자기소개서의 경우 어려운 질문들이 아니었지만, 글자 수 제한이 다른 회사보다 컸기에 글을 풀어쓰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괜스레 성의 없어 보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 최대한 글자 수를 늘렸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성장과정
   - 본인의 성장과정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격 및 생활신조
   - 본인의 강/약점과 생활신조를 자세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점(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성과
   - 본인의 역량 중 강점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사 후 포부
   - 입사 후 어떠한 포부로 업무에 임할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풀어쓴 것이 합격의 이유였던 것 같고, 면접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를 써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최대한 많은 자소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사람인, 잡플래닛, 독취사, 제대모 등 샘플 자소서가 많이 있으니 글 쓰는 요령과 흐름을 익히기 좋았습니다.

또한, 저는 재학 기간에 다른 시험 준비로 남들보다 긴 휴학기간을 가졌는데 이 점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보이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소서 질문인 생활신조 부분과 엮어서 비록 실패한 경험이지만 이것을 양분 삼아 가치관의 변화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작성하였습니다. 면접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말로는 대응하기 힘들 것 같아 미리 선수를 친 것이었는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지원 회사별 시험(인적성, 논술 등) 후기

- 인적성시험 안내

휴온스의 경우, 서류합격 알림과 함께 일주일 내에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인적성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인적성은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1) 인성검사, (2) 행동 패턴검사(PI)로 두 가지의 시험을 따로 치르고 총 70분의 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준비방법

취업 커뮤니티를 찾아보니 거의 인성 위주의 문제만 있다는 후기를 보고, 회사의 인재상을 찾아 스스로를 세뇌하고 유튜브를 참고하여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인성검사의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느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과 부합하는지와 약간의 운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많이 받아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면접준비를 더 하였습니다.

- 시험

예상과 같이 시험은 인성 위주의 시험이었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시험 시작과 동시에 뜨는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확인 버튼을 눌러 시험에 응시하는 바람에 시험 보는 방식이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지만 미숙한 조작방법으로 시간이 초과 되어 뒷부분의 문제들은 풀지도 못하고 제출되었습니다.

- 준비 팁

후에 입사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많은 입사자들이 시간에 쫓겨 다 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인적성시험은 비중이 크지 않아 정말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거의 다 통과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해 떨어지는 사람이 한두명씩 꼭 있다고 하니 회사의 인재상을 살펴보고 유튜브로 인적성 보는 방법을 연습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더불어 한문제씩 너무 시간 들여 신중히 푸시지 마시고, 시간이 관건이니만큼 빠르게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적성 시험도 일주일의 응시

기간 동안 미뤄두며 너무 붙잡고 있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응시하여 면접준비 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합격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 지원 회사별 면접 후기

- 1차 면접 (실무진 면접)

1차 면접은 실무진 면접으로 공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관 4명 : 지원자 2명으로 한 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부드러웠고 압박 질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함께 면접관이 회사에 대한 소개와 부서의 특징을 짧게 설명해주며 면접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자마다 각기 다른 자소서 기반 질문을 하여 역량을 평가하였고 서로를 비교하거나 경쟁시키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이 자소서에 기재한 다른 제약회사에서의 인턴 경험을 위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 인턴으로 한 일
2. 엔도톡신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였는지
3. 무균세정액을 사용하는 이유
4. Bioburden 병 소독을 위한 온도와 시간
5. 워라벨에 대한 생각
6.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잡일에 대한 생각
7. 이화학 분석실험기기의 원리나 다뤄본 경험의 유무
8. GMP의 원리와 정의
9. AlCOA의 원리와 정의
10. DI의 원리와 정의

저와 함께 면접을 본 다른 지원자는 연구실 경험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질문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1. 1분 자기소개
2. 지원동기
3. 타지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잘 지낼 수 있는지
4. 회사나 부서에 대한 궁금증

- 2차 면접 (경영진 면접)

2차 면접은 경영진 면접으로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관 4명 : 지원자 2명으로 15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1. 1분 자기소개
2. 회사 지원동기
3. 부서지원동기
4. 예상 근무 기간
5. 타지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잘 지낼 수 있는지
6. 더 좋은 조건의 스카웃 제의를 받을 경우

- 준비 팁

제가 지원한 휴온스의 경우, 1차 실무진 면접의 비중이 2차 실무진 면접의 비중보다 훨씬 컸습니다. 많은 지원자 중에서 실무진 마음에 드는 지원자만 뽑아 2차 면접을 올려보내는데, 합격의 당락은 1차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2차는 통과 관문의 느낌이었습니다. 따라서 1차 면접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이

길 수 있는 인상을 남기고 2차 면접에서는 경쟁보다는 협업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표현하면 무난하게 합격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차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턴 경험이나 연구실 경험이 없더라도 학부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고, 그 자소서를 기반으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합격 할 수 있습니다. 인턴과 연구실 경험은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제공할 뿐이지 그것의 유무로 인한 합격의 당락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합격하고 면접관들에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열심히 작성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제약회사의 공장의 경우, 위치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짧고 신규입사자의 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차 면접을 보는 내내 면접관들이 그 점을 언급하며 지원자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후배님들도 이 점을 유념하며 자신이 정말 지방에서 지낼 수 있는가를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시고, 확신이 섰다면 이 점을 강하게 어필하면 분명히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지 못했던 게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체험해 본 것은, 지금 제가 남기고 있는 선배님들의 취업성공후기와 교내비교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취업 성공 후기를 보며 준비해야 할 방향을 정하고 교내비교과 프로그램 중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교내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대기업 인정성 특강과 취업강의를 들었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료로 모의 인적성시험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체험해보지는 못했지만, 학교에서 자소서 첨삭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밖에도 독취사, 잡프래닛과 같은 취업 커뮤니티와 제약회사를 지원하는 후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대모라는 커뮤니티도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프로그램이 많은데 제대모 커뮤니티에 공고가 많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 기타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요즘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인해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님들 혹은 동기들과 선배님들에게 조금의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취업은 정말 운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면접관들의 취향이라는 것이 대비한다고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 자신의 능력과는 별개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그러한 결과가 반복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더라도 자존감이 낮아져 자신의 부족으로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 좋게 먼저 취업한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운이 닿지 않았을 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애타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먼저 취업해도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없는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경력도 흔들리고 오히려 진로를 잃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잃지 마시고 목표했던 회사에 꾸준히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취업준비는 장기전이니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자신의 운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03

현장실습수기

01. 생명과학전공

학과 (학부)	생명과학전공		
실습 업체명	경방신약	실습기간	2022. 01. 10. ~ 2022. 06. 30.
공모작 제목	IPP 라는 다리 위에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1. IPP 지원동기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란 기존 기업 인턴, 현장실습 등 단기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4년제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 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입니다. 저는 휴학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정규학기를 끝낸 후, 뚜렷한 목표는 정해두지 않은 채 졸업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과 선배를 통해 IPP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그저 졸업 후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IPP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한 기업에서 탈락 후 IPP 담당 교수님께서 규모는 조금 작지만 비슷한 직무의 다른 기업에 지원해 볼 것을 권유해 주셨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두 번째로 지원한 기업에서는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 실습지에서의 주요 수행업무

제가 실습에 참여한 기업인 경방신약은 천연물 식의약품 대중화에 핵심 역할이 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한방의약품 제조업체이지만 자사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사의 의약품을 의뢰받아 생산하기도 합니다. 특히 양질의 천연물 원료 확보를 우선시하여 "TOTAL GMP SYSTEM"를 통해 엄격한 품질경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원수는 200여 명 이하의 중소기업이지만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성장 중인 기업입니다.

저는 경방신약의 품질경영 부서에서 품질관리(QC)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초 원료에 각종 공정(IPC)를 하고 원료의약품(API)에 부원료를 추가하면 제품이 됩니다. 이를 포장하고 출하하면 약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QC는 기초원료 실험, 공정 실험, 원료의약품 실험, 부원료 실험, 자재 실험, 제품 실험, 시판 후 안정성 실험, 미생물 실험 등을 하게 됩니다. 원료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초적인 원료들을 원료 약품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초원료 실험은 IR, UV, 수분 시험, 정성반응 등 이화학 실험이 많습니다. 공정 실험은 기초원료를 가지고 합성실에서 원료의약품을 만들면 단계별로 합성이 잘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API 실험은 공정이 끝난 후 만들어진 API를 HPLC, GC 장비들을 사용해 합성이 잘되지 않아서 함량이 부족하진 않은지 함량 또는 정량 실험을 하고 공정에서 건조가 잘되지 않아서 유기용매들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잔류용매 실험을 합니다. 또한 불순물이 있진 않은지 유연물질 실험을 수행합니다. 약은 100% 원료 의약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API를 보호하여 인간의 몸에 원하는 곳에서 소화되게 하기 위해서나 색감을 주기 위해서, 음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부성분을 첨가합니다. 부성분 실험도 각종 이화학 실험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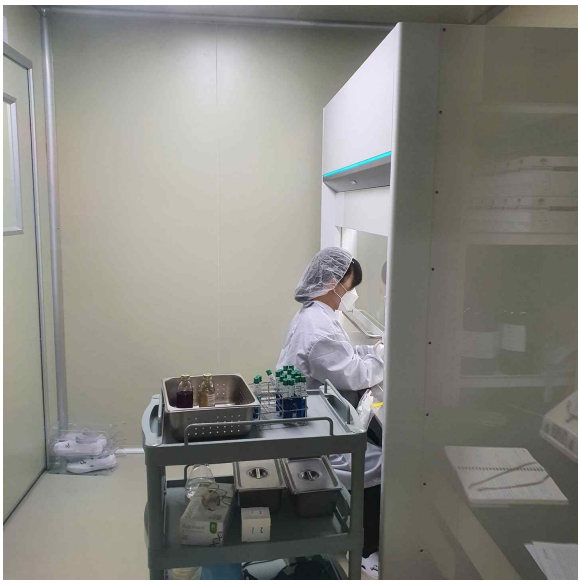


그림1. 미생물 한도시험

그림2. 원생약 확인시험

3. 실습 중 문제해결 사례

IPP를 통해 학교에서는 자주 다룰 수 없었던 다양한 분석 장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실험에 대한 숙련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습을 하면서 항상 원하는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차대로 실험을 수행하여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절차대로 실험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실험자의 미숙으로 인한 문제일 확률이 크므로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평가하며 원인을 분석하였고 자주 하는 실수를 총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약을 잘못 찾은 경우
둘째, 혼합의 순서, 가열의 유무 등 시액의 조제법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셋째, 방치 시간 등 작성된 시험법대로 시험하지 않은 경우
넷째, 능숙하지 않은 실험일 경우
다섯째,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위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시약을 정확히 확인한다. 화학물질은 다양하게 합성이 가능하므로 유사한 물질이라도 다양한 물질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의 정보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고유 넘버를 정하는데 이를 'Cas number'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Propanol과 Isopropanol처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시약의 경우 Cas number를 확인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약의 유효기간과 오염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원인을 찾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시액 조제법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약전 일반시험법에 시액 및 표준액 조제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조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황산 시액을 조제할 때 분무용, 몰농도, pH에 따라 조제방법이 달라지므로 이에 주의하며 실험에 임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약전에서 통칙을 찾아보고 용어를 이해한다.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를 수 있으니 통칙을 통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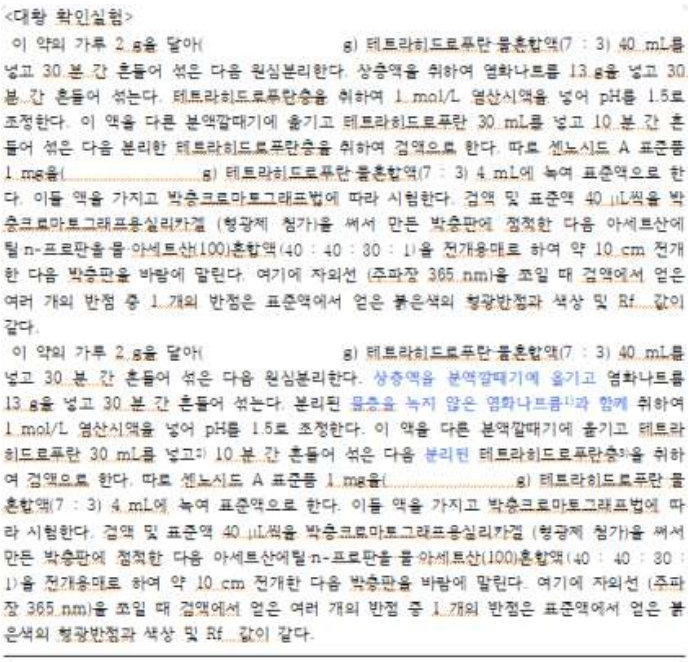
넷째, 이전 시험자, 경험이 더 많은 사람에게 물어본다. 먼저 위의 방법 순서대로 제 실험을 다시 확인한 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요약정리하여 이전 실험자에게 여쭤보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기업 내 지도 멘토님께 보고 후 실험자를 변경하였고 실험자를 변경

하여도 실험 결과가 비슷한 경우에는 실험자의 오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 실험을 통해 외부 요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확인시험 중 회사 내부의 시험법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1) 생약 샘플에 테트라히드로푸란·물혼합액을 넣고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한다. 2) 염화나트륨을 넣고 섞은 후 테트라히드로푸란층을 취하여 pH를 조정한다.
3) 이 액을 다른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테트라히드로푸란을 추가로 섞은 다음 분리한 테트라히드로푸란층을 검액으로 한다.

테트라히드로푸란의 비중은 0.88로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1)에서 취한 상층액은 생약 성분을 포함한 테트라히드로푸란층일 것입니다. 2)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염화나트륨을 넣고 섞은 후 가장 위에 분리된 테트라히드로푸란층을 취한다면 3)에서 분액깔때기에 옮긴 후에 추가로 테트라히드로푸란액을 섞어줄 때 2)의 테트라히드로푸란층과 3)에서 추가된 테트라히드로푸란액이 분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3)의 과정이 끝난 후 분리한 테트라히드로푸란층을 검액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지도 멘토님께 보고하고 조언을 얻어 여러 방법으로 실험을 다시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꼼꼼함으로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기존 실험 방법이 실험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정확한 용어와 실험 방법으로 시험법을 수정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황 확인실험>
이 약의 가루 2 g을 달아(g) 테트라히드로푸란·물혼합액(7 : 3) 40 mL를 넣고 30 분 간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한다. 상층액을 취하여 염화나트륨 13 g을 넣고 30 분 간 흔들어 섞는다. 테트라히드로푸란층을 취하여 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pH를 1.5로 조정한다. 이 액을 다른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테트라히드로푸란 30 mL를 넣고 10 분 간 흔들어 섞은 다음 분리한 테트라히드로푸란층을 취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센노시드 A 표준품 1 mg을(g) 테트라히드로푸란·물혼합액(7 : 3) 4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4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음 아세트산에틸·n-프로판올·물·아세트산(100)혼합액(40 : 40 : 3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365 nm)을 조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붉은색의 형광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이 약의 가루 2 g을 달아(g) 테트라히드로푸란·물혼합액(7 : 3) 40 mL를 넣고 30 분 간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한다. 상층액을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염화나트륨 13 g을 넣고 30 분 간 흔들어 섞는다. 분리된 물층을 녹지 않은 염화나트륨[1]과 함께 취하여 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pH를 1.5로 조정한다. 이 액을 다른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테트라히드로푸란 30 mL를 넣고[2] 10 분 간 흔들어 섞은 다음 분리된 테트라히드로푸란층[3]을 취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센노시드 A 표준품 1 mg을(g) 테트라히드로푸란·물혼합액(7 : 3) 4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4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음 아세트산에틸·n-프로판올·물·아세트산(100)혼합액(40 : 40 : 3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365 nm)을 조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붉은색의 형광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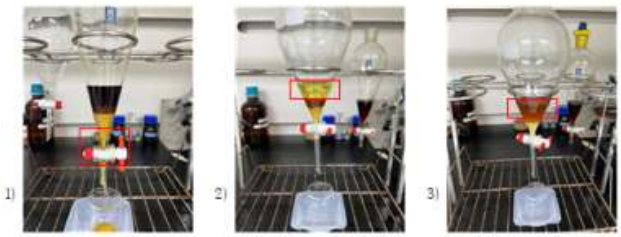


그림3. 시험법 수정 과정 중 일부.(위; 기존시험법, 중간; 수정 후 시험법, 아래; 관련 사진)

4. 실습성과 및 향후 진로 계획

지난 학교생활 동안 전공 수업의 이론을 실험 수업을 통해 확인하고 직접 행하는 과정을 가장 즐겁게 여겼습니다. 전공에 대해 실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왔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관리하는 것이 그 해답임을 IPP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행된 실험 중 혼란을 야기한 실험 방법을 찾아내어 실험 방법을 수정한 경험을 통해 기록하는 것이 품질관리 직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수정된 실험 방법을 부서에 공유함으로써 팀원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민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품질관리인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석 장비들을 다루며 학교의 제한된 커리큘럼을 넘어 보다 더 복잡하고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있었고 현직자에게 직접 듣는 경험과 노하우는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실무능력을 키우면서 전문적인 전공 지식은 턱없이 부족함을 깨달았고 실습이 끝난 후 기업에서 채용을 권유받았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관련 전공을 더 공부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석화학 및 실험'과목을 수강하며 분석화학의 특성 및 범위, 데이터 정리 및 확인, 정량분석, 정성분석, 기기 분석의 특징 및 방법을 알 수 있었으며 분석 연구의 기틀을 잡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분석화학 및 기기분석 분야의 제반 환경의 발전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춰 화학분석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품질관리 분야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게 IPP는 학생과 사회인의 경계에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다리는 각기 다른 공간을 하나로 이어주어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실습 중 담당 교수님의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피드백, 실습이 끝난 후에는 취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정보까지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기 전 학교의 든든한 지원 아래 실무 능력을 기르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IPP를 마친 후 당장 눈에 띄는 큰 성과를 얻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봤을 때, 졸업 후 취업에 대해 회피하는 마음으로 IPP를 지원했던 저는 이제 제 약점을 저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점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여 그 약점을 보완해 나갈 방법을 생각하는 힘을 길렀으며 저만의 논리와 자신감으로 취업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학우 분들이 있다면 꼭 IPP에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과 (학부)	생명과학전공		
실습 업체명	국립생물자원관	실습기간	2021.07.26. ~ 2021.08.20.
공모작 제목	바이오 산업을 향한 꿈과 그 첫걸음에 대한 이야기		

갓 20대가 된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은 열정을 가진 저는 오랜 바램이었던 세계여행의 꿈을 이루기 위해 휴학을
결심하였습니다. 1년간 스스로 세계여행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배운점은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0대 동안 상상하던 여행자로서의 저의 모습 은 의지와 행동이라는 마법을 만나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힘만 있다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처음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대학생활을 마쳐갈 때 즈음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선배 들은 모두 각자의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 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무엇을 하며 먹고살 것인지 현실적인 고민을 처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막하기만 하던 그 때 저는 그동안 단기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일을 직접 해보며 적 성을 찾는 것이 저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인턴이나 현장실습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교내 취업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였고 전공 관련 교내 세미나와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교내 Boinano degree 강의를 통해 바이오산업이 미래 유망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품질관리와 품질보증이라는 직무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내 취업 상담을 통해 바이오 분야 취업을 위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 다. 그중 하나였던 국립생물관의 현장학습을 저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감사하게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부서인 미생물자원과 미생물보전팀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제가 현장실습을 진행한 실험실에서는 독도의 곰팡이를 채집하고 분석하여 새로 운 미생물종을 찾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생물에서 새로운 특 성을 발견해 산업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생물을 배양할 배지를 제조하고 미생물을 분리 및 배양했으며 DNA를 추출 하여 분석과 동정하는 전반적인 실험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미생물의 특성상, 사 소해 보이는 모든 실험과정을 꼼꼼히 진행해야 했습니다. 처음 곰팡이를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했을 때 저는 모든 과정을 완벽히 진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제가 분리한 곰팡이 배지를 확인했을 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분리를 진행한 배지 중 절반 정도에 오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 째로 배운 것은 실험을 진행하는 속도가 아니라 실험과정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박사님의 조언을 따라 특히 멸균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다시 곰팡이를 분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코올 스프 레이를 이용해 소독하는 것보다 알코올램프를 이용해 도구를 소독하는 것이 시간 은 조금 더 오래 걸리지라도 확실히 멸균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실험 전 실험장소를 소독하고 중간중간 실험 도구를 멸균하는 것을 습관화하기 위해 노 력하였고,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현장실습을 통해 다양한 실험기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익혔습니 다. 실험과정에서 PCR과 전기영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기 작동법을 익혀야 했습니 다. 저는 각각 바이오니아사의 real time PCR과 고리에이스과학사의 전기영동기기 를 사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기기 모두 학교 실험강의 때 배웠던 것 외의 주 의점이 있었습니다. real time PCR을 사용할 때는 제가 사용하는 DNA의 종류에 따 라 설정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여야 했으며 PCR 튜브의 벽면에 기포가 있는지 확인 하여 spin down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전기영동을 위해 gel을 만 들 때 tank buffer와 같은 퍼센트 농도의 buffer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오차의 주요 원인임을 깨닫고 이를 수정하며 예

측된 실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는 경 험을 통해 실험과정에 더욱 익숙해졌습니다. 기기를 적절히 다루는 능력은 현재 제 가 목표로 하는 품질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역량입니다. 생명과학 실험에서 가장 널 리 쓰이는 두 기기를 다뤄봄으로써 기기 사용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 니다.

세 번째로 실험실에서 근무할 때 가장 중요한 실험실 안전 사항에 대한 주의를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험실에 온 첫날, 박사님께서는 가장 먼저 실험실 안전에 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실험실에는 독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며 화상과 자상의 위험이 있는 실험 도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는 동안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안전 수칙을 습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현장실습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약 품질관리를 저의 희망 직무로 설정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현장실습 동안 저는 미생물을 이용한 실험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실험과정에서는 집중력이,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꼼꼼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는 데에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을 몸에 익히고 집중하며 점점 오차를 줄여나가는 데 성공하게 되었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가 점점 예상과 비슷한 수치가 나와 박사님께서 칭찬해주셨을 때 큰 보람을 느꼈 습니다.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실험실에서의 업무가 저의 꼼꼼한 성격과 체계적이 고 예측 가능한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저의 성향과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약 품질관리를 저의 목표로 설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깨달음입니다. 사실 저의 현장실습은 2021년 1월 동계에 진행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다음 차수인 7월 하계에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갑작스레 나타나 급격히 전세 계로 퍼지는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실감하였습니다. 저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 작스레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이것이 향후 바이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박사님께 질문을 드렸고, 함께 이를 주제로 대화 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대화로 저는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박사님은 세계화는 양면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운송이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바이러스의 이동도 쉬워졌습 니다. 막대한 양의 육류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축의 양이 늘었고, 이로 인해 생 물다양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야생동물을 숙주로 하던 바이러스는 점점 가축에게 옮 겨가기 시작해 인간에게 도달하기 더욱 쉬워졌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전 세계적인 창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바이오산 업은 세계화된 세계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산업에 이바 지함으로써 세상을 더욱 건강하고 이롭게 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며 제가 느낀 불편함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내 교육봉사 동아리에서 1년간 활동하면서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내 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타인이 잘 할 수 있고, 타인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더욱더 발전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실습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목적으로 생물자원관 측에서 서 로 대면하는 것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다른 동기들과 협력을 다질 기회 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공유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SNS 메시지로 합격명단에 있는 번호를 통해 각 동기에게 연락해 SNS 단체방을 만드는 것이 어떠 한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흔쾌히 동의해 주었고, 저는 SNS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친분을 다지기도 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공유하며 각자의 현장실습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동기분은 본인이 하는 업 무가 다른 부서에 비해 단순하고 반복적이기만 하다는 것을 깨달아 멘토분께 요청 해 다른 부서로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 일일 실험보고서 를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일일 실험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익히고 싶다는 것 을 박사님께 요청해 실험보고서 작성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 는 장을 만들어 모두에게 더욱 발전적인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뿌듯함

을 느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저는 실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배우고 기 술을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실험실에 온 첫날 혹여나 제가 실험실에 폐를 끼치게 되는 일은 없을지, 실수하는 일은 없을지 고민하며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주어지는 작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자신감이 쌓여 가는걸 느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약 품질관리 업무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한 축 을 담당하고자 하는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제약과 관련한 자격증인 화학 분석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며, 또 다른 현장실습과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 니다. 이번 현장실습 경험은 다음 직무 경험을 위한 탄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관련 사진	
곰팡이 분리, 배양 과정	전기영동 결과
분리, 배양한 곰팡이 예시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곰팡이 포자

학과 (학부)	생명과학전공		
실습 업체명	극지연구소	실습기간	2020. 07. 13. ~ 2020. 08. 24.
공모작 제목	나의 진로에 대한 트러블 슈팅		

내가 실습한 곳은 극지연구소로 주로 극지에서 미생물들을 추출해와 동정 및 분석을 하고 이를 응용하는 연구를 하는 곳이다. 6주 동안 주로 한 업무는 선생님께서 미생물 표를 주시면 그 미생물들을 접종 및 배양, genomic DNA extraction, 겔을 만들고 전기영동을 한 후 nanodrop을 이용한 확인 및 데이터 정리를 하는 것 이었다. 극지에서 가지고 온 여러 미생물들을 분석하여 응용 및 활용 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이었다. 그 밖에도 배지 만드는 법, autoclave 사용법 등 실험실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다.'각 배양배지의 특성 및 활용의 예', 'Amylase 효소에 대해', 'DNA extraction kit' 등 내주신 과제를 중간중간 하면서 실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자주 사용되는 배지를 정리한 프린트를 받아 읽어보면서 모르는 배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주로 사용되는 peptone에 대해 선생님께 질문하는 등 최대한 하고 있는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서 접종 및 배양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미생물을 삼각플라스크에 배양하였는데 보통 100ml짜리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다. 하지만 실험실에 있는 삼각플라스크를 모두 다 배양하는데 사용하여 50ml짜리 플라스크도 사용하게 되었다. 배양 시 플라스크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양이면 상관없다고 하셨기에 그렇게 진행하였다. 3주만에 267개 이상의 미생물을 접종 및 배양하면서 선생님께서 실험 속도가 빠르다고 칭찬해주셨고 이 실험 업무에 대해 더 큰 애정을 가질 수 있었다.

실습을 진행하면서 배운 것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트러블 슈팅, 전통적인 배지 제작, 변인 차이로 인한 실험결과 차이다.

트러블 슈팅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은 genomic DNA extraction을 할 때였다. 선생님께서 genomic DNA값이 비교적 더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2ml씩 추출하였으나 4ml씩 추출하는 식으로 중간에 변경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였다. 또한 처음에는 해당 회사 제품의 kit를 이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였지만 washing buffer를 다 쓰게 되어 이틀정도 다른 회사 제품의 washing buffer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nanodrop의 결과값들을 보니 2ml씩 원래 kit의 washing buffer S.B를 사용했을 때가 전체적으로 결과값들이 더 잘 나왔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DNA 손상을 일으켰을 수도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선생님께서 내가 한 과정이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셨다. 이는 즉, 실험에 문제가 생겼다면 가설을 세우고 통제변인과 종속변인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다룬 미생물의 양의 문제인지, 사용한 buffer의 문제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뽑아야 할 미생물들이 많아 각 미생물들의 최적 상태에서 다루기보다는 총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차이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많은 양의 미생물들에서 genomic DNA를 뽑았다고 해서 꼭 데이터값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개의 미생물을 정하여 2ml와 4ml를 각각 뽑아 nanodrop으로 확인해보았다. 실험 결과 2ml보다는 4ml의 데이터값이 더 잘 나왔으므로 그대로 4ml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washing buffer를 같은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것을 써서 결과값이 잘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선생님과의 상담 후 키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하였던 전통적인 manual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 과정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더 나은 결과도출을 위해 실험을 정정하는 법을 배웠다.

시약 재료들을 찾아서 배지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은 나에게 큰 성취감을 줬다. 보통은 시약이 따로 만들어져 있기에 배지를 만들 때 해당 양에 따른 시약을 넣고 만들면 된다. 하지만 어떤 하루 ISP4(D.W)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험실에 있던 시약은 agar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 시약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재료들을 통해 직접 만들어야 했다. 그 재료들을 모으는데 뒤에 붙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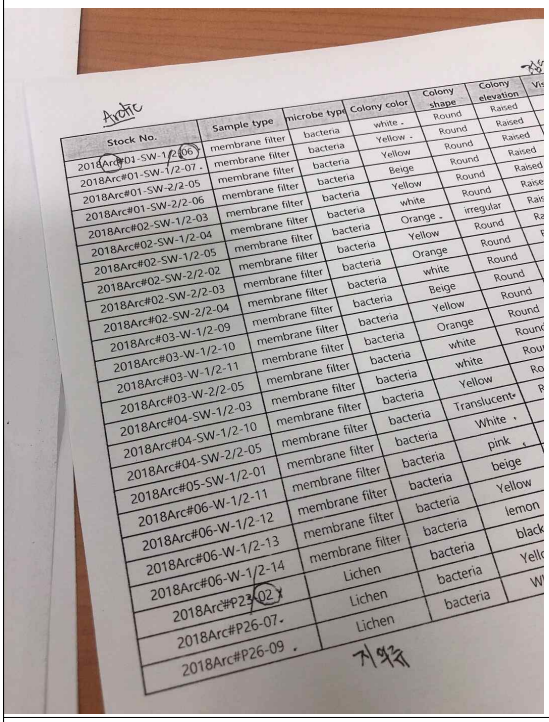
heptahydrate 등의 화학식 이름이 달라 헤매고 있던 당시 다른 실험실 박사님께서 보시더니 이건 화학식을 일일이 검색해 알아낸 다음 재료들을 모아야 한다고 하셔서 바로 그렇게 진행했다. 긴 작업이 되었지만 ferrous sulfate와 manganous chloride, 이 2개를 빼고 모든 재료들을 다 찾을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도 이 재료들을 찾으시다가 현재 실험실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고 다음에 배지를 만들자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때까지 나머지 시약들을 찾았던 노력이 아쉽게 느껴져, 찾지 못한 두 재료를 빼고 미리 가루 시약을 만들기로 하였다. 만들던 중 다른 부서 선생님께서 ferrous sulfate는 FeSO4.7H2O인데 이는 Iron(2) sulfate heptahydrate와 같은 것이라 말씀하셨다. 따라서 이 재료는 찾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maganous chloride만 찾으면 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화학식 H2O 앞 계수가 7이어야 하는데 현재 있는 재료들 중에서는 4인 것 밖에 없었기에 선생님과 이를 계산하여 넣어야 하는 그람수를 구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재료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약이 없을 때 배지를 만드는 법과 화학식을 계산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변인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배양하는 물품에 따라 배양 정도가 달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배양을 플라스틱 튜브에 하라고 알려주셨고 일주일 동안은 그 튜브에 접종 및 배양을 진행하였다. 보통 2-3일이면 어느정도 자라서 육안으로도 뿌옇게 확인이 가능하나 접종했던 대부분의 미생물들의 성장 속도가 더디었으며 몇몇은 거의 자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 박사님께서 튜브에 접종을 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 하셨고, 다음부터는 삼각플라스크에 호일을 감싸서 접종 및 배양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산소 투과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튜브의 경우 뚜껑으로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열어두었다 해도 삼각플라스크 입구를 호일로 감쌌을 경우와 큰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실험을 할 시 하나의 변인 차이가 그 실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 극지연구소 실습을 시작할 때는 그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전공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의 과목들에 흥미를 느꼈기에 내 진로를 구체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일단 직접 일을 경험하면서 나와의 적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마음으로 임하였다. 실습을 진행할수록 이 분야가 적성에도 맞고 흥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느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여러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빨래 세제에 관해 설명해주셨다. 보통 세탁을 할 때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 온도를 높게 설정하고 세탁기를 돌린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세제에 들어있는 효소는 높은 온도에서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지에서 사는 일부 미생물 안에 들어 있는 효소는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활성도를 띄었고, 이를 이용하여 굳이 물 온도를 높일 필요 없이 깨끗하게 세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소에 대해 연구 중이었다. 나는 내가 속해있는 실험 뿐만 아니라 함께 실습하는 친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를 교환하였다. 옆에 다른 부서에서 실습하는 친구를 통해 저온환경 내에서 토양 유기물의 미생물적 분해경로에 대한 생화학적, 유전학적 연구에 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이를 통해 여러 미생물들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응용하여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다.

며칠 전에 극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미세조류의 냉해 저항성 생리 실험 아르바이트 모집공고가 올라왔다. 작년 여름 실습을 인상 깊게 참여했기에 바로 지원을 하였고 1차에 합격하여 면접을 보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작년 실습 이후 Cell이나 Plant and Cell Physiology 등 학술지를 찾아보며 관련 기사가 뜨면 읽어보곤 한다. 공지해주신 업무 내용인 극지 미세조류 냉해 저항성 관련 내용을 작년 뉴스기사로 처음 접하여 조성미 박사님의 논문을 찾아보았었는데, 이렇게 모집공고를 뜨는 것을 보며 평소 관련 지식에 관심을 가지며 찾아보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작년 극지연구소 여름 실습을 통해 얻은 공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생명과학

도로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과정 중 이곳 극지연구소에서의 배움은 더욱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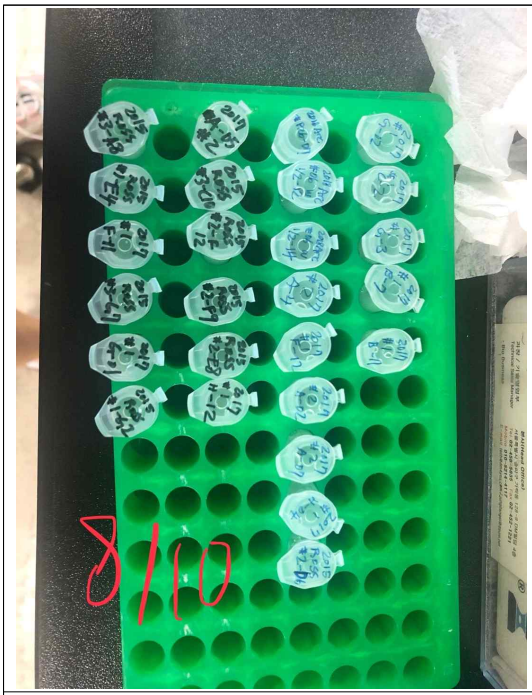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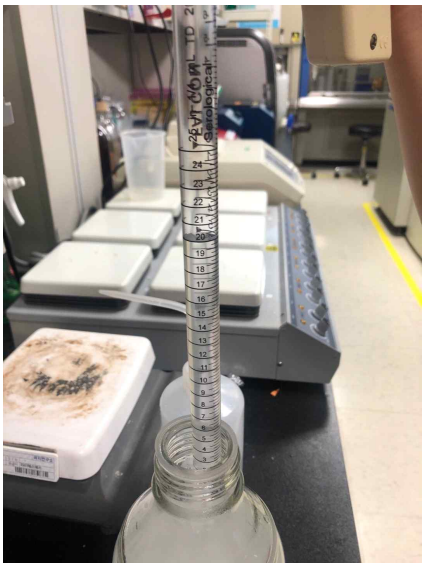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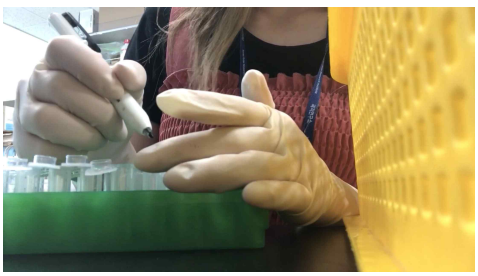
Stock No.	Sample type	microbe type	Colony color	Colony shape	Colony elevation
2018Arc#01-SW-1/2-06	membrane filter	bacteria	white	Round	Raised
2018Arc#01-SW-1/2-07	membrane filter	bacteria	Yellow	Round	Raised
2018Arc#01-SW-2/2-05	membrane filter	bacteria	Yellow	Round	Raised
2018Arc#01-SW-2/2-06	membrane filter	bacteria	Beige	Round	Raised
2018Arc#02-SW-1/2-03	membrane filter	bacteria	Yellow	Round	Raised
2018Arc#02-SW-1/2-04	membrane filter	bacteria	white	Round	Raised
2018Arc#02-SW-1/2-05	membrane filter	bacteria	Orange	irregular	Raised
2018Arc#02-SW-2/2-02	membrane filter	bacteria	Yellow	Round	Raised
2018Arc#02-SW-2/2-03	membrane filter	bacteria	Orange	Round	Raised
2018Arc#02-SW-2/2-04	membrane filter	bacteria	white	Round	Raised
2018Arc#03-W-1/2-09	membrane filter	bacteria	Beige	Round	Raised
2018Arc#03-W-1/2-10	membrane filter	bacteria	Yellow	Round	Raised
2018Arc#03-W-1/2-11	membrane filter	bacteria	Orange	Round	Raised
2018Arc#03-W-2/2-05	membrane filter	bacteria	white	Round	Raised
2018Arc#04-SW-1/2-03	membrane filter	bacteria	white	Round	Raised
2018Arc#04-SW-1/2-10	membrane filter	bacteria	Yellow	Round	Raised
2018Arc#04-SW-2/2-05	membrane filter	bacteria	Translucent	Round	Raised
2018Arc#05-SW-1/2-01	membrane filter	bacteria	White	Round	Raised
2018Arc#06-W-1/2-11	membrane filter	bacteria	pink	Round	Raised
2018Arc#06-W-1/2-12	membrane filter	bacteria	beige	Round	Raised
2018Arc#06-W-1/2-13	membrane filter	bacteria	Yellow	Round	Raised
2018Arc#06-W-1/2-14	membrane filter	bacteria	lemon	Round	Raised
2018Arc#P23-02	Lichen	bacteria	black	Round	Raised
2018Arc#P26-07	Lichen	bacteria	Yellow	Round	Raised
2018Arc#P26-09	Lichen	bacteria	White	Round	Rai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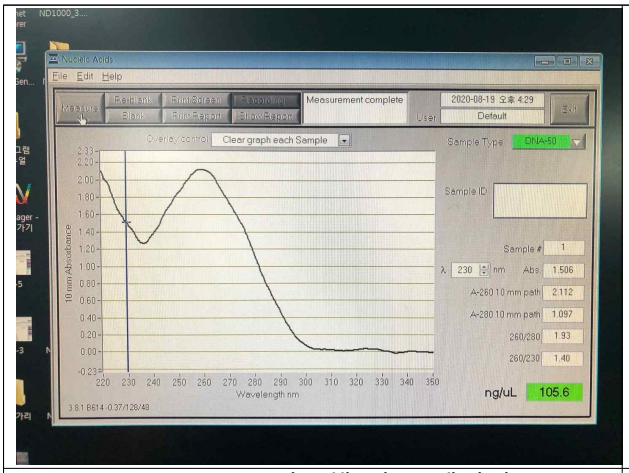
미생물표

전기영동을하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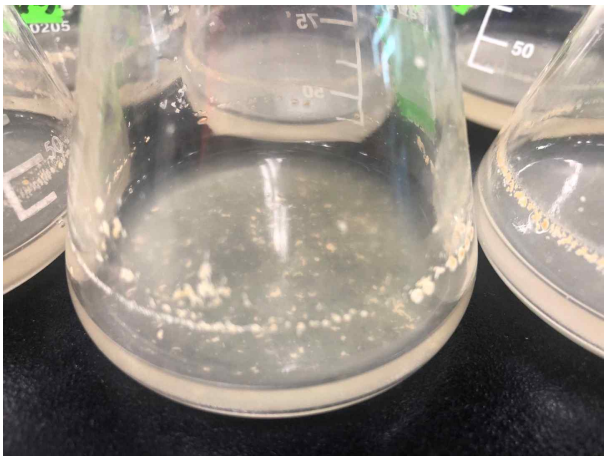
ISP4(D.W)배지 재료

배양해야할 미생물들

	
<< 8/10 추출한 DNA	파이펫 사용
	
배양한 미생물들 중 DNA extraction완료한 것들	미생물 down시키는 과정



nanodrop을 이용해 나온 데이터



접종 후 배양된 미생물들

배양실 모습

극지연구소 출입증

02. 분자의생명전공

학과 (학부)	분자의생명전공		
실습 업체명	한미정밀화학	실습기간	2021. 07. 01. ~ 2021. 12. 31.
공모작 제목	매일을 채우고 내일을 그리다		

현장실습에 호기심을 가진 건 3학년 때 참여한 학과 온라인 축제였다. 비대면으 로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을 접했고 한 선배의 영상에서 회사와 그 부서, ipp 프로 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축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영상은 사라졌지 만 내 기억 속엔 여전히 선배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결국 용기를 내서 선배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필요한 몇 가지를 물어볼 수 있었다. 나는 회사와 ipp 사업에 대 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다가올 기회에 대비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순간의 용기는 한해의 바람이 되어 나를 움직였다.

2021년 7월, 면접에 합격하고 마주한 회사의 느낌은 거대하고 웅장했다. 처음 접 한 사람들과 환경으로 인해 몸에는 절로 힘이 들어갔다.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실수에 대한 걱정이 나를 지배했고 한동안 감을 못 잡은 채 눈치만 엄청 살피고 있었다.

"너무 부담갖지 마세요. 회사는 여러분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분은 사내 에 활력, 생동감만 주면 됩니다."

멘토였던 팀장님이 해주신 말이다. 자신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 말을 듣고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인사하기, 바른 자세 유지하 기, 무엇이든 배우기. 그리고 질문하기. 사람들과 가장 쉽게 친해지는 방법이자 신 입사원의 특권, 질문. 가벼운 마음으로 참 많이, 다양하게 물어봤다. 덕분에 나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어느 순간 '물음표살인마(너무 많은 질문으로 선배들 을 괴롭힘)'라는 영광스런 칭호까지 얻을 수 있었다.

교육이 끝나고 실습에 돌입하자 업무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가끔 일의 순서 가 뒤바뀌는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업무처리 방법과 중요도에 대해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기간 때 받아두었던 다이어리를 펼쳤다. 회사생활의 지침서 였던 다이어리가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이때부터였다. 실험실에서 발생한 실수를 회사에선 이벤트(event)라고 불렀다. 한번 이벤트가 발생하면 담당 감독관에게 보 고한 후 이벤트 보고서 작성 및 기록, 대리님과 팀장님의 결재 등의 복잡한 절차 를 기다려야 했다. 업무 중 첫 이벤트는 Karl Fisher Titration(수분측정) 기기를 다 룰 때 발생했다. 다시 실험을 진행하면 되는 간단한 실수였지만 절차가 진행될 동 안 이벤트 발생 이유를 묻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감독관님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야 이벤트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실수와 함께 교훈을 얻은 나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수행한 업무와 그의 이상한 점, 궁금한 점 등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 이 날 때마다 선배들을 찾아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텅 비어있 던 다이어리가 질문과 대답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원래의 나는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에 익숙했다. 과제든 발표든 혼자가 편했고 학 교 안에서 그게 어느 정도 통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내 다이어리만 봐도 누 군가 알려준 정보가 대부분이고 그 정보가 있어야만 내가 움직일 수 있었다. 회사 에서는 다른 문서를 외부로 보낼 수 없다. 보안상의 이유인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반출'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 날은 학교로 급하게 보내야하는 서류가 있 었다. 퇴근 전에 문서를 보내려는데 반출하는 방법을 몰랐다. 헤매고 있자 여기저 기서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인 만큼 다들 경험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건너 편 대리님이 합류했다. 대리님과는 말도 많이 안 해봤는데 다 짜고짜 도움을 받자니 꽤 민망했다. 퇴근시간은 이미 지났고 집으로

가는 버스의 출발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리님 역시 그 버스에 올라야만 퇴근이 가능했다. 죄송함과 다급함 속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일분이 십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나 서야 문서는 전송이 되었다. 절차에 따라 학교까지 잘 도착했고, 대리님도 다행히 정상 퇴근하셨다. 나는 미리 시간계산을 하지 못하고 상황을 곤란하게 만든 스스 로에게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반출을 이용할 일은 없었지만 난 아 직도 버스로 뛰어가는 그 뒷모습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 다. FT-IR Spectrophotometer(적외부 스펙트럼측정) 기기에 적용되는 Mull법 실험 이라는 것이 있다.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라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나 는 입사하자마자 교육을 들은 바가 있었다. 직접 실험을 해봤고 방법 또한 잘 적 어두었기 때문에 이를 안 선배 한 명이 같이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왔다. 처 음 받는 부탁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잘 알려드릴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옆 에서 보기만 해달라는 말에 승낙을 했다. 막상 부딪히고 보니 혼자 몇 번 해본 적 이 있는 실험이었다. 실험 도구, 시약들에 익숙하고 방법 또한 간단했다. 생각보다 쉽게 설명을 이어갔고 업무가 무리없이 마무리 되었다. 그 일에 많은 신경을 쓰진 않았다. 그러나 나의 작은 도움을 받은 선배는 큰 감동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 다. 이런 일들을 겪고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도움을 주 고받으며 일하는 것이 의미있는 직장생활임을.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끔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잡아줄 줄도 아는 사람이 멋진 직장인임을. '협력'이 다이어리 한 칸을 차지하게 되었다.

실습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었다. 복잡한 실험과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머리가 아플 것 같았지만 정작 가장 곤란했던 업무는 청소였다. 업 무를 하기에도 바쁜데 청소까지 열심히 하려니 매주 청소의 날인 목요일은 시간 이 늘 부족했다. 내가 맡은 구역은 칭량실, 즉 저울의 청결에 힘쓰는 역할이었다. 각자의 구역을 청소하기 전에 다같이 쓰레기통을 비워야 했는데, 그날은 쓰레기를 버리고는 다른 곳에 있었다. 밀린 업무를 생각하느라 저울을 깜박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선배님이 주의를 줬고 덕분에 나는 칭량실 청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매주 선배의 감시가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억울하기도 하 고 당장의 업무가 많은데 꼬박꼬박 시간을 내려니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후 바로 실험실 내 원격 실사가 진행되었다. 공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예전에 한번 실사 결과로 칭량실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모든 실험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저울이었다. 실제로 실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검사하는 곳도 칭량실이었다. 나는 저울 청소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다시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누 가 보지 않아도 구석구석 닦고 털었다. 그리고 그때는 잠시 운이 나빴다고 여겼지 만 실습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 선배의 감시에 이내 깨달았다. 안일한 순간이 불행 한 최후를 낳는다.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 다이어리에 '지혜'가 들어섰다.

말이 나와서인데 제약회사에서의 경험으로는 실사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큰 행 사이자 기업 신뢰의 척도. 이 회사가 안전하고 믿을만한 환경인지 조사하는 과정. 바로 이 실사가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나에게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 다. 다이어리에도 유독 빨갛게 표시된 그날은 해외 고객사의 실사가 있던 날이었 다. 실사자가 모두 외국인이었기에 대리님 한 분이 대응에 나섰다. 평소 영어를 잘하시기로 소문난 분이셨는데 직접 투어를 진행하시니 생소하기도 하고 멋있기 도 하고 아무튼 사람이 다르게 보였다. 유창하게 대화하며 간간히 보이는 여유까 지. 멀리서 봐도 실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영어의 중요성 을 알게 되었다. 물론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희망하는 부서 에서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다. 실사가 끝나고 팀장님께서 지적사항과 검토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다. 그리고는 대리님의 대응을 칭찬하셨는데 정작 대리 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다. 그 장면을 보다 문득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 사람. 가진 능력으로 팀의 부족 을 채워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다이어리에 그린 것은'꿈'이었다.

인턴생활도 슬슬 익숙해지던 하반기, 7년 동안 회사에 재직하던 선배 한 분의 퇴 사를 지켜보고 뒤

이어 나 역시 실습을 종료했다. 정든 팀원들과 인사를 했고 몸에 익은 생활도 끝이 났다. 도와주던 선배도, 이끌어주던 멘토도, 질문을 던지는 환경 도 이제는 없다. 그러나 짧은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양한 감정을 겪었 다. 모든 것이 다이어리에 남았고 배움이 남았으며 내일이 남았다. 그래서 아쉽지 않다. 후회도 없다. 이 경험으로 나를 채울 수 있어서 좋았고 인생을 그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학과 (학부)	분자의생명전공		
실습 업체명	극지연구소	실습기간	2020. 07. 13. ~ 2020. 08. 21.
공모작 제목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현장실습을 하기 전까지 저는 많은 불안감을 지닌 채 지내왔습니다. 곧 졸업을 앞둔 시기였지만, 막상 여태껏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니, 그저 평범하게 학교생활만을 해왔을 뿐, 전공 관련 직무나 대외활동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단조로운 삶에 전환점을 주기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도전하여 1년간 타지에서 지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중도 귀국하게 되며,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허탈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막막함으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때마침 여름방학동안 현장실습 참여자를 구한다는 학과 공지를 보게 되었고, 이대로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던 저는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공 관련 직무를 체험하고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실습을 하기에 앞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선, 속하게 된 팀 내에서 단순히 실습생이라는 역할을 넘어 구성원으로서 조직생활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매 주 진행되는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와 전공지식을 습득하고, 앞으로 진로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실습을 통하여 정해진 목표들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갈 수 있었으며 전공지식과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팀 내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능력 또한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 해 나갈 수 있었고 많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습했던 극지연구소는 극지의 지질환경, 극지생물의 생명현상과 환경적응 기작, 기후변화가 극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 것과 같이 극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기관입니다. 저는 극지연구소에 존재하는 여러 부서 중 극지생명과학연구부의 미생물 생태팀에 속해 실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습 당시 부서에서는 극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생물들 중 지의류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된 샘플을 통해 생태계 내에서의 상호작용, 분류와 계통, 종의 구성 등에 관한 연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로 채집된 미생물을 배양하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 준비와 시약 정리와 같은 간단한 작업부터 시작하여 온도, 항생제 저항성, pH 등 미생물 성장에 관한 생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에 쓰일 미생물 배양배지 제작과 미생물의 계대 배양, 성장이 완료된 미생물 균의 계통을 확인하기 위한 DNA 추출과 pcr, 전기영동 및 투고 예정 논문의 참조용 자료 정리 등과 같이 다소 복잡한 작업까지 전반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재료 준비와 시약정리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업무들은 학교 전공 및 실험 수업을 통해 얻은 기초적인 지식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낼 수 있었지만, 실험 시 쓰이는 복잡한 기계들을 다루거나 기본적인 실험에서 나아가 여러 가지 응용을 거쳐진 실험을 준비하고, 업무에 쓰이는 복잡한 전공용어를 이해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실험에 쓰이는 다양한 기계들이 작동하는 원리와 여러 전문적인 업무용어들, 또한 실험용 프로토콜들을 꼼꼼히 숙지한 후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업무 중 틈이 날 경우나 업무 외 시간에도 틈틈이 전공 서적과 자료 검색을 통해 부족한 전공 지식들과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업무 중 모르는 개념이나 용어가 등장하면 메모한 뒤, 선임 분께 여쭤보거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한 후 정리하여 부족했던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가 있기 전에는 항상 어떤 준비와 과정을 거쳐야 실험과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또는 벌어질 수 있는 예상치 못 한 상황들과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기도

하였고, 이는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습을 하며 다양한 업무를 접하다보니 처음 해보는 일도 많았고, 그만큼 스스로 부족한 부분도, 모르는 것도 많았습니다. 실습 전에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일에 익숙해지기까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으나, 실제 업무를 진행하니 혼자 힘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 존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업무진행에 있어 확실하지 않은 점은 바로바로 동료와 선임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데 있어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미팅시간 및 점심시간을 활용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지도록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실습을 통해 전공 공부로만은 체험해 볼 수 없는 실질적인 업무를 경험하고 새로운 전공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내가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은 무엇일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저의 짧았던 생각은, 연구기관의 특성 상 혼자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모든 것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해도 된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업무 결과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나의 생각은 명확히 전달하고, 남의 의견은 단순히 경청하는 것을 넘어 이해하는 의사소통 방법과 상호작용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여러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담당해주시는 박사님들과 선임분께서 해주시는 조언을 통해 여러 가지 진로들을 새로이 알게 되었고,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까지 과연 내가 택한 전공이 내 적성에도 부합할까하는 불안과 걱정을 지녔지만 실제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경험해보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즐거운 마음으로 흥미와 보람을 느끼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실험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분석하는 연구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많은 매력을 느꼈으며, 실습 전, 막연히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분야를 정립하고 학문을 연마하여 대학원에 진학 할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 저는 뜻밖에도 담당해주시던 박사님의 권유로 인해 여전히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습을 통해 얻은 여러 가지 업무 지식에 더하여 더욱 더 새롭고 심화된 업무들을 경험 하고 있는 중이며, 그만큼 더 많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기현장실습이지만 얻어가는 게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얻어낸 값진 경험이 단지 훗날 쓰이게 될 지원서에 적혀질 몇 줄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을 하며 단순히 업무적 수준의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첫 발을 떼기도 하였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 언제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저를 한층 더 성장시켜줄 뜻밖의 좋은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취소된 후, 그저 좌절감에만 휩싸여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저 끝나지 않는 고민만 지닌 채로 시간을 낭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의 행동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가보지 못 했던 새로운 길로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실습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고, 나 자신의 성장은 물론, 보람과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 현장실습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림) 생리적 특성 test용 배양배지 모습

그림) 준비된 배지에 실험용 미생물을 배양하는 모습

학과 (학부)	분자의생명전공		
실습 업체명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실습기간	2020. 09. 01. ~ 2020. 12. 31.
공모작 제목	현장실습, 하나의 전환점이 되다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4개월간 근무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및 생산 (CDMO) 전문 글로벌 기업이다. 실습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인이 근무하였던 부서가 기업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QC(Quality Control)팀, 그 중 Testing&Capacity Planning 부서의 주된 업무는 QC 실험에 사용되는 자재(QCM)를 구매하고 LIMS(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상 등록하며, 신규물질에 코드를 부여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이 중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규물질 코드 등록, 자재 입출고 지원, 시약 등록, QC 바인더 Archiving, QC shipping 관련 문서 작성.

위와 같은 업무내용의 실습을 통해, 자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신규 물질을 구매하여 실험에 사용하려 할 때, 해당 물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등록된 자재가 구매되어 입고되었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 LIMS에 재고가 등록되고 관리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SOP상 지정된 폼은 반드시 GDP를 지켜 작성되어야 하는데, 실습 전에는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해보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실습 기간 동안 기본적인 작성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 신분이 아닌 (애초에 인천대학교 실습생 자격으로 임하긴 했지만) 회사원으로써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나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대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조직생활의 방식, 기본적인 메일 작성법이나 대화할 때 적합한 화법 등을 조금이나마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 평균 연령이 30세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젊은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게다가 함께 근무했던 T&C 부서 분들이 늘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 하신 덕분에 조직에 적응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부서원 간 의견 차이가 생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부서 내 미팅을 진행하여 의견을 맞춰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부서 내 미팅뿐 아니라 타부서와의 미팅에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회사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며 그것을 맞춰나가는 소통능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느꼈다.

본인은 인턴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반드시 멘토님 혹은 다른 부서 분에게 검토를 받은 후 수행해야 했다. 처음에는 이런 업무 방식이 다소 수동적이며, 다른 업무로 바쁜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을 보며,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부서 내 업무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민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업무가 능숙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기본적인 업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실습 참여 이전에는 '제약 기업의 QC 업무' 라 하면 실험 업무가 전부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품질 관리'라는 의미의 Quality Control 에는 실험뿐 아니라 자재 관리, 자재 구매, 샘플 관리, 장비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본인은 처음 실험실 지원 업무로 현장실습에 지원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실험실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실험실에서의 경험을 쌓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T&C Planning 이라

는 예상 외의 부서에 배치되게 되었다. 해당 부서에서는 QC 실험에 사용되는 자재들의 구매를 담당하고, 구매한 자재가 회사에 도착하면 입고 및 출고 처리를 진행한다. 또한 신규 물질에 대한 코드를 등록하고, 고객사로부터 배송되는 일부 제품의 전달 및 등록 업무를 진행한다.

실습 초기에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사실상 기대했던 실험실 업무와는 거의 무관한 업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실험실에 출입할 일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T&C 업무를 포함한 전체 QC 업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자재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의약품의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의약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지려면 실험 자재를 구매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며, 구매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재를 GMP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기존 자재 관리 시스템상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다른 곳이 아닌 T&C 파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체계'에 대하여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직자에게 궁금한 점들을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장실습의 큰 메리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본인도 T&C 파트를 포함하여 여러 품질 부서에서 일했던 분에게 '각 파트가 어떤 차이와 장단점을 가지는지, 또 각 파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와 같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T&C 업무가 잘 맞았던 것처럼, 다른 파트들은 어떠할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품질 부서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본인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인턴마저 '금턴' 으로 불리는 이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IPP 현장실습은 너무나 좋은 기회이다. 취업을 앞둔 고학년에게 있어 사실상 필요한 능력은 심화된 전공지식보다는 현장경험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4개월간 예상하지 못했던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새로운 직무에 대한 가능성을 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체계와 업무방식뿐 아니라, 회사라는 또 다른 환경에서 회사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와 책임감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 배울 수 있었다. 글로벌 대기업으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는 하나의 강점은 '보다 많은 기회' 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장실습을 통해 그 강점을 직접 보고 느낀 나는, 이 경험을 잘 녹여내어 머지않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품질 직무에 지원할 예정이다.

학과 (학부)	분자의생명전공		
실습 업체명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실습기간	2020. 7. 27. ~ 2020. 8. 24.
공모작 제목	나의 목표를 만들어준 현장실습!		

저는 2020년도 하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대학생 현장실습에 지원하여, 약 한 달간 동물자원과 척추동물연구팀에서 실습했습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사이테스 2급인 멕시코 도롱뇽 Axolotl을 기르면서 종복원 연구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생물자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생태를 연구하려면 무엇보다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와중에 우연히 국립생물자원관 공고를 보게 되었고, 제가 기르고 있어서 특히나 관심이 많았던 척추동물연구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수장고에 보관되어있는 표본을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표본정보를 엑셀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수장고로 이동시키는 것이 주 업무였지만, 매주 실습생들이 모여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을 하였는지 발표를 하면서 다양한 전공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공통교육 3일 동안은 자원관 연구원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표본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많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다양한 양서파충류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한국의 토종도롱뇽은 사는 지역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정말 그러한지, 행동생태학적으로 차이점은 없는지 언젠가 연구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은, 연구사님께서 직접 채집해오신 쇠살모사를 보여주셨는데 종류, 암수구별뿐만 아니라 눈동자 지름, 콧구멍의 길이 등 측정할 항목은 정말 많았고 미래에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당시에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같은 실험실에 계시던 연구원께서는 각 지방에서 보내오는 멧돼지의 코, 꼬리 등에서 모근을 채취하여 유전정보를 뽑아내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기회가 되어 ASF 현지조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멧돼지가 출몰할 수 있는 논과 산을 오르면서 멧돼지가 자신의 몸을 비볐던 비빔목과 발자국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사님과 함께 야간 양서파충류 조사를 나가서 울음소리 등을 통해 양서파충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직접 가까이에서 다양한 종을 관찰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개구리가 도로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비가 온 후에 시원한 도로바닥에서 몸을 식히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맹꽁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곳에서 우연히 맹꽁이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맹꽁이 등이 함께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팀원과 함께 일찍이 표본 정리를 끝내고 등줄쥐 박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박제된 동물들을 보면서 죽은 동물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재탄생시키는 '박제사'라는 직업이 매우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박제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을 때 매우 기대되었습니다. 쥐가 좋아하는 땅콩버터를 이용해 사탕을 만들고, 자원관 뒤쪽의 풀숲에 라이브트랩을 직접 조립하여 설치하였는데 덫을 어디에 놓을까 고민하면서 생물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살피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날 덫에 걸린 등줄쥐를 직접 관찰하였고, 등줄쥐의 특징인'등을 가로지르는 검은 줄'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제를 만들기 전에 표본정보를 측정하고, 가슴께부터 피부를 모두 벗겨낸 다음 가죽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바른 후 솜을 두른 나무막대를 이용해 안을 채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제'란 그저 가죽을 벗기고 형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특징을 살려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표본을 만든 후에는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티로폼 위에 핀으로 고정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수장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표본 하나하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저는 기회가 되어 특별히 로드킬 당한 삵으로도 가박제를 만들 수 있었는데, 삵은 로드킬을 당해서인지 두개골을 포함한 온몸의 뼈가 으스러져 있다는 것이 촉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장이 튀어나와 있었고 무척 메마른 상태여서 가죽을 벗기는 것이 힘들었지만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입을 X자로 꿰맸을 때 완전한 삵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형체조차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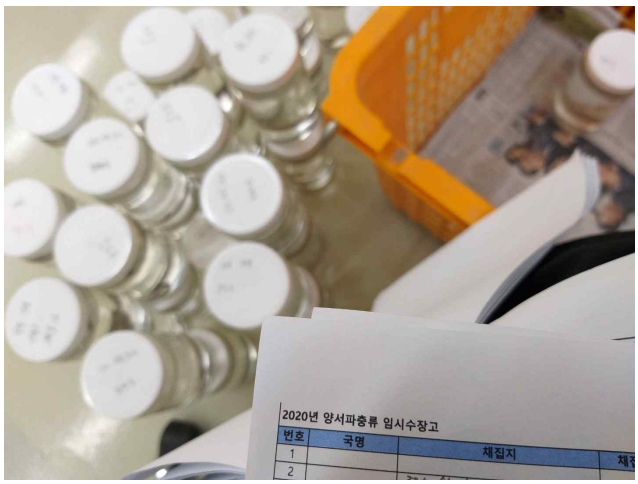
아볼 수 없었던 삶이 다시 본모습을 되찾으면서, 마치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저 땅에 묻힐 수도 있었던 것이 표본으로 만들어져 미래에 가치가 생겼다는 것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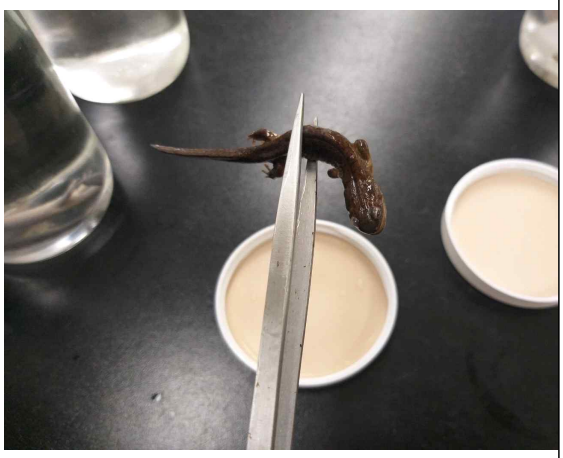
사실 저는 국립생물자원관 실습에 지원하기 전에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ipp 실습공고를 찾아보았다가 좌절하였습니다. 모두 바이오 관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명과학부는 생태를 전공하신 생명과학전공의 교수님도 계시고 저처럼 생태 분야로의 진로를 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실습을 개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원수를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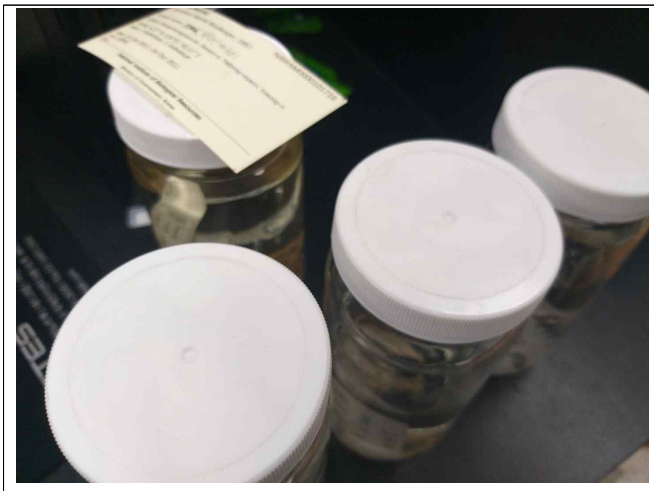
저는 이번 실습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그저 동물을 좋아했던 것에서, 이제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공부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실습을 도와주신 동물자원과 척추동물연구팀의 연구사님과 함께 논문도 쓰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미래 종복원 분야에 도움이 되는 연구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1. 양서파충류 표본 정리

- 표본을 상태에 따라 먼저 분류한 뒤에 정보(종, 채집지 등)를 엑셀파일로 옮겨적었다. 같은 채집지에서 채집된 동일 종은 같은 병에 넣어 라벨링한 후 임시수장고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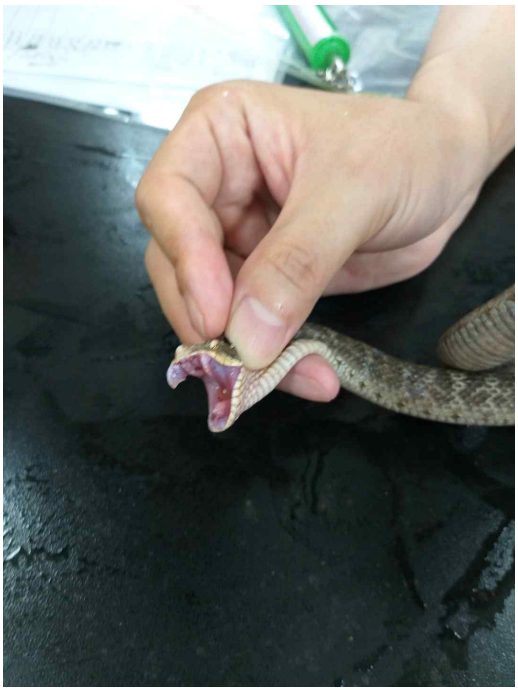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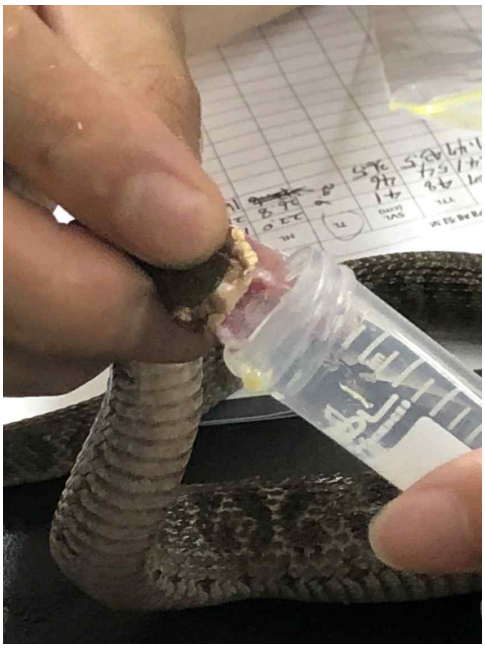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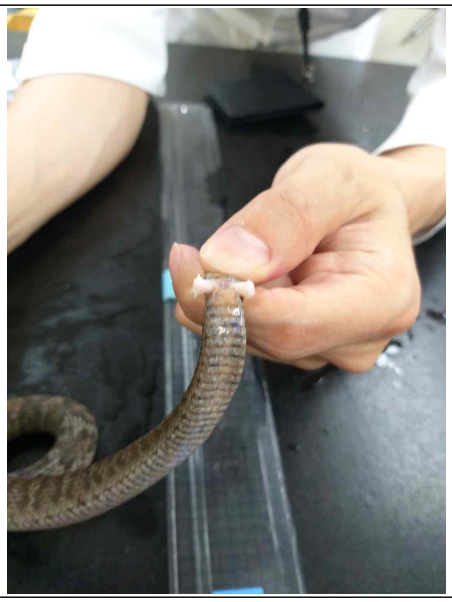


2. 쇠살모사 관찰

- 먼저 채집된 쇠살모사의 개체정보를 기입한 후 관찰하였다. 독을 튜브에 채취해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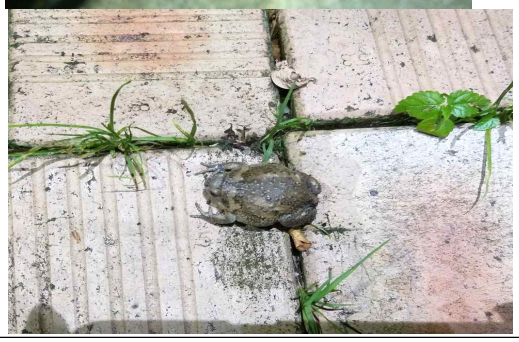






3. ASF 현지조사 및 양서파충류 야간조사

- 멧돼지 경계선 안쪽의 산과 논에서 주로 발자국 흔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멧돼지뿐만 아니라 고라니 발자국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양서파충류 조사는 김포 쪽으로 다녀왔으며 금개구리, 참개구리, 산개구리, 그리고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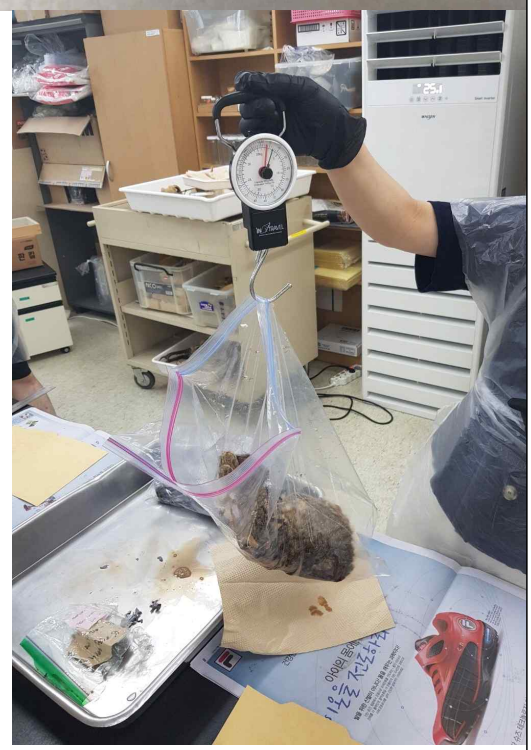


4. 등줄쥐 포획 및 박제, 삵 박제

- 쥐가 좋아하는 땅콩버터를 이용해서 사탕을 만든 후 라이브트랩에 꽂았다. 자원관 뒤쪽의 풀숲에 덫을 설치하고, 다음날 포획된 등줄쥐를 관찰한 후 박제를 하였다.
- 로드킬 당한 삵을 박제하였다. 삵은 위에서 보았을 때 귀가 꼿꼿이 서도록 귀부분에 바늘을 꽂아 고정하였다.

무게 전체 꼬리 발 귀
36.0 / 200 / 105 / 20 / 15

NIBR
Species
Date
Locality
Sex · Age
Collector



학과 (학부)	분자의생명전공		
실습 업체명	㈜보로노이	실습기간	20. 09. 01. ~ 20. 12. 31.
공모작 제목	실무경험과 학점취득을 동시에? 일학습병행제!		

저는 1학년 때 학과 학술제인 '생명인의 밤'에서 선배들의 경험담을 통하여 'IPP일학습병행제'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고학년이 된다면 나도 IPP에 지원해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4학년 2학기에 IPP를 통해 '(주)보로노이'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도 정시로 입학하였고 흔한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면접을 본 경험이 없어서 IPP지원시 치러지는 회사면접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재는 IPP를 무사히 끝마쳤을 뿐만 아니라 취업연계가 되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구소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석,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나이차이가 꽤 났으며 처음 접하는 회사생활과 문화들에 적응하기가 다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전공 관련 직무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최소한 학교 욕은 먹이지 말자는 마음으로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ipp를 진행하며 가장 크게 얻었던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ipp진행 중 연구소장님께서 석사 이상의 연구원들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실험의 일부 과정을 자동화 기계를 이용하여 연구원 대신 수행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실험을 하고 싶던 저는 해당 업무를 맡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원분들께 의뢰를 받아 몇 가지 실험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자신의 실험을 학부생인 저에게 대신 맡긴다는 연구원들의 불안감과 실험 전체를 온전히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연구원분들의 특성상 한 주에 1-2분 정도만 3-40개 정도의 적은 양의 실험만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결과를 꾸준히 낸다면 연구원분들도 저를 믿고 의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여 의뢰해 주신 분들께 추후 실험 결과가 어땠는지를 항상 여쭤보고 확인하여 어느 부분에서 내가 미흡했는가를 항상 찾아내려 노력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고쳐나갔습니다. 또한 실험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자동화장비를 사용하기 전 손으로만 전 과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험을 한 다음에는 결과를 분석해 주시는 분께 결과를 전송하며 꼭 분석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 드렸습니다. 결과 값을 통해 어느 실험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실험 시 주의하였으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해당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께 여쭤보며 실험 결과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초반에는 3-40개 정도였던 실험의뢰가 180여 개 정도로 늘어났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실험들도 담당하게 되었고 늘어난 업무량이 취업연계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성격 탓에 ipp 초반에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점점 나아지는 결과에 성취감도 느꼈으며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보다는 실수를 하더라도

숨기려하지 않고 인정하고 다른 분들께 물어보며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면서 자신감 또한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업무적인 부분 외에서도 현장실습을 통해 대학생활에서는 배우기 힘든 회사생활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의 부분에서도 크게 배웠으며 실습 전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만약 취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비슷한 전공의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도 듣고 직접 실무를 경험에 봄으로써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IPP일학습병행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름처럼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IPP 진행 초반에 'OJT 수행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의 멘토 분과 함께 작성하는 것으로 IPP기간동안 학생이 회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수행할 것인지를 기간별로 나누어 계획하는 계획서입니다.

저의 OJT 계획서를 예로 들자면 크게 입문교육, 실무 기초교육 및 실습, 실무 강화교육 및 실습, 사회성 교육 및 실습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해당회사의 체계나 제약산업의 이해, 의약품 허가 및 규제 등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비즈니스 예절, 커뮤니케이션 능력, 조직력강화 등의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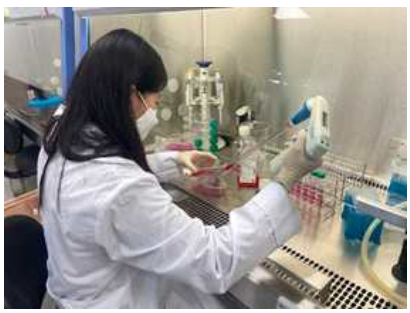
졸업 후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에는 회사에서 배우면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학생의 신분으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회사생활을 하게되니 진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학교에서는 배우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IPP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IPP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였는데 등록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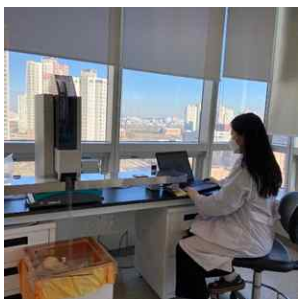
대부분의 IPP 참여학생들은 4학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PP제도는 졸업 전 학생의 신분으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IPP참여시 e-learning이나 OCU를 제외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풀타임 근무를 하는 인턴의 특성상 IPP참여학생의 경우 저 또한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이 추가로 강의를 신청하지 못하여 IPP이수학점인 월 2학점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등록금은 전액 납부해야 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IPP학생의 경우 계절학기처럼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거나 성실하게 IPP 과정을 끝마쳤을 시 등록금의 일정액을 감면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진1. Cell culture진행>



<사진2. Mosquito를 활용한 transfer 과정>

03. 생명공학전공

학과 (학부)	생명공학전공		
실습 업체명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습기간	2022. 09. 01. ~ 2022. 12. 31.
공모작 제목	자신감을 얻은 4개월		

[IPP 지원 이유]

2학년 2학기 생명공학전공 과목 분석 화학을 수강하면서 품질 관리라는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해당 과목은 화학과 생명 공학을 적절히 융합한 과목이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화학과 생명과학 두 과목 모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적합했습니다. A+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은 후 화학 분석기사 시험을 추가로 공부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해당 분야를 공부할수록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진로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실제 산업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무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인류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이오 기업에 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고 국내 최고 바이오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PP를 통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좋은 기회라고 여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습 과정과 성과]

첫 실습시간에는 먼저 비대면으로 기업, 부서에 대한 소개, 간단한 GMP 교육이 있었습니다. 대기업답게 부서가 세분화되어있어 처음 듣는 부서가 많아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본인의 부서를 설명해 주셨고, 세분화되어있는 덕분에 부서 소개만으로 어떤 업무가 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사용되는 GMP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는 CMO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9월 둘째 주부터는 출근하여 GDP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GMP 환경에서 사용되는 문서들은 ALCOA(Attributable, Legible, Compemporaneously recorded, Original, Accurate)의 방식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지원한 부서로 출근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를 배웠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서는 QC Operation Support, Material Management로 품질 관리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실험 물품의 구매 및 재고 관리, 실험실 운영 프로그램 LIMS의 기준 정보 등록, 해외 선적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실험실 안전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해당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품질 관리 실험실뿐만 아니라 모든 실험실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이후 있을 취업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실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GMP 실험실 환경을 운영해 본다는 매우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았고, 그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보조를 수행했습니다. 부서 특성상 QC의 다른 부서들, 구매 대행사, 공급사, 해외 고객사 등 여러 외부 기업, 타부서와 연락할 일이 많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림 1. 가우닝을 한 후 시약 상자를 여는 모습

[적응 스토리]

다른 학우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복학을 하였고, 저의 동기들은 이미 취업을 한 상태였기에 출발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와 군 생활은 경험해 보았지만 제대로 된 회사 생활은 처음이었기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실습 생활을 하게 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대기업에 GMP 시설이므로 굉장히 업무가 까다롭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팀원분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고,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4개월간의 실습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걱정했습니다. 그다지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진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팀원분들 모두 저를 편하게 대해주셔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회식 이외에도 사적으로 팀원들과 모여 영화를 보거나, 볼링을 치는 등 함께 어울렸습니다. 실습 기간이 끝난 지금도 파트장님과는 서로 메신저를 통해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공적인 면에서도 제가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로를 '프로님'이라고 존칭하는 회사 문화가 가장 좋았습니다. 저보다 20년 이상 경력이 높으신 팀장님께서도 저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시며 존중해 주셨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인턴을 회식에서 제외한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다행히 제가 속한 부서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식에 참여하여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업무 외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같은 팀으로서 유대감을 키웠습니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임원분께 어떤 식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할지 편하게 여쭤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파트장님이 진행하시는 워크숍에도 참석하여 서로의'프로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공적인 목적을 가진 회사였기에 남다른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팀원 모두 서로가 생각하는, 각자의 호칭인 '프로'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프로'로서 회사의 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커리어 역시 신경 쓰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파트장님의 말씀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배운 점과 보람 앞으로의 목표]

2022-2학기 IPP 실습은 저의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공 지식이나 실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실제 회사 생활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실험 이외의 업무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모두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지금 당장 회사에 가더라도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실제 바이오 기업에서는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고, 제가 원했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학부생 시절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높은 성장률, 계속해서 공장을 신설하는 끊임없는 투자, 높은 페이와 직원을 생각하는 복지 등으로 저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경험한 회사의 모습은 상상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의 1순위 회사입니다. 내년 상반기 공채에 지원하여 4개월의 좋았지만 짧아서 아쉬웠던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림2. 실습 마지막 날 실습생 동기들과

학과 (학부)	생명공학전공		
실습 업체명	㈜한미정밀화학	실습기간	2020. 09. 01. ~ 2020. 12. 31.
공모작 제목	선조의 지혜		

글을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0년도 하반기 IPP 현장 실습에 참여한 이국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곳 한미정밀화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정말 생생하고 풍성하게 수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공모작 제목이 선조의 지혜인 것처럼,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최대한 많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고 독자분들의 진로나 취업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소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한미정밀화학이라는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는 시흥 시화공단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천대학교가 눈으로 보일 만큼 거리상으로 가깝습니다! 한미정밀화학은 한미약품의 자회사로 한미약품이 만드는 제품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한미약품이 치킨을 파는 회사라고 했을 때, 닭과 기름이 좋은 것인지 확인하는 회사가 한미정밀화학이고, 이렇게 확인된 원료들을 통해 치킨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한미약품입니다. 저는 한미정밀화학의 여러 부서 중에서 분석연구팀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분석연구팀은 원료들을 분석하는 최적의 분석 방법을 고안하는 부서인데 위의 예시를 이어서 들어드리자면 닭과 기름이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업무를 합니다. 따라서 닭의 품질을 판단하는 데에 유리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기름의 품질을 판단하는 데에 유리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검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최적화된 분석 방법을 고안하는 부서입니다.

교육 과정

현장 실습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회사의 내규에 대해 배우고 회사 시스템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거칩니다. 대략 1주일 정도 사무실에서 분석연구팀에 대한 설명도 듣고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과 하게 될 일들에 관해 설명을 듣습니다. 그 이후로는 분석 장비에 대한 이론 설명을 듣습니다. 분석연구팀에는 정말 다양한 분석 장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석 장비에 대한 간단한 이론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이론 교육이 끝나면 각각의 분석 장비들을 직접 운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습용 검체를 통해서 직접 분석 장비를 다뤄보며 익힐 수 있습니다. 모든 분석 장비에 대한 실습이 완료되면 교육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Test를 진행합니다. Test가 마무리되면 실제 회사 업무를 선배님을 보조해서 함께 맡아서 진행합니다.

적응 스토리

학교에서 실험실 생활을 해봤더라도 실제 회사생활은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도 나눠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창수 선배님이라는 분은 코로나가 주춤했을 당시에 밥도 많이 사주시고 회사에서도 잘 챙겨주셔서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더불어 분석연구팀에서는 점심시간마다 회의실에서 담소를 나누곤 하는데, 여기서 사는 얘기, 사소한 얘기, 성격 유형 얘기 등을 하면서 회사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장비에 대해서는 초반에 서툴렀지만, 선배님이 말씀해주시는 것들을 최대한 메모하고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는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분석 장비도 많이 다룰 수 있었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생겼고, 일의 능률도 올랐습니다.

인턴 업무 및 성과

인턴들은 매일 아침에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Daily calibration인데, 쉽게 말해서 분석 장비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정확하게 50g인 분동을 측정했을 때 50g이 오차 범위 내에 측정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분석 장비의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Daily calibration에 포함된 장비는 수분 측정기, 저울, pH 측정기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업무에 이용되는 분석 장비는 HPLC, UV, 그리고 GC가 주를 이룹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실제 회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고, 동일한 분석 장비를 반복해서 운용하다 보니 해당 분석 장비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었습니다. 인턴 초기에는 하나의 일도 어려웠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서너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일에 대한 숙련도가 쌓였습니다.

느낀 점

현장 실습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회사생활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여유로웠을 때도 있었지만 무척 바빴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신경이 예민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도 회사 사람들의 성격이 다들 부드러우셔서 일하면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처럼 유대감이 없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없었다면 아마 일하는 순간이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이 좋긴 하지만 회사 분위기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개선 및 제안사항

정말 많은 실험을 해보면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이런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실험 결과 정리가 편하다는 것처럼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이에 저는 새로 온 인턴들에게 전에 있던 인턴들이 노하우를 담아 놓은 인수인계서를 적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수인계서를 적어놓으면 이후에 들어오는 인턴들은 앞선 인턴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실험을 더욱 발전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인수인계서를 적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연계

이곳에서 다뤘던 분석 장비들은 다른 제약회사의 품질 관리 분야에 있어서 매우 빈번히 이용됩니다. 따라서 분석 장비 운용에 대한 경력은 취업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모집 공고를 보면 이화학 실험 및 분석 실험을 주 업무로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IPP 현장 실습을 통해 쌓은 경력은 분명히 취업에 있어서 자신만의 히든 카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한 분들

IPP현장 실습은 저에게 있어서 큰 행운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 준비가 더뎌질 수 있었던 찰나에 인턴이라는 매우 소중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를 선택해주신 분석연구팀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IPP 현장 실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트랜드를 소개해주시거나 뉴스래터를 보내시며 노력해주신 주병권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즐겁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내준 한미정밀화학 분석연구팀 모든 선배님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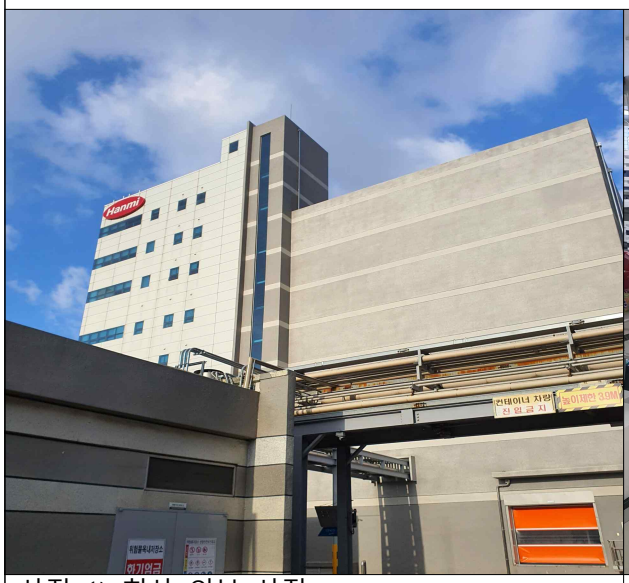


사진 1) 회사 외부 사진
저 건물은 D동 건물입니다. 한미정밀화학은 총 4개의 건물로 구성되어있고, 분석연구팀은 D동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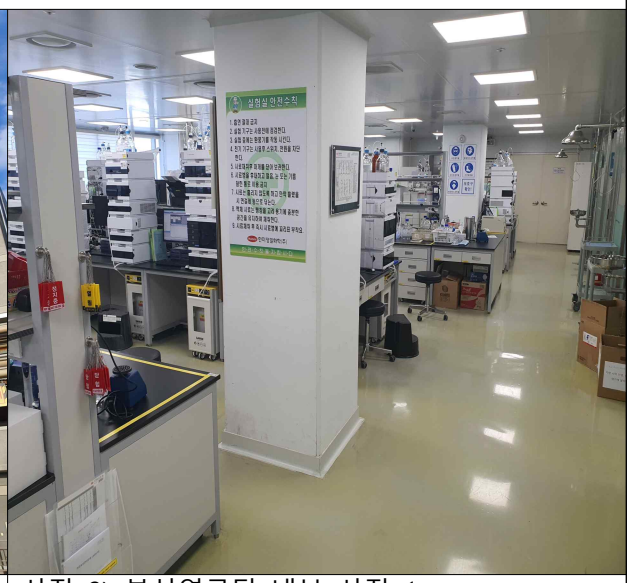


사진 2) 분석연구팀 내부 사진 1
분석연구팀 실험실 내부 사진입니다.

사진 3) 분석연구팀 내부 사진 2
분석연구팀 실험실 내부 사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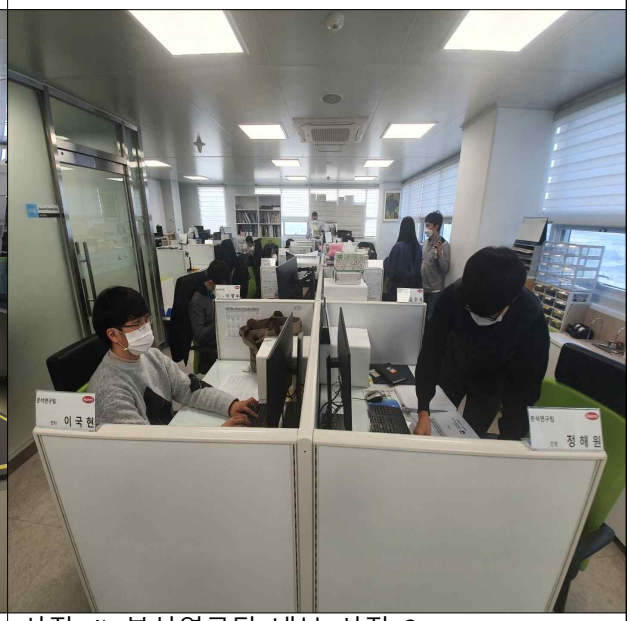


사진 4) 분석연구팀 내부 사진 3
분석연구팀 사무실 내부 사진입니다. 인턴은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왼쪽 유리문은 Meeting room입니다. 업무적으로 용무가 있거나 점심시간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사진 5) 수분 측정기

검체에 포함된 수분량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분석 장비입니다. 매일 Calibration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과 (학부)	생명공학전공		
실습 업체명	㈜안트로젠	실습기간	2020.09.01. ~ 2020.12.31.
공모작 제목	IPP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연습게임!		

대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 때 자기설계 세미나 수업을 들을 때였다. 우리 학과는 자기설계 세미나 수업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3학년 때까지는 잊을 만하면 신청해서 들어야 하는 과목이었다. 마음 편하게 앉아만 있어도 출석을 잘 하면 패스를 주는 과목으로 일명 '꿀 과목'이었다. 그렇지만 이 과목을 들으며 IPP 현장학습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1학년 때부터 '이 학교에 끝까지 남아있거든 4학년 때 반드시 IPP를 해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하나의 깜짝 팁이라면 보통 4학년 1학기에 지원을 하면 지원자 수가 적기 때문에 2학기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유로운 듯하니 각 학과 필수과목 등의 커리큘럼을 잘 예측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나의 경우에는 인턴을 통해 일명 스펙을 쌓는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회로 나가는 연습게임이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었다. 대학교의 많은 수업에서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많은 것을 시도해 보고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면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이런 맥락의 말을 들을 때마다 물론 용기가 나고 대학생 때 편하게 최대한 많은 것을 도전해 보자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가 얼마나 무섭길래 저렇게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할까라는 걱정도 내심 들었다. 졸업 후에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사회에서 적응을 못 해서 나와야 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했기에 나에게는 한 번의 연습게임이 반드시 필요했다. 원하는 직장에 힘들게 들어가서 적응 못 해 중도에 나와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2020년 2학기에는 COVID 사태와 맞물려 현장학습의 실습 기회를 차지하는데 더 치열했던 것 같다. 여러 군데 지원해서 마지막으로 면접을 본 회사에 붙었었는데 한군데 한군데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탈락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을 때에는 정말 말 그대로 '맴찢'이였다. 면접 결과 문자를 통보받기 전까지 일이 손에 안 잡혀 낮잠을 청하면 결과를 통보받는 꿈을 꾸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마지막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회사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 면접을 볼 때에는 항목을 뽑아서 외우듯이 준비해 갔었고 면접 때 당황해하는 기색을 보인 적이 많았었다. 나도 내가 당황한 것을 느끼는데 하물며 많은 지원자들을 대해본 면접관들은 그거 하나 캐치하지 못할까.

함께 면접을 보고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면접에 임한 친구들이었다. 면접관들이 원하는 답변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IPP는 실제 취업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싶은 무난한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다. 여기서 두 번째 팁은 면접을 완벽하게 준비해 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전공 지식을 한번 훑어보고 보편적인 면접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준비해서 교수님과 말씀 나누는 거랑 같다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더욱 합격의 확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힘을 빼야 더 잘 할 수 있다니! 내가 말하면서도 참 이런 것을 보면 역설적인 것 같다. 그렇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쩌겠는가! 이처럼 내가 마지막으로 지원한 회사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도 1,2 지망의 회사에서 면접 경험을 통해 마음을 내려놓고 그나마 좀 더 편하게 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습일 첫날, 첫날부터 서울 길 출근 부대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괜히 지옥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퇴근길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땡 하고 오후 6

시가 되니 어디선가 슬며시 나온 직장인 부대들이 바쁘게 지하철로 혹은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투적으로 일한 그대, 전투적으로 퇴근하라 그건가? (웃음) 면접을 볼 때 수많은 질문 중 하나는 꼭 '출퇴근 길이 먼 거 같은데 괜찮아요?'라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는, '출퇴근 길이 서울에서 강원도면 어떠냐! 뽑아만 주신다면 어디든 불만 없이 출퇴근한다'라는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대답했었는데, 실제로 다녀보니 왜 사람들이 회사 근처에 집을 얻으라고 하는지 십분 이해가 되었다. 이번 현장실습을 하면서 하루하루 쏟은 에너지를 굳이 수치화하자면, 출퇴근길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치열했던 출퇴근길에 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직장인 부대에 참여했는데, 노래 덕분에 그래도 고된 출퇴근 길을 즐길 수 있었다.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크게 없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하게 첫날부터 엄청난 업무를 하고, 나의 잠재력을 보여줄 만한 일들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이는 나의 큰 오산이었다. 거기다가 실제 신입사원도 아닌 인턴이니 이런 기대는 나의 욕심이었다. 여기서 세 번째 팁이라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고용한 후에 첫 몇 개월은 적응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 이를 몰랐던 터라 그 당시에는 바로 일이 주어지지 않아 아쉬워했지만, 모두가 자연스레 거쳐가야 하는 적응의 시기인 만큼 좀 더 여유를 갖고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처음 한 달간은 회사에서 GMP, 밸리데이션 등에 대한 교육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GMP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GMP는 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공정이 기록되는 것을 말하며 회사에서 GMP를 지칭한다면 보통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 외에도 세포 배양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 PPT를 만들어 팀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임상 제품 제조 보조부터 임상약 출하, 회계 감사 전 수불부 정리, 제조기록서, 기기 사용 기록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GMP 시설에서 환자에게 투입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배양해 제품화하는 것을 참관한 적이 있다. 세포 배양에 대해 전공 수업 및 실험 시간에 수시로 배웠던 내용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고, 덕분에 공정 내용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지식이든 언제 쓰일지는 모르지만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배움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늘 학수고대하던 IPP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배정된 것에 대해 마음 한편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정밀화학 등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회사들이 목록에 있다 보니,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더 아쉬움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실습을 무사히 끝낸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배정이 된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판단이 든다. 서류 정리 및 작성 등의 사무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전반적인 제조 공정에 참여해 보조를 하면서 학교에서 글로만 배우던 GMP 시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회사의 규모가 작았던 만큼, 우리 팀, 다른 팀 사람들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료들과 정을 주고받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IPP를 하는 4개월 동안 인천대 산학 협력단 교수님께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현장실습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고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주병권 교수님을 포함하여 4학년 마지막 학기를 IPP를 통해 뜻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수기를 이로 마치도록 하겠다.

04. 나노바이오공학전공

학과 (학부)	나노바이오전공		
실습 업체명	경방신약	실습기간	2023. 03. 02. ~ 2023. 06. 30.
공모작 제목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경험		

글을 시작하며,

경방신약 실습 후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생생하다.
정시모집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을 말할 경험이 딱히 없었다. 굳이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잘 살아오던 내게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커다란 산과 같았다. 하지만 한 학기를 남기고 현장실습을 해봤던 것에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불안했던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내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

어느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나, 특히 제약회사는 인턴의 기회가 거의 없다. 따라서 그 인턴은 거의 취업과 비슷한 경쟁률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현장실습에 지원하게 되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면접에 참여하면서 더욱 느껴지지만 이렇게 나처럼 제약회사의 품질관리팀에서 업무에 녹아, 많은 걸 배운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학사학위로 취업을 원한다면 신입 지원자에게도 업무 관련 경험은 거의 필수 요구조건이다. 더 나아가서 졸업하게 된 순간 사회인이기 때문에 졸업 전에 했던 현장실습 경험은 너무나 소중하다. 현장실습을 하기 전과 비교해서 현재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채용 공고에 설명된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직접 몸으로 느꼈기에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하루에 하나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며, 서류 합격률은 90%가 넘는다.

면접에 3번을 참여했는데, 자기소개서의 내용보다 이 직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력서'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력서에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현장실습을 했다는 한 줄이 면접관분들께 있어서 궁금증을 유발하기엔 충분해 보였다. 직접 경험해본 일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답변은 잘 나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저 나를 보여주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당연하게도 직접 그 사업군에서 일했던 현장실습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4년 같은 4개월의 경험]

실습생이 아니라 경력 4년이 된 직원이 일하는 것처럼 일을 많이 했다. 물론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일한 적은 없지만, 더 많은 걸 배우면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업무를 맡아서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오랜만에 해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활동이어서 더 힘들었다. '놀고먹는 대학생'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해보니 놀고먹는 게 맞았다. 사회생활은 먹는 순간조차 일이었다. 하지만 결국 회사도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고, 그 속에서 항상 웃을 일은 있었다.

하루 24시간 중의 9시간을 같은 목표를 가지고 보내다 보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미리 걸어본 분들의 삶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니, 이 직무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내 선택에 확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느꼈더라도, 빠르게 다른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무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그 직무가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다.

직업을 '돈'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온전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전에 겪어야 했던 근본적인 경험이었다. 처음엔 업무보다 직원분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았지만, 20년 넘게 길러온 기본적인 사회성만으로도 팀에 녹아들긴 충분했다.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돈 때문이었다면 절대 견디지 못했을 것 같다. 겪어보기 전엔 모른다는 말이 맞았다.

내가 1년 동안, 이 직무에 대해 공부한 것보다 4개월 동안 직접 일하면서 배운 내용이 몇 배는 더 많았다. 또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도 적지 않았다. 큰 기업에서 실습도 좋지만, 그곳에선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작지만 나에게 맡아진 일이 많은 회사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대기업으로 현장 실습 간 친구보다 훨씬 바쁘게 일했고 배운 업무도 많았다. 첫 사회생활로 바쁘게 일한 결과, 나라는 사람을 증명할 지식과 이야깃거리가 넘쳐난다.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기대된다.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이건 왜 했을까. 후회하던 경험을 포함해서 모든 경험이 유의미했다. 경방신약 첫 출근에, 첫 사회생활에 떨린 마음을 추스르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으로 알게 된 언니였다. 그 시절에 친했지만 멀어졌던 언니였는데 아는 얼굴이 있으니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친해져서 맡은 업무 말고도 언니가 하는 업무도 시간을 내서 배우곤 했다. 언니한테 배운 업무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전공 수업에서 얻은 것들, 학부연구생 12개월 동안 배운 지식과 기술, 여러 대외활동과 아르바이트 경험까지, 그저 나의 경험이 아주 잠깐 존재감을 나타냈다고 해도, 그 하나로 유대감이 생기고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준비된 자가 얻는 결과]

매일 30분 씩 일찍 출근했고, 어떤 업무든 마다하지 않았다. 품질관리팀에서 가장 힘들다고 소문난 '환경모니터링' 업무도 자처해서 혼자 진행했다. 평소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연차는 거의 병결로 사용해야 했다. 다행히도 직원분의 인정을 받았고, 다른 기기를 사용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제약회사에서 '기기 사용 경험'은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열심히 해왔던 덕에 기존에 맡은 업무를 빠르게 끝낼 수 있었고, 남은 시간에는 항상 친한 언니가 다루는 기기를 배웠다. 기기를 직접 다루고 배우면서, 학부 시절 실험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기록하고 정리했다. 업무 내용을 작성해 놓은 것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볼 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업무를 빠르게 끝낼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직원분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받지 못할 기회였다. 열심히 했기에 얻게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글을 마치며,

우선 나에게 현장실습을 할 기회를 준 현장실습지원센터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장실습을 안 했다면 아직도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정답을 찾기 위한 초기 가이드 역할은 확실히 해주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또 하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4년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계속된 공부가 필요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4개월 동안 많은 걸 얻었고, 그 결과를 몸소 느끼고 있다. 인생은 계단과 같아서 꾸준한 성장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한다고 한다. 아직은 온전한 사회인이 아니지만, 이 현장실습으로 수직 성장했다는 것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실습의 기회가 있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얻게 될 경험의 양과 질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그만둔 지금도, 그때의 기억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는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하는 모든 경험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이 생겼다. 이 또한 추후 나의 삶에 선물이 되어줄 수 있으니.

학과 (학부)	나노바이오전공		
실습 업체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습기간	2022. 09. 01 . ~ 2022. 12. 30.
공모작 제목	꿈의 직장에서의 꿈같은 경험		

1. 문제해결 경험

우선 매주 1회의 그룹미팅과 격주마다 진행되는 팀미팅에 참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받게 되었는데, 외국인이 계셔서 영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Level이 어느정도 필요로 하였다.
특히 회사에서 사용되는 비즈니스영어와 줄임말에 익숙하지 않아 초반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막막하였지만 초반 팀원분들의 검토를 받으며 또한, 기존에 작성되었던 대략 8개월가량의 회의록 기록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였고, 차츰 빠르게 적응하여 11월부터 2개월 가량 혼자 검토없이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능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였으며, 팀원분들도 제게 칭찬을 해 주셨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 또한 어려웠고 경험을 통해 극복하였고, 이를 통해 앞으로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학습한 주요 지식, 기술(핵심기술, 관련기술) 및 능력

의약품 특히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 과정의 전체적인 과정을 알 수 있었으며, 관련 용어와 현재 에이전시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 앞으로의 방향 등 인턴 경험을 하며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며,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찾는 기술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세분화 되고 다양한 직무와 업무에 대해 간접적으로 느끼고 이해 할 수 있어 앞으로의 진로 결정과 업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진로 설정 및 경제적인 도움

전공을 떠나 실무적인 경험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같지만 체계를 갖추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다 보니 좀 더 어렵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4개월간에 직관적으로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여 앞으로의 직무 선택과 또한 취업 시 면접에서의 제 기량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며, 본가인 제주도에서 독립하여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도움도 매우 컸으며, 이번 ipp를 마무리로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뜻 깊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4.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여러 나라의 고객사, 보건당국 등 다양한 보완에 대응하고 많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한 곳에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xcel파일에 정리하는데 추가 할 부분과 date등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업무를 하였었고, 추가적인 새로운 one not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과 더불어 멘토님께 보내 드려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개선안 제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one note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느낀 생각은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는 TOC(Table of Contents)와 규정의 링크, 파일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없어 one note 내 여러 폴더(여러 국가)의 내용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Ctrl + E)을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cel의 필터 기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항목별로 비교할 수 없고, 직관적인 내용면에서의 빠른 검색을 위한 목적이라면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간략 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draft와 갱신되는 내용에 대한 특별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혹은 Excel과 onenote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두고 병행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6. 기대효과

목차 뿐만 아니라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추가하면 많은 내용들을 한번에 검색하여 비교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각자 맡은 국가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관리(수정 및 갱신)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one not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팀 내에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소감 및 느낀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큰 기업에서의 약 4개월 동안 IPP 현장체험실습을 하면서 학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회사라는 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고, 또한 제약이라는 같은 길을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과 방향 등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소속되어있던 직무가 전문성이 높아 제가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업무는 없었지만, 멘토분께서 잘 케어 해 주시면서 업무 강도를 조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교수님이신 주병권교수님께서도 주기적으로 전화와 면담을 통해 신경 써 주셔서 학교라는 소속감이라는 또다른 안정감을 갖을 수 있었고,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 하게 되어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 직무안에서의 소속감도 들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쌓아 IPP를 마무리하고 떠나려 하니 마음이 조금 쓸쓸하며, 여기서의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취업 후에 다시 만나게 되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입사하게 되어 찾아 뵐 수 있으면 좋겠다.

8. 향후 진로계획

회사에서 4개월동안 경험해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의 특성상 높은 영어실력을 요하며 타 제약

기업들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존 영어성적을 높이려 할것이며,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 고객사 혹은 주요 판매하는 국가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부하며 다른 접근을 통해 IPP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준비할 것입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과 관련된 회사에 지원할 것이고, 이미 오픽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원 또한 할 예정입니다. GSAT와 면접 준비에 앞서 서류전형에서 붙어야 하기 때문에 IPP 경험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 해 보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검토 받은 뒤 가고자 하는 회사에 지원 할 예정입니다.

9. 개선사항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기업에서 경쟁력있는 좋은 경험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생각 해 보려 했으나, 저에겐 모든 게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큰 이슈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앞으로의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나아 갈 수 있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처음 기업에서 안내하는 직무에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나 기업에서의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험하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차별 교육계획을 보면 1개월차부터 4개월차까지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들어가는 3개월차 전 1,2개월차 동안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였고, 실습기간 중 교육시간의 비율이 20% 즉,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업무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의 개요로 교육부서 OT 진행 이후 각 소속부서원이 번갈아가며 Study 진행예정이라고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약 3일동안의 교육 후 바로 각 부서로 투입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 출신 선배를 특별 멘토로 초대하여 당사 입사를 희망하는 실습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자리는 없었으며, 따로 관련된 통지도 없었습니다.
물론 현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으나, 교육과 경험을 위한 체험 실습인 만큼 사전교육계획은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과 (학부)	나노바이오전공		
실습 업체명	경방신약	실습기간	2022. 01. 10. ~ 2022. 06. 30.
공모작 제목	실습으로 얻은 전문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 현장실습 실습과정 및 성과

저는 경방신약 품질관리팀 QA에 배정되어 품질관리 개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실습 초반 제가 맡은 업무는 제품표준서 개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제품 표준서를 개정하면서 경방신약의 제품들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맡은 업무로는 PQR, MBR review, 제품성적서 review, MBR 발행 등 QA의 여러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업무 경험도 얻고 싶어서 QC 완제품 팀에 support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QC에서 맡은 저의 업무는 입도, 붕해, 기밀도, 질량편차와 같은 간단한 시험 진행 후 제품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HPLC HITACHI 기종을 이용해 제품 기기분석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QA, QC 팀의 업무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실습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GMP 시설의 정보들과 SOP에 대해 배워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QA, QC 업무를 하면서 얻은 업무 역량과 회사생활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저의 전문역량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장실습 이후 취업 연계

현재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약직으로 DP-VP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정규직이 아닌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약직을 선택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의 현장 분위기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배우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경방신약에서 실습하면서 저의 포지션은 작업자들의 작성한 서류들을 review 하는 위치였습니다. review를 하면서 많은 오기와 맞지 않는 real time 그리고 공정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작업자들의 업무 환경과 업무수행 방식이 궁금해졌고 MBR을 작성하면서 왜 틀리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DP-VP 팀에서 Visual Inspection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자의 입장으로 MBR을 작성하면서 생산공정의 이해와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배우기 위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다니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업무와 생산업무 2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첫째도 품질 둘째도 품질이라는 저의 작업 가치관이 생겼고 둘 다 매력적인 업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취업 계획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업무를 병행하면서 QC, QA, 생산 부서 어디든 상관없이 지원할 것이고 취업 후 저의 경력을 더 넓혀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실습하면서 내용 및 적응 스토리

실습하면서 맡은 업무를 수행할 때 처음에는 새로운 것투성이라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무실 내의 분위기 어렵게 쓰여있는 서류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까지 낯선 것들 투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사회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의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처음 QA 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사원 2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MBR review 업무할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봐야 하는지부터 회사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덕에 금방 회사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며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완벽하게 해낼 수 없었기에 차장님에게 작은 꾸중을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하였으나 이 또한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라 생각이 들었고 실습을 할 수 있었기에 이런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원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많은 질문에 답도 해주셨으며 친절하셨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쉽게 적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카페에 들려서 커피도 사주시고 얘기도 나누면서 나름 재밌는 실습 기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 배운점 및 보람

실습으로 배운 점은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일단 업무적인 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QA 부서의 업무인 PQR, MBR review 같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서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엑셀이나 문서작업 같은 서류 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복사기, 인쇄기를 제대로 사용해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 QA 부서를 배정받았을 때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맡은 업무를 천천히 해나가면서 복사기, 인쇄기와 같은 기기들의 사용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었고 엑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본기가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문서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업무 진행 방식 그리고 서류 작성법을 배우면서 저의 모든 업무 처리 방식이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바뀌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QC 부서에서의 경험은 실습하기 전까지 HPLC를 사용해보고 싶던 저한테는 기대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대외활동을 통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없었던 분석기기를 실제로 사용하여 사용법을 터득하고 실제 제품성적서도 작성했던 경험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에 대해 배운 것 또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군대를 갔다 오면서 회사생활 또한 비슷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생활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업무 보고 체계, 업무 보고 방식, 회사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많은 것을 몸소 깨닫고 느끼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경방신약에서 6개월간 실습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약품의 문서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작성하고 출하시키는 과정이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었고 경방신약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정말 보람찼고 더욱더 바이오, 의약 분야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 실습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QC 부서에서 실습하던 어느 날 실험실 HPLC 한 대가 컬럼의 압력이 증가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개개인이 맡은 HPLC로 분석해야 하는 하루 업무량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HPLC 압력 증가 해결 방법을 배운 기억이 떠올라 인터넷으로 해결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았고 "혹시 펌프가 막혀서 고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해결 방법으로 라인 필터를 용매에 담근 후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해야 한다는 교육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세척 후 HPLC를 작동시킨 결과 압력이 고압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HPLC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문제에 도달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찾거나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현장실습 개선사항 제안사항

실습 기간 느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 기간 많은 업무를 맡아서 해봤습니다. 문서 검토부터 분석업무까지 그러나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주요한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닌 간단한 작업이 많았습니다. 물론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실습생에게 경험시켜주기 위해 맡기는 큰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사항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을 간략하게라도 돌아다니면서 설명해주거나 회사 전체적인 의약품 생산 출고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습 초반에 맡은 간단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시야가 대체로 회사 전체가 아닌 하나의 업무만을 해결하려고 좁혀져 있던 저를 발견했고 순간순간 이 업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 업무인지 모르는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순한 업무를 알려주는 게 아닌 하루 전체를 회사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견학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나의 과제를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습 보고서와

별개로 실습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과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습 당시에는 적응하느라 바빠서 못 느꼈지만, 실습이 끝나서 들은 생각으로는 업무 스킬은 늘었으나 취업할 때 회사마다 원하는 문제해결 경험이 적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취업할 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회사생활을 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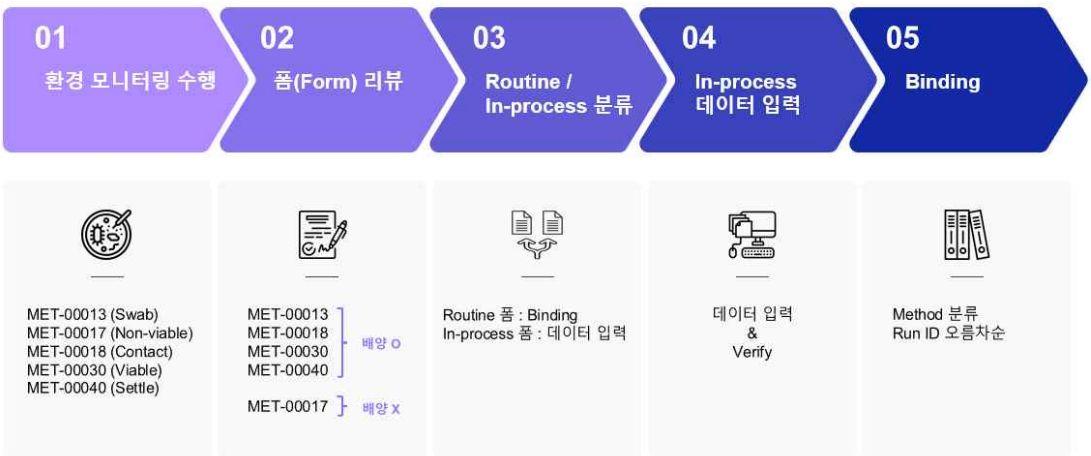
학과 (학부)	나노바이오전공		
실습 업체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습기간	2022. 03. 01. ~ 2022. 06. 30.
공모작 제목	IPP 현장실습의 시작부터 끝까지		

■ IPP 장기현장실습을 알게 된 경로

생명공학부는 IPP 장기현장실습의 기회가 많은 학부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실습하는 선배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IPP 장기현장실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방학 중에 잠깐 경험하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와 달리 학기 중에 학점을 받으며 전공과 관련한 실무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IPP 장기현장실습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IPP 장기현장실습이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2학년 때부터 목표하고 준비했습니다. IPP 장기현장실습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 전에 학과에서 필요한 강의를 모두 수강했고, 수시로 IPP 공고를 보며 지원했습니다.

■ IPP 장기현장실습 내용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QC EM 부서에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IPP 장기현장실습 시에 수행한 업무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그림1> 수행업무 프로세스

제가 실습한 환경모니터링은 청정 구역 환경의 품질을 미리 정해진 관리 수준과 함께 부유 입자 및 미생물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향 이탈 또는 관리 기준 초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취하는 절차로, 주기적으로 실험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그 환경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모니터링은 실험과 공정이 수행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 Plant(Plant 1 ~ Plant 3)와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험 부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모니터링은 At rest 상태일 때와 In-process 상태일 때 모두 진행했고, 새로운 장비가 설치되거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면 PVT를 수행해 장비의 수행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 또한 진행했습니다.

■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기른 능력

1. Hard Skill

인천대학교에서 생명공학부 나노바이오전공을 전공하며 4년 동안 생명공학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작 배지를 가지고 실험하거나,

PCR과 같이 생명공학 관련 기계를 사용하거나, Colony Counting 등 실질적인 생명공학적인 실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생물 QC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QC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론으로만 학습했던 GMP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모니터링 부서에서 사용하는 장비인 ASL과 APC를 직접 작동시키고, OJT를 통해 Colony Counting을 직접 수행하고, 액체배지와 고체배지의 사용법을 익히고, 실험 문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과정을 통해 QC 부서,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모니터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환경모니터링 부서에서 GMP 문서의 전반적인 Workflow를 관리하며 가장 많이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엑셀입니다. 실습 전에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엑셀 함수와 서식이 적용된 문서도 손쉽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Form Tracking에서 메일로 온 데이터를 옮길 때 미리 걸려있는 서식 때문에 옮겨진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메일 파일에서 서식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옮겨 빠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회사에서 엑셀은 기본으로 사용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IPP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들이 관련 자격증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QC 부서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번역기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영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IPP 실습 중 OPIc 공부를 하고 준비하여 영어 능력을 길렀고, 업무를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Soft Skill

이번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현직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회사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는 것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이런 기질과는 상관없이 인사는 기본이고,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할 때 정확하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상대방의 말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것 등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들을 몸소 경험하며 학습하고 능력을 길렀습니다.

■ IPP 장기현장실습과 취업

4개월 동안 IPP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며 경험을 쌓아 취업경쟁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취업 준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QC 부서에서 일하며 제약회사의 QC는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의 업무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경험하며 QC 부서, QA 부서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IPP 사업단에서 매달 "슬기로운 IPP 생활" 소식지를 보내주시는데, 이를 통해 취업 준비 방법, 채용 동향, 취업 자료를 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IPP 장기현장실습의 또 다른 장점은 경험을 쌓는 것뿐 아니라 노동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아 식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현장실습에서 받은 급여는 IPP가 끝난 후 취업 준비 시에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급여 덕분에 취업 준비 중 생활비 부담감이 줄어서 더욱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IPP 장기현장실습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QC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지원 직무와 관련한 경험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고, 현장실습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을 자기소개서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서류 통과 후 면접에서도 IPP 장기현장실습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관련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면접을 보며 IPP 장기현장실습이 계약직과 인턴 경험 못지않은 스펙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

다. 결과적으로 제약회사 QA 부서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어 입사 준비 중입니다.

■ **IPP 장기현장실습 소감 및 느낀 점**

이번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이론으로만 배웠던 전공지식을 넘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했고, 제약회사의 QC 부서에서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IPP 현장실습을 참여하기 전 저의 목표는 (1) 환경모니터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2) 실험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3) GMP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1) 다양한 환경모니터링 기계(APC, ASL)를 직접 다루며 실험하며 환경모니터링의 종류와 방법을 배웠고, (2) GMP 문서를 다루고 직접 작성하며 GDP를 배웠습니다. 또 (3) GMP가 문서뿐 아니라 약의 제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약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졸업 후 제약회사 취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IPP 장기현장실습은 저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자 경험이 되었습니다.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학우분들도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아 취업경쟁력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과 (학부)	나노바이오전공		
실습 업체명	한미정밀화학	실습기간	2021. 07. 01. ~ 2021. 12. 31.
공모작 제목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으로의 완벽한 준비		

대학교 4학년, 무엇을 위하여?

대학교의 최고학년. 아직 학생 신분에 속하지만, 학생이기만 할 수도 없는 학년입 니다. 누군가는 사회초년생이 되기 위해 취업전선에, 또 다른 누군가는 더 큰 꿈을 위해 혹은 도피성으로 대학원으로 진학합니다. 이처럼 대학교 4학년의 학생들은 수 능 원서를 쓸 때 만큼이나 큰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저 또한 그 갈림길 앞 에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갈림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대학원을 가 보지도, 회사를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하고 싶다는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 문입니다. 대학원과 회사를 사이에 두고 어느 길로 가야 후회하지 않을지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학생 신분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많은 취업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수많은 후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 람은 저마다의 경험을 가졌고, 각자의 기준이 있으며, 각기 다른 스펙과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과 제가 같지 않듯이, 그들과 제 선택 또한 같을 수 없다고 생각했 습니다. 고민 끝에 학부 연구생을 통해 대학원을 체험해보거나, 인턴실습을 통해 회 사를 체험해보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사학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므로, 석사학위를 딴 후에는 회사에서 일할 것 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결정해야 할 것은 '학사에 만족하고 취업할 것이 냐, 2년을 투자해 석사를 마치고 회사에 취업할 것이냐'였습니다. 이 고민은 학부 연구생보다는 인턴실습을 통해 알기 쉬우리라 판단하였고, 인턴실습은 학사로 취업 을 하거나 석사로 취업을 할 때 모두 스펙이 될 수 있어서 학부 연구생보다 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다니며 실무를 배우고, 스펙을 쌓 고, 학사와 석사의 업무를 비교해 보기 위해 인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프로그램

인턴을 지원하기에 앞서, 개인의 신분으로 지원하는 회사의 자체 인턴프로그램과 학교의 인턴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신분으로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는 대게 체험형 인턴이 아닌 전환형 인턴이 많았습니다.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인턴준비와 취 업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미 다양한 스펙들을 가지거나 인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환형 인턴을 지 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 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위를 받지 못한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안되므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학교 인턴프로그램들은 대비되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학교를 연계해서 하므로 학생의 신분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환형 인턴도 있지 만, 참여형 인턴도 있어서 아직 졸업까지 학기가 많이 남은 3학년 학생들부터도 참 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의 인턴으로 참여시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학점 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턴 참여 학기에도 이러닝이나 OCU, 야간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므로 인턴 때문에 휴학을 하거나 초과학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학습병행이나 단기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자신의 목적이나 희망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보고 학교를 통해 장기현장실습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장기현장실습 준비

보통 IPP는 참여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에 모집공고가 올라오고 서류전형과 면접전 형이 진행됩니다. 대게의 경우라면 기말고사 기간에 자소서가 마감되고, 기말고사가 끝난 후 면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게의 경우를 말한 것이고, 기말고사 전에 채용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 기말고사 후 방학이 되

어서야 모집공고가 올라오는 곳 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모집공고를 올리고 지원하는 기간이 달라서 틈틈이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확인하였습니다. IPP를 준비하면서 궁금점과 질문사항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는 IPP사업단의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 해결해 나갔습니다.
교내 IPP사업단 홈페이지에서 모집 부서별로 하는 업무를 확인하고 지원할 회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을 학사로 취득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제약회사의 품질관리(QC)나 품질보증(QA)를 기준으로 찾아보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와 회사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마감 기간을 넉넉하게 주고, 개 인당 3번의 기회가 있으므로 가장 가고 싶은 회사부터 1지망을 쓰고 차근차근 준비 해 나갔습니다.
지원 회사를 결정하고 나서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외활동이나 공 모전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았고 따 둔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인재상을 찾 아보고 지원업무와 관련된 전공과목과 경험들을 최대한 적용하여 쓰려고 노력했습니 다. 면접에서도 자소서에 적힌 내용을 위주로 질문을 받았고, 좋게 봐주신 덕분에 최 종 합격하여 한미정밀화학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대학교 최고학년에서 회사 막내로
첫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의 긴장감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자리에 앉아만 있 어도 기가 빨리고 불편하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대학교에서는 최고참으로 지내며 해야 할 일을 알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었 는데, 다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팀 원분들을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써야 하는지, 점심은 누구랑 먹어야 하는지, 화장실 갈 때는 조용히 다녀오면 되는지, 퇴근 시간이 되면 어떻게 퇴근을 해야 하는지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직원분들은 직장생활을 처음 해보는 학생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회사 일을 비롯한 업무와 일 처리 방식, 의사소통 방법, 사내문화 등 전반적인 직장생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실무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더욱 기억에 남고 훗 날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과 실무의 경계
품질관리팀, 그중에서도 미생물팀으로 일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회사 운영 시스템과 미생물팀의 역할을 바탕으로 2주 동안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일은 저에게 매우 낯설었습니다. 저는 생명공학부로 학교에서 전공수업을 통해 이론교육을 받았었습니 다. 일반생물학부터 시작하여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미생물학, 유기화학, 발효공학 등 다양한 교과목들을 이수했지만, 정작 회사에서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모든 게 새 롭고, 배웠는지조차 까마득했습니다. 회사에서 다루게 되는 장비들은 대부분이 처음 보는 것이었고 이론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작동하는 방법은 생소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론을 중점으로 배웠다면, 회사의 교육은 이러한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기계를 사용하여 확인하는지를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이론과 직무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무교육
한미정밀화학은 의약품 원료회사입니다. 단순 업무를 하는 인턴이라도 자신이 하는 일의 원리와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담 당 사원에게 수업을 받고, 배운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였고, 담당 교육자와 팀장님께 구두 테스트를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입사원 시험을 본 후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음으로써 업무를 확실하게 숙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팀원분들이 각자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알려주시고 제품을 시험하는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다음으로 인턴으로서 자신을 보조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주 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무균 테스트 담당자인 A사원님은 무균 테스트의 방법과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파우더 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액체 세정액에 녹여서 액상의 제품을 만들고, 이 액체를 필터에 통과시킵니다. 이 필터들을 특

정 세균을 배양할 수 있는 특정한 배지들에서 배양합니다. 만약 제품에 세균이나 진균이 있다면 필터에 걸러지게 되므로 배지에서 균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이 자란 배지의 종류를 확인하면 제품 속에 어떠한 균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는 원리를 알려주셨습 니다. 여기서 인턴이 해야 하는 일은 파우더 형태의 제품을 녹일 수 있는 세정액을 만 드는 일이었습니다. 세정액은 제품에 따라 각기 다른 조성으로 만들어야 하며, 무균 시험을 위한 것임으로 세정액 자체가 시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일정 pH 범위 내에서 균이 존재하지 않게 멸균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원분들의 전반적인 실험원리를 배우고, 배정된 실험물질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회사에서의 나의 일

회사 일은 매일, 매주, 매달 하는 일과 생산일정에 따라 추가적인 일들을 수행했습 니다. 매일 하는 일에는 주로 환경 유지와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미생물 실험실의 내 부는 용도에 따라 일반실험실, 균주실험실, 청정실험실, 무균실험실로 세분화되어 특정 환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실들은 온도와 습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근 하자마자 오전에 한번, 퇴근 작전 오후에 한 번으로 하여 실험실 온도와 습도를 체크 북(Logbook)에 기록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목적이 다른 배양기들이 설정한 온도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Logbook에 기록합니다.

오전에 배양기와 실험실의 환경 모니터링이 끝나면 공장으로 가서 전날 현장에서 채취해주신 배지들을 회수해 옵니다. 한미정밀화학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무균 항생제 이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와 생산장비, 공장 환경의 무균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들은 매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작업자 의 작업복, 생산장비의 표면을 배지에 접속하거나 공기 포집기를 이용하여 대기 중의 미생물을 배지에 수집하여 품질관리 미생물팀에 전달합니다. 미생물팀은 이런 배지를 매일 아침 수거해와 배지가 주어진 검사 항목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배양기에 넣어 배 양합니다. 배지는 32.5도 배양기에 3일 동안 넣어서 세균을 배양하고, 22.5도 배양기에 4일을 넣어 진균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결과는 환경일지 서류에 매일 기록합니 다. 환경일지는 해당 배지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채취된 것인지, 날짜, 일시, 지역, 작 업자 그리고 배양 기간에 따라 관측된 균의 수를 해당 날짜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 다.

매주 균을 동정하기 위해 subculture와 접종을 수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에서 회 수해 오는 배지 중에서, 균이 자라는 배지가 있습니다. 이 배지에서 자라는 균의 종류 를 알아내기 위하여 콜로니를 따서 배지에 계대배양 합니다. 배지를 다시 배양한 후 단일 콜로니를 얻고, 탁도계를 이용하여 이 콜로니를 검사액에 기준범위 내로 풀어줍 니다. 검사액을 검사 키트에 접종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균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 습니다.

새로 들어온 배지가 있을 때는 배지적합성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로 사용할 배지 가 기존의 배지와 비교했을 때, 기준범위 내의 균 회수율을 보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새로 들어온 배지와 기존의 배지에 같은 균들을 도말하여 배양한 후, 회수율을 구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세정액 제조, 엔도톡신 시험, Validation업무 등을 하였고, Valance, 건열멸 균기, Autoclave, 폐기용 Autoclave, pH meter 등의 기계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인턴으로 일하며

처음 회사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잘하고자 하는 의지와 다르게 많은 실수를 했습 니다. 분명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음에도 순간의 착각으로 실수를 하거나, 미숙한 실 험기구 조작으로 인해 실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자책하 며 사태를 수습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 사회초년생으로의 예행연습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했을 때 나의 태도는 어때야 하며, 수 습할 방법을 찾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기계를 돌려야하는 상황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순서를 실 수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계들을 작동함에 있어서 스케줄 예측이 어려웠을 때, 기계 설정을 잘못했을 때와 같이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럴때는 과감하 게 잘못을 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차근차근

계획표를 세워서 실행하는 등 저만의 방식들을 배워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해야할 일을 정리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을 미리 예측하여 하루일과를 세웠습니다. 기계를 돌리는 순서와 필요한 물건들처럼 사소한 정보까지 미리 기록하여 실수를 최소화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습관 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만의 업무 방식을 정 할 수 있었고,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턴으로 일하며 이러한 경험과 습관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훗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을 때도 업무에 적응하는데 큰 힘이 될것같습니다.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마치며

학교 현장실습으로 연결된 회사에서 인턴체험을 하는 것은 여러므로 장점이 많았습 니다. 앞써 언급했던 학점연계와 재학생 신분을 제외하고도 언급하고 싶은 것들이 있 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교가 선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말 이상한 회사 들이 걸러집니다. 선배들이 이미 거쳐 갔던 회사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와 후기들을 통해 검증된 회사이고, 첫 인턴이 된 경우에도 담당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안부를 묻고 인턴 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시므로 흔히 말하는 갑질이나 부당대우와 같은 비이상적인 회사에서 일 할 확률이 낮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측에서 인턴을 여러번 고용해봤기 때문에 인턴으로서 회사에 적응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인턴에게 실무를 가르치는 교 육체계부터 인턴이 할 일, 인턴 담당 사수 등이 명료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같은 방 식으로 인턴으로 있으며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 문에 혹시나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우가 있다면, 고민하지말고 지원하라고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앞으로의 방향

요즘은 인턴을 금턴이라고도 합니다. 정규직보다 인턴 경쟁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특히, 제약회사는 실무경험을 높 게 쳐주지만 인턴을 뽑는 곳이 거의 없어서, 취업 시장에서 남들과는 대비되는 좋은 스펙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강점으로 살려 제약회사에 지원할 예 정이고, 이번년도안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있을 경우 첨부)	
Airsampler 가동	subculture
pH측정	Autoclave 작동
건열멸균기 작동	균 counting

관련 사진 (있을 경우 첨부)	
Bubble 관측	환경모니터링
endotoxin 실험	폐기용 Autoclave 작동
이물확인	실험기구 전달

학과 (학부)	나노바이오전공		
실습 업체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습기간	2020. 03. 16. ~ 2020. 06. 30.
공모작 제목	현장실습을 되돌아보며.		

[실습 과정 및 적응 스토리]

입사교육부터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의 현장실습은 체계적인 과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 제조되는 전제적인 과정에서부터 QC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까지 배우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할 때 멘토님의 도움 덕분에 어려움 없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동기 프로님들이나 같은 부서의 사원분들께도 도움을 받으며 진행했습니다. 타부서와도 업무를 수행하며 의사소통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셨던 많은 회사 직원분들과 담당 교수님이신 김병구 교수님께서도 중간중간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회사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느낀점 및 배운점]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에서의 실습으로 현장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식적으로만 배웠던 것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응용되어 활용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업무들을 직접 배우고 학교에서는 다룰 수 없는 시험기기들을 다뤄보고 시험을 해볼 수 있어 전공역량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전공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며 앞으로 더 개발해야 하는 역량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공정과 회사의 업무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었던 입사교육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제약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GMP 환경에서의 업무 경험이 앞으로의 취업과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생활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상호작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재직자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업무에 관한 부분과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특별히 팀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로계획]

IPP 현장실습 전에는 대학원과 취업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학부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직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선뜻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QC팀을 희망하긴 했으나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IPP 활동을 통해 실무를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두려움과 고민은 사라지고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막연함이 컸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품질관리 업무가 나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품질관리팀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하는 품질관리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IPP의 경험을 살려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하고 또한 그곳에서 나의 역량을 발휘하여 인천대를 빛낼 수 있는 졸업생이 되고 싶습니다.

[제안사항]

산업현장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통해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을 주고,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IPP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며 IPP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더 많은 학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를 설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인천대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대학교 취업경력개발원

발 행 처	인천대학교 취업경력개발원	
엮 은 이	취업경력개발원	이다예
디 자 인	디자인학부	이도영
주 소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17호관 105호	
전 화	032) 835-9610	
홈페이지	job.inu.ac.kr	